



06

# 예술가의 초상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JUNE  
vol.270

### Cover Story

리처드 용재 오닐·임동혁·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반갑습니다 극단 맥 대표 이정남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옥상의 재발견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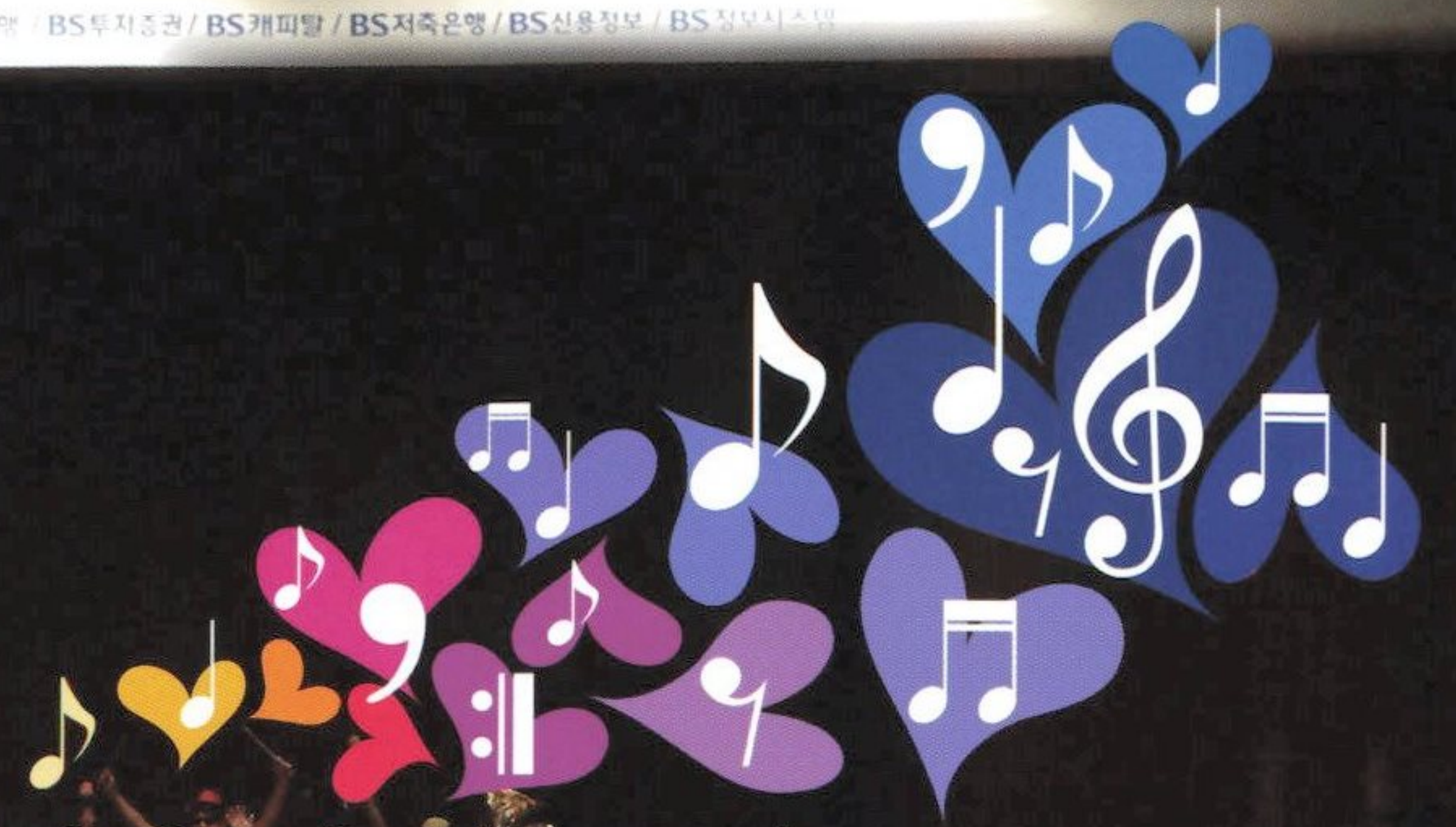




BS BS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 연주회

BMCO

2013. 7. 27(토) 오후 3시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BS부산은행 / BS투자증권 / BS캐피탈 / BS저축은행 / BS신용정보 / BS정보시스템



제2회 BS BS금융그룹



참가자 모집

# 행복한 음악캠프

BS금융그룹이 청년 음악인의 재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유명교수진의 재능기부**와 **참가비 전액무료, 5박 6일 합숙 레슨**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BS행복한 음악캠프**를 개최합니다. 음악전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제1회 BS행복한 음악캠프







# B M C O

BS뮤직캠프오케스트라(BMCO)

## ▶ 제1회 BS행복한 음악캠프 발대식

## 모집요강 및 캠프안내

<b>캠프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간: 2014년 7월 28일(월) ~ 8월 2일(토) (5박 6일 합숙)</li> <li>②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BS금용그룹 부산은행 연수원</li> </ul> </li> <li>▶ 캠프 수료 후 연주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시: 2014년 8월 2일(토) 오후 4시</li> <li>②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권 무료 배부: 7월 1일부터 인터넷 'BS부산은행조은극장' 홈페이지)</li> </ul> </li> </ul>
<b>지원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악, 국악 전공자로서 만16세(1998년생)이상 29세(1985년생)이하이면 누구나 가능</li> <li>※ 향후 중병서류 장구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li> </ul>
<b>선발인원</b>	▶ 100명 내외
<b>선발분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래식분야: 현악, 관악, 타악, 하프</li> <li>▶ 국악분야: 대금, 태평소, 해금</li> </ul>

<b>원서접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간: 2014년 6월 2일(월) ~ 6월 16일(월)</li> <li>▶ 접수 방법: BS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BS부산은행조은극장 홈페이지(www.gp-co.kr)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bsmusiccamp@naver.com) 접수</li> <li>▶ 선 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발시 우대)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li> </ul>
<b>선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서류심사: 지원 자격 심사 (결과 발표일 2014년 6월 20일(금))</li> <li>▶ 2차 오디션: 2014년 6월 24일(화) ~ 6월 25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실시 / 결과 발표일: 2014년 7월 2일(수)</li> <li>② 오디션 곡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자유곡 1곡</li> <li>-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자 제외된 신청자에 한해 3분 이상 연주 동영상파일로 오디션 대체가능 (6월 20일 ~ 6월 24일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bsmusiccamp@naver.com)</li> <li>- 결과 조회 방법: 'BS부산은행 조은극장 홈페이지' 에서 개별 조회</li> </ul> </li> </ul> </li> </ul>

<b>참가비용</b>	<b>전액 무료</b>
<b>캠프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내용: 유명 교수진의 전공별 마스터 클래스 (개인 &amp; 앙상블)</li> <li>▶ 특전: 참가자 전원 수료 연주회 참가 / 수료증 수여</li> </ul>
<b>연주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 슈트라우스 / 교향시 후 안락 작품20 R Strauss / Symphonic Poem 'Don Juan' Op. 20</li> <li>▶ 모짜르트 /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299 W.A.Mozart / Concerto for flute and harp &amp; orchestra in C major, K. 299</li> <li>▶ 최성환 / 아리랑 Sung-Hwan Choi / Arirang</li> <li>▶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5곡 M. P. M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li> </ul>
<b>문의</b>	<p>BS금용그룹 부산은행 (T.051-620-3844) 세부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S부산은행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p>

**예술총감독 오홍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b>바이올린 김영목</b> 경희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철초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 졸업 경희대 음대 학장 역임 현재 경희대 평화의전당 관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b>바이올린 김영희</b> 이화여자대학교, 원혜국립음대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리더
	<b>바이올린 박재진</b>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졸업 현재 동인대학교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b>바이올린 임교운</b> 서울대 재학중 도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원혜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b>바이올린 임경아</b> 미국 맨해튼 음대 및 대학원, 메릴랜드 대학교(박사) 졸업 2013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현재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b>비올라 최승통</b>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한세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아우디오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b>비올라 박주연</b> 부산대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재 울산대학교 외래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b>첼로 이재규</b> 연세대학교, 미국 메네스 음악대학원 졸업 국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연세대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b>첼로 송희승</b>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상 수상 및 정부장학생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b>베이스 김경호</b>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b>베이스 박현열</b> 부산대학교, 불리아 국립 소피아 아카데미 졸업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b>플루트 김경미</b> 서울대학교, 프랑스 예콜노르말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b>플루트 임경주</b> 미국 줄리아드(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박사) 졸업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외래교수 KBS교향악단 수석
	<b>오보에 이승희</b>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데르담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안양대학교 외래교수
	<b>오보에 이윤정</b> 서울대학교, 미국 줄리아드(석사) 졸업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금호행버뮤직소사이어티 멤버
	<b>클라리넷 김현곤</b> 서울대학교, 원혜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제리제임바인상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

	<b>클라리넷 이임수</b> 서울대학교, 미국 USC 음악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수석 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b>바순 광광선</b> 서울대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선화예고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금호행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b>바순 최영진</b>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이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롬드헤임시립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b>호른 알렉산더 아킴오프 (Alexander Akimov)</b> 벨라루스 국립음악원 졸업 레닌그라드 국립음악원 졸업 현재 KBS교향악단 부수석
	<b>호른 준지 다케무라 (Takemura Junji)</b> 일본 쿄나지 음악대학 졸업 도쿄시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아이치대학 교수 역임 현재 대우시립교향악단 수석
	<b>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b> 그네신 대학,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모스크바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b>트럼펫 김관선</b> 한국예술종합학교, 데틀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상남시립교향악단 수석
	<b>트롬본 이정성</b> 서울대학교, 미국 맨해튼 음대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b>베이스 트롬본 김유석</b> 미국 맨해튼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b>튜바 김관호</b> 프랑스 콘서바토리 수석 졸업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외래교수 아카데미 브라스 멤버
	<b>타악기 광광선</b> 오스트리아 비인국립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국제타악기페스티벌 음악감독
	<b>타악기 김경우</b> 동원대학교, 독일 로스토크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현재 동원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b>하프 박라라</b>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학사, 석사) 박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대금 전지현</b> 부산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현재 KBS국악관현악단 단원
	<b>해금 전지인</b> 부산대학교 졸업 제2차 OCA총회 안현(사)인계임 흥보 연주(필리핀) 태국 아시아 음악축제, 천진 국제문화예술제 참가
	<b>부지휘자 김관선</b>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 졸업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BS 부산은행 / BS 투자증권 / BS 캐피탈 / BS 저축은행 / BS 신용정보 / BS 정보시스템 / BS 금용그룹 희망나눔재단



LIG 문화재단 기획공연 |  
LIG아트홀 · 부산

박은화 안무작  
〈Tuning XII-Clay〉  
6.6(금) & 6.7(토) 5pm

신은주 안무작  
〈時 - 撫 시간을 만지다〉  
6.13(금) 8pm & 6.14(토) 5pm

# 부산 안무가 시리즈

LIG아트홀 · 부산

티켓 : 30,000원

예매 : 인터파크

주최 : LIG문화재단 T. 051-661-8701

LIGART HALL



동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 PLAN-CO. #1

## 소리, 소문도 없이는

한·일 양국 젊은 세대 아티스트들이 부산-후쿠오카 지역 내 일상 속에 떠돌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뜬 소문을 리서치하고 일반인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소문들을 추적 한 뒤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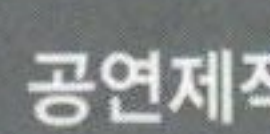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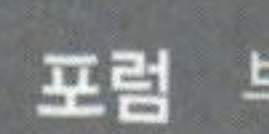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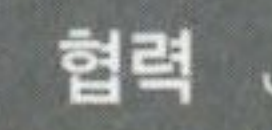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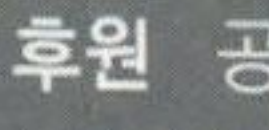


# 소리, 소문도 없이는

**포럼** 2014. 6. 20(금) 15:00 사상인디스테이션

**공연** 2014. 6. 21(토) - 22(일) 17:00 LIG아트홀·부산

전석 30,000원 **예매**  INTERPARK  문의 051.661.8701

공동주최  LIG 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시 문화예술진흥재단  공연제작 LIG문화재단  포럼 부산문화재단  
주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협력 Japan Contemporary Dance Network(JCDN)  후원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LIG ART HALL





Lee Seung im Dream for Orchestra

Beethoven Triple Concerto

Schumann Symphoney no.3

**2014.6.12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김원명 지휘자 | 이호상 작곡가 | 이승임 협연 | Vn. 김준영 Vc. 정준수 Pf. 오윤복 연주 |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이광섭

※ 본 공연은 2014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C o n t e n t s

2014  
JUNE  
vol.270



08 **커버스토리**  
리처드 용재 오닐,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Cultural Story

- 10 **공연 일정**
- 12 **반갑습니다**  
극단 맥 대표 이정남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브리즈번의 가을은 날마다 축제\_최성모
- 18 **불멸의 거장**  
강태홍 가야금산조의 전승\_김혜진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옥상의 재발견\_강기표
- 23 **하인상의 생각그림**  
분노하라
- 24 **그곳에 가면**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 26 **우리는 문화가족**  
천가초등학교 은행나무 오케스트라

Boards Inside

- 30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Center News

- 58 테마가 있는 여행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4 부산문화회관로
-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6월호 통권 270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5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대한민국을 흔드는 젊은 BIG3가 한 자리에!  
세기의 천재 모차르트와 젊은 거장들이 일으키는 빅뱅!

모차르트의 진수,  
정통 비엔나 사운드가 온다!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 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초등학교이상 관람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051-607-6058/1588-7890





# 대한민국을 흔드는 젊은 BIG3가 한 자리에! 세기의 천재 모차르트와 젊은 거장들이 일으키는 빅뱅!

우리 음악계에서 최고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이 전통 비엔나 사운드의 진수를 들려주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6월 부산을 찾는다.

현재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솔리스트 3인이 한 무대에 서는 일은 음악계에서도 드문 일로, 이들의 공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악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BIG3의 인기는 4월 10일 티켓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예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 3인의 조합 외 음악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예술감독 스테판 블라더와 함께 내한하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최고의 모차르트 연주팀으로 정평이 나 있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1946년 창단된 단체로 명지휘자 카를로 체키, 예후디 메뉴인, 산도르 베그, 네빌 바리너, 아담 피셔, 루돌프 바리샤이 등과 정통 모차르트 사운드를 구현해 왔다. 더불어 마르타 아르헤르치, 안나 네트랩코, 체칠리아 바르톨리, 키리 테 카나와, 재닌 안센, 에마누엘 파위, 막심 벤게로프, 토마스 체헤트마이 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연주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세계적 명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5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스테판 블라더는 유럽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이다. 비엔나 국제 베토벤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스테판 블라더는 2009년 그의 탁월한 음악적 성과로 오스트리아 명예 황금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오랜만에 부산 음악팬을 찾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서 형 임동민이 1위에, 임동혁이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임동혁은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상, 파리 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 파스키에 상 등 5개상을 휩쓸며 2001년을 화려하게 마감했다.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 3위 수상, 2007년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 1위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 임동혁은 뉴욕에 거주하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그래미상 2개 부문 후보 지명 뿐만 아니라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은 세계가 주목하는 비

올리스트 중 한 사람이다. 솔리스트로서 런던 필하모닉(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지휘), LA 필하모닉(미구엘 하스 베도야 지휘), 서울시립교향악단(프랑수아 자비에르 로스 지휘), KBS 교향악단,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쾰른, 세종솔로이스츠 등과 협연하며 활발히 활동해온 리처드 용재 오닐은 실내악으로는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정식 단원, 디토 페스티벌 음악감독, 앙상블 디토 리더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뉴욕에 거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았으며, 2007년부터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교향악단, 키엘 필하모니, 니스 필하모니, 아틀란타 교향악단,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코리안 챔버 앙상블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클라라 주미 강은 세 살에 바이올린을 시작, 이듬해 네 살, 최연소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하고 다섯 살의 나이에 함부르크 교향악단과 데뷔연주를 가졌던 음악신동이다. 2007년 티보 바가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 2009년 서울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2009년 하노버 바이올린 콩쿠르 2위 입상, 2010년 센다이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인디애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과 다섯 개의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클라라 주미 강은 2012년 한국의 유력지인 동아일보가 마련한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었고, 국제 무대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연주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대원 음악상'을, 2013년에는 4년만에 부활한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했다. 클라라 주미 강은 현재 뮌헨에 거주하며 뮌헨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을 사사 중이다.

'모차르트'를 테마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과 클라라 주미 강은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함께 협연하고 임동혁은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연주한다.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스테판 블라더는 그들이 자랑하는 대표 레퍼토리인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로 최고의 사운드를 선사한다.



# CULTURAL SCHEDULE

SUN

**1**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공식초청공연  
19:30 무료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8** 와우 트로트 스타 쇼 13:00, 18:00  
두레엔터테인먼트(868-0055)

부산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19:00  
균일1만원/부산국제클라리넷페스티벌  
(070-4178-7238)

**15**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발표회  
저 멀리 날개를 펼칠 그들의 작품회 17:00  
무료/신라대학교(999-5301)

**22**

가족과 함께 즐기는 All that Harp  
18:00 초대/김영랍(010-9261-8843)

**29**

mon

**2**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국제안  
무가육성공연 19:00 균일 1만원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9**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16**

글로리콰이어 제23회 정기연주회-내 영  
혼 바람되어 19:30 균일 1만원/글로리콰이어  
(010-8544-4702, 010-4031-7053)

김소현 해금 독주회-풍류와 산조  
19:30 초대/김소현(010-4642-9310)

**23**

**30**

U.K.O 제33회 정기연주회  
'추모... 그리고, 희망' 19:30  
균일2만원/UKO(010-3863-3087)

TUE

**3**

아지무스 오페라단 기획공연 행복콘서  
트 '평화와 전진' 19:30 균일 3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19:00 무료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10**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1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체임  
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9만원, 7만  
원, 5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제10회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  
연주회 19:30 균일1만원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010-3304-5154)

**24**

미국 캠벨스빌 앙상블 초청연주회  
19:30 3만원, 2만원, 1만원  
부산문화(1600-1803)

부산시립무용단 '2014 풍류 9기'  
19:30 균일 3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7/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  
19:30 2만원, 1만5천원,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제8회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Duo Concerto 19:30 균일 2만원  
최성규(010-3564-3439)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 WED

## THU

## FRI

## SAT

**4** ● **대**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19:30  
 아마빌레오케스트라(010-3580-8661)

● **중** 김은정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소**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Dream Performance 2014' 19:00  
 무료/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627-7992)

**5** ● **중** 제2회 이유태 독창회 '희희낙락' 19:30 초대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6** ● **중** 6월에 그려보는 내 피아노 스케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17:00  
 초대/김정희(010-4552-4106)

● **소** 어린이 영어뮤지컬 'KIBI' 17:00  
 균일1만원/위컴스(010-6205-1445)

**7** ● **중**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627-8088)

● **소** 토요일상설무대-국악밴드 아비오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미취학 어린이는 입장 불가)  
 부산문화회관(607-6056)

**11** ● **대**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중**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소**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12** ● **대**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중**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소**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13** ● **대**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중**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소**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14** ● **대**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10주년 기념 음악회 19:00 균일 1만원  
 장경식(607-3116, 017-544-5451)

● **중** UKYO 제9회 정기연주회 '밝은 미래, 나눔을 함께하는 음악회' 17:00  
 균일 5천원/UKYO(010-5540-1538)

●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미취학 어린이는 입장 불가)/부산문화회관(607-6056)

**18** ● **대**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중**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19** ● **대**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중**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20** ●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1회 정기연주회 '명작, 러시아 I' 19:30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중** 제5회 피아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피아스트라(010-9470-0094)

**21** ● **대**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밥 칠컷'의 'REQUIEM, 레퀴엠' 19:00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301-9413)

● **중** 2014년 KBS부산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KBS부산어린이합창단(010-3864-9889)

●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미취학 어린이는 입장 불가)  
 부산문화회관(607-6056)

**25** ● **중** 라메르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꿈 콘서트' 19:30 2만원, 1만원  
 라메르오케스트라(627-5665, 010-5566-5332)

**26** ● **중** 예원회 제11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협주곡의 밤-두번째 시리즈 '로맨틱 그리고 두대의 피아노' 19:30  
 균일1만원/예원회(010-4871-9288)

**27** ● **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두개의 레퀴엠'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

● **중** 부산원로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1만원  
 부산원로교향악단(011-843-0366)

**28** ● **중** Sorina Duo Piano Recital 19:30 균일 2만원  
 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 **소** 토요일상설무대-아지무소오페라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미취학 어린이는 입장 불가)  
 부산문화회관(607-6056)

**7/2** ● **대** 닥터스빅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정홍기(010-2561-6047)

**7/3** ● **대** 제25회 이견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윈드퀸텟 초청공연' 19:30  
 초대(초대권 신청은 www.eagonlag.com)  
 이견창호(010-9941-6780)

●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3회 슬로이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전시**

**제9회 부산디카사랑사진전시회-중전시실**  
 5월 30일(금)-6월 1일(일)  
 임구택(010-4415-0035)

**제18회 부산회화제-대, 중전시실**  
 6월 9일(월)-6월 15일(일)  
 김명수(010-4138-4847)

**제40회 부산미술대전 공개 심사-대, 중전시실**  
 6월 17일(화) 서예, 문인화 부분  
 6월 22일(일) 디자인 부분  
 부산미술협회(632-2400)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중전시실**  
 6월 24일(화)-6월 27일(금)  
 정한권(010-2846-1491)



반갑습니다



2013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2월-3월  
 스페이스 "전사들의 땅" (연극)  
 6월-7월  
 무용스 "파랑새" (무용)  
 9월  
 "선드림-메이킹과 함께 하는  
 유로자임 오케스트라" (음악)  
 11월

2013 지방문화재단 특별프로젝트... (원사, 201, 신문, 판공, 삼성, 체육, 지원사)  
**MAC OFF**  
 2013 부산공연예술축제  
**노랑, 오랑, 주, 거라!**  
**THEATER FESTIVAL**  
 2013. 5. 4 - 12 (9일간)  
 동래문화회관 / 을숙도문화회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재단연합회, 문화재단연합회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문의처: 동래문화회관 0511-550-6611, 을숙도문화회관 0511-220-5811  
 관람료: 25,000원  
 공연시간: 19:00 (공연 관람객은 18세 이상)  
 \* 공연장 무료, 입장객 1인 1회, 입장료 14,000원

**맥 OFF페스티벌 무료관람 이벤트**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 이정남

부산 극단 최초로 프랑스 아비뇽 무대를 개척한 극단 맥의 이정남 대표.  
 지난 5월 프랑스 극단 꼴렉띠프까뜨엘과 스위스 극단 앵떼르파스 등과 함께 한  
 '맥 오프(MAC OFF)'를 성공적으로 끝내고도 그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6월 이정남 대표와 극단 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 공연이 바로 코앞이다.

“우리 연극계 현실로 극단 자력으로 해외 진출이 정말 힘듭니다. 해외체제 경비를 비롯한 경제적 여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해외 무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극단 맥은 지난해 아비뇽의 콘디시옹데소아 극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맥의 대표 작품 '비나리'의 아비뇽 진출에 성공했다. 열정만큼 운도 따랐다. 우연한 기회에 극장을 찾은 '르 피가로'지의 기자가 극단 맥의 '비나리'를 관람하고 르 피가로지에 '2013 아비뇽 오프의 보석 같은 작품'으로 극찬하면서 아비뇽에서 '비나리'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던 것. 당시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비나리'는 큰 호응을 이끌었다.

사실 '비나리'의 성공은 연극 한길만 걸어온 이정남 대표의 고집스러운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극단 맥은 2008년부터 꾸준히 해외 공연을 추진했다. 이정남 대표는 2008년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여자연기상을 수상한 '개똥할매'를 동해안 오구곳의 형식을 빌어 '비나리'라는 작품으로 재창작했고 해외 진출에 앞서 이탈리아와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면서 유럽 무대를 겨냥, 작품의 틀거리를 만들었다.

반복되는 힘든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비나리'는 드넓은 유럽시장을 향해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6월에는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연극제에서 '비나리'를 선보이고 이어 프랑스 파리로 옮겨 한 달 가량 파리의 협력극장에서 장기 공연을 한 뒤 아비뇽페스티벌 오프에 참가할 계획이다. 캐나다 공연도 진지하게 고민중이다. 해외 연극제에 초청받아도 체재비, 항공료, 대관료, 홍보비 등 극단 부담액이 만만치 않다.

“해외 공연의 성공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나리는 유럽 무대를 앞두고 대사를 줄이고 한국의 정서와 전통이 담긴 춤과 소리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정남 대표는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위해 프랑스에서 공연진행을 위한 프로듀스를 직접 섭외하고 극단 맥은 공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앞으로 '맥 오프'를 통해 부산 극단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맥 오프 초청 극단은 프랑스와 스위스에 극장이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상호 공연이 가능합니다. 맥은 힘들게 시작한 만큼 부산의 극단, 부산작품들이 해외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를 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극단 맥의 대표이지만 연극계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의 느낌, 그 첫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힘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에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인형극 무대에서 줄을 잡는 아르바이트를 보름간 한 것이 이정남 대표와 연극과의 첫 만남이다. 그때 화려한 조명을 보면서 무대에 매료되었던 이정남씨는 그렇게 극단에 첫 발을 디뎠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일본 어과에 입학했던 이정남 씨는 입학하자마자 친한 친구들과 연극동아리를 만들었다. 복학 후 동아리도 운영하고 극단 맥 활동도 같이 하며 극단 맥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루마니아, 프랑스 공연 후 이정남 대표는 10월 공연을 목표로 독도이야기를 담은 전통 연희극을 구상하고 있다. 새 작품의 독도공연을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의욕이 대단하다. 그외 맥 오프를 통해 부산을 찾은 스위스 앵떼르파스 극단의 '천사의 망각(L'Oubli des Anges)'은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내년에는 '천사의 망각' 한국어번전을 오페라 뮤지컬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변화를 시도해온 이정남 대표. 유럽 무대에 우리의 맥을 전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최성모  
호주통신원

브리즈번의 가을은  
나폴리  
축제





부활절 시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달걀모양의 초콜릿

“

호주 브리즈번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린지  
어느새 3년차인 초보 아줌마에게  
호주는 여전히 신기한 것이 많다.  
내가 사는 브리즈번은  
인구는 220만 명 정도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번째로 큰  
항구도시이다.  
호주 동부의 자원 수출 중심지이기도 한  
브리즈번은 1823년 존 옥슬리가  
최초로 탐험했다.  
초기의 이름은 이든클래시였는데  
뉴사우스웨일스의 전(前) 총독  
토머스 브리즈번 경(卿)을 기념해  
도시명이 브리즈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호주는 남반구 인지라 북반구인  
한국과는 정반대여서 요즘은 계절이  
겨울을 향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시린 추위 때문에 매일 이불 속을  
파고들게 된다.

호주는 4월부터 정확히 6월까지 꽤 많은 국경일 행사가 열린다. 우선 4월이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행사가 부활절이다.

이번 2014년도 부활절은 4월 18일 굿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21일까지 휴가였는데 이 부활절이 호주에서는 아주 큰 명절이라 1년에 3번하는 세일 시즌 중에 미드 시즌세일까지 할 정도로 크고 아이들에게는 2주간의 방학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모두들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모든 행정 업무들도, 심지어는 부동산에 집 구하는 일도 진척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이 시기가 성격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겐 기나긴 인고의 시간 중 하나이다.

그리고 호주의 모든 초콜릿 회사에서는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이때부터 출시한다. 어린 시절 우리가 교회 부활절 행사 예배에 참석하면 나눠 주던 삶은 달걀 대신 이렇게 걸만 달걀 모양인 초콜릿으로 대신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다. 부활절과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토끼 모양의 초콜릿과 선물들도 출시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토끼가 다산을 해서이지 않나 싶다. 매년 하는 행사이다 보니 이 초콜릿들은 부활절이 끝나면 바로바로 세일을 하는데 각종 부활절 관련 장식품들은 내년에도 사용되니 똑똑한 알뜰 주부들은 이때 미친듯이 세일 상품을 쟁여 두었다가 내년을 기약한다.

이렇게 부활절이 끝나고 4월 25일이 되면 안작 데이(ANZAC DAY: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 DAY)가 찾아온다. 이 날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군인들이 1915년 4월 25일 새벽, 1차 세계대전 중 터키 갈리폴리 상륙작전에 참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최성모  
호주통신원



안작데이는 군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사람이 많다

전했다가 전사한 만 여명의 군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여러 지역에서 군인들이 당시의 군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모습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다. 안작 데이에  
는 추모의 의미로 빨간 양귀비 꽃을 꽂고 추모하는데 붉은색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  
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작 데이에는 안작쿠키를 만든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호주가 전쟁에 참가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연합군 가족들이 구호물품으로 만든  
쿠키인데, 매년 안작데이에 즈음해서 이 쿠키가 여기저기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적십자 자금조성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협회를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이 날 브리즈번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골드코스트에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가지고 나서 시작하는 불꽃놀이 행사지만 나중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일  
찍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마침 또 야시장이 들어서서 날인지라 미리 가서 군인 모  
습을 하고 동상처럼 서 있는 참가자들이랑 사진도 찍고 약간의 기부도 했다. 야시장  
에만 나오면 정말 사고 싶은 제품들이 많지만 골드코스트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  
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라 같은 제품도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다.

그리고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의 오랜 명물~~코펜하겐 아이스크림을 사이  
좋게 나눠 먹으며 겨울에도 뜨거운 대낮의 호주 태양을 만끽했다. 불꽃놀이는 저녁  
7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보려는 사람들로 서퍼스 해변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불꽃놀이는 어디서 보든 정말 이쁘다. 워낙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호주인지라 불꽃을 조금은 멀리서 볼 수 밖에 없었다. 연말에도 불꽃놀이가 열리는데 올해 연말 불꽃놀이는 최대한 가까이 자리잡아 더 멋지게 구경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자, 이렇게 정신없는 4월이 지나가고 5월. 한국에 5월의 황금연휴가 있다면 이곳 호주도 5월은 어버이(어머니)의 날로 분주하다. 그런데 호주는 조금은 특이하게도 매년 5월 둘째주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이고 9월 둘째주 일요일에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이 따로 있다.

4월이 지나기가 무섭게 모든 쇼핑센터에서는 어머니의 날을 위한 특별 행사 제품 준비로 바쁘다. 어머니의 날에는 핑크리본으로 표시한 제품이나 각종 제품을 화사한 핑크색으로 꾸민 제품이 많다. 그 이유는 '핑크리본'이라는 유방암 환자 돕기 재단이 있는데 모든 회사에서 이 핑크리본을 표기한 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유방암 환자 돕기에 기부 하기에 시민들이 일부러 더 핑크리본이 표기된 제품을 구매한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이유가 이 제품들이 특별 할인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곳도 영국의 지배를 받는 여왕의 나라라 그런지 어머니의 날 행사만큼 아버지의 날은 거창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호주는 여자들이 참살기 편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바쁜 5월 꽃샘추위가 지나면 눈은 오지 않지만 칼바람이 무릎까지 시리게 만드는 긴 겨울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한국의 여름이 벌써 그리워진다.

어머니의 날에는 핑크리본으로 표시한 제품이나 각종 제품을 화사한 핑크색으로 꾸민 제품이 많다.





글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

사진  
강태홍류가야금보존회

# 강태홍 가야금산조의 전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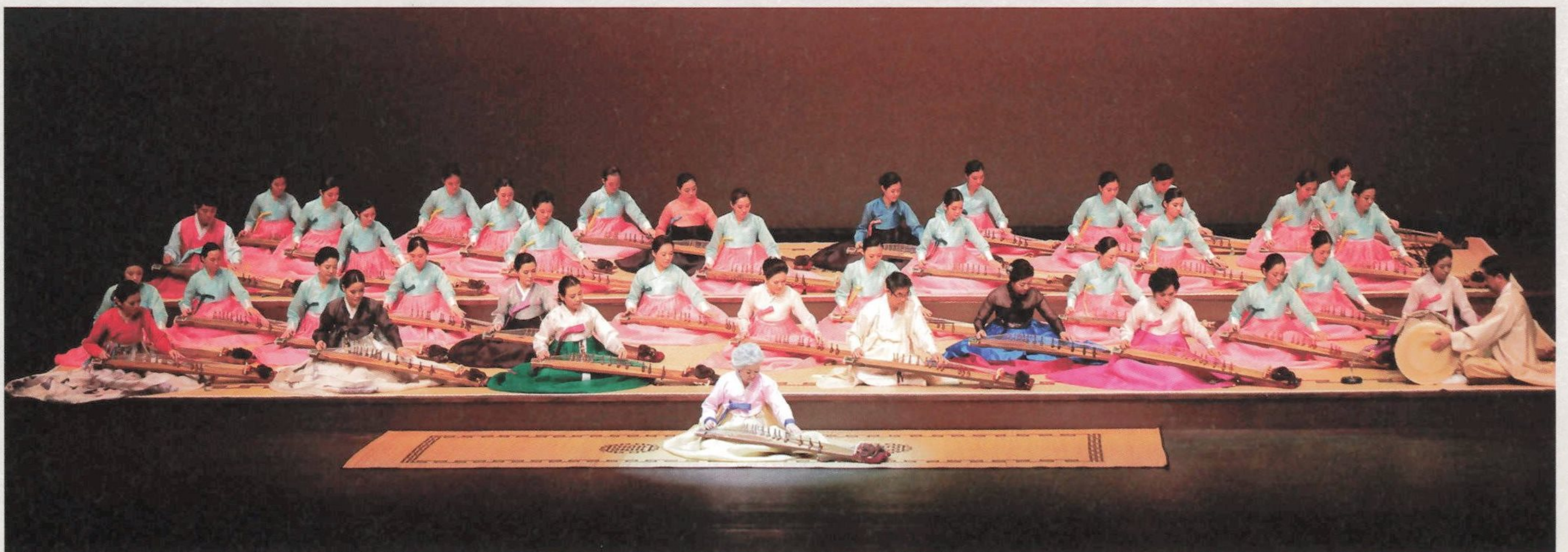
'신(神)의 가야금' 또는 '새 가야금'으로 불리던 효산의 산조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소리는 흩어져 사라진 게 아니라 비가 천지의 기운을 담고 대지에 스며들어 씨를 싹혀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그의 예술혼과 소리는 탄생한지 두 갑자가 지난 오늘 재조명되고 있다.

효산의 가락이 전승되어 오기까지에는 제자 세 사람의 몫이 지대하였다고 평가된다. 효산의 산조가 빼어난 가락이 었다 하더라도 이 세 분의 예술적 삶이 없었더라면 그의 가락은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효산에게서 가야금, 춤, 소리를 배운 사람들은 많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야금을 전수받은 이는 원옥화, 김춘지, 구연우로 알려져 있다. 이 세 분이야말로 효산의 가락을 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조의 전통 명맥을 잇는데 이바지한 공로자들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효산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술을 위해 살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다. 원옥화는 효산의 바디를 받아 효산의 가락을 뿌리내리려 애썼으나 그 뜻을 이루기 전에 운명하였고, 김춘지 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었음에도 만 1년도

채 안되어 이승을 떠났으며, 구연우는 처음으로 효산의 가락을 전 바탕 이어 받고 선생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효산의 산조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 세 분은 오늘 우리들 곁에 계시지 않지만, 효산의 산조를 뿌리내리는 데 몸과 마음을 바쳐 오셨으며, 이 분들의 예술혼이 이 시대에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명맥을 이어주신 분들임에 틀림이 없다.

원옥화의 본명은 원옥남으로 1928년 12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12, 3세경 효산의 문하에 들었다. 그 뒤 조선 창극 단원을 지내면서 박녹주, 김연수, 김소희, 한갑득 선생들에게서 판소리와 거문고를 배웠다. 원옥화의 재주는 무척 뛰어났었다. 가야금 열두 줄 중 닉 줄이 끊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한



강태홍 가야금 산조 보존회 연주장면



다. 그가 흥타령에 “멋있게 살다 멋있게 죽겠다”는 대목을 넣어 부른 것을 보면, 그의 예술과 인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김춘지는 본명이 김채운으로 1919년 12월 20일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7세 때 효산 문하에서 가야금 풍류를 사사 받고 조용구, 한용호 문하에서 가야금 병창과 한성기류 가야금 산조를 배웠으며, 25세부터 10여 년 동안 효산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우고, 그 이후 한갑득, 임석윤에게 거문고 산조와 정악을 익혔다. 김춘지의 성품은 그의 스승을 닮아 대쪽 같았다. 그는 보유자가 된 뒤 전수생을 정할 때 모씨로부터 전수자 천거를 받고, 문화재를 반납할 망정 그를 제자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한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혀 주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구연우의 본명은 구기홍으로 1936년 9월 29일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명이 유별나 학교수업 중에도 음악소리에 귀가 팔리면 학교를 빠져 나갔다가 공연이 끝난 뒤에야 학교로 돌아왔다고 한다. 10대에는 동네 어른들의 천거로 풍물패의 상쇠를 맡기도 하였다. 그가 효산 문하에 든 것은 16, 7세 때이다. 6·25사변 후 부산에서 국극단의 창극을 보고 그의 음악성이 발동하여 스스로 효산을 찾았다. 그때 효산은 환갑이 가깝도록 제자 때문에 고심하던 중 찾아든 구연우를 보고 “내가 늙어서야 연우가 제 발로 들어와 번듯한 제자를 만나는구나”하며 기뻐하였다고 한다. 원옥화가 살아생전 “연우가 나보다 더 잘탄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는 구연우에 대한 원옥화의 정직한 평가였다고 하겠다. 한편 구연우가 효산이 타는 새로운 가락에 욕심을 내자 “나

와 함께 오래 있으면 자연히 음이 오르듯이 오를 것이라”며 득음의 원리를 설파한 스승과 새 가락을 배우고 싶은 젊은 구연우는 사제 간의 갈등이 생겼고 마침내 상경하여 김윤덕 선생께 거문고 산조를 배웠다.

그는 1984년 초 서울로 초빙되어 효산의 가락을 가르치던 중 지병으로 그 해 4월 27일 부산 자택에서 49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불씨는 살아남아 신명숙의 재기로 새로운 불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효산 선생과 세분 제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않았음인지 오늘날 강태홍 산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효산의 산조가 전승되기까지의 배경과 예연(藝緣)이다. 비극이 감동을 낳는다지만 효산의 산조로 세상을 살다간 분들의 삶은 너무도 비극적이어서 감동 이전의 슬픔에 젖어 들게 한다. 스승만큼도 못 사신 세분의 운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효산의 산조를 신화로만 전승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가락이었기에 이분들이 운명대로 삶을 마쳤기에 효산의 산조가 다시 살아나 감동의 원천이 되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효산의 산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없는 가락이었음을 우리는 위에서 살펴 보았다. 세 분의 짧은 생애와 슬픈 운명에도 효산의 가락은 길이 전해져 국악의 거대한 뿌리가 되어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후학들과 효산의 제자들을 기리는 국악도들의 질기고 끈끈한 정신으로 효산과 그 제자들의 삶과 예술이 서서히 조명되기 시작했다고 볼 때 효산 신화의 전승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1989년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신명숙 선생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으면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존회는 2004년에 효산가야금연주단을 창단하여 창작음악 공연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단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여 현재 전국에 100여 명의 회원과 12명의 이사진, 보유자후보 김혜진, 전수조교 이문희, 오해임이 전승에 힘쓰고 있다.

**효산국악제**-1993년 강태홍 선생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전국 규모의 효산국악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연과 학술발표회를 병행함으로써 국악제의 새로운 틀을 제시

**공연**-100여 명의 정회원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정기발표회와 이수자 발표회, 전수생 발표회, 초청공연과 창작음악을 위한 효산가야금연주단 공연 개최

**전수교육**-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10명이 전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는 모두 23명이다. 특히 무형문화재 전수학교인 유락여중과 해강초등학교에서도 전수교육을 진행중.

**자료발간**-효산국악학 논문집을 제3집까지 발행,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악보, 자료집, 음반 등을 발간

**워크숍**-1998년부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전수교육 실시

**문화강좌**-시민들을 위한 가야금 강습에 적극 참여하여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 장기간 보급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동래문화원, 부산진문화원, 기장 문화예절학교에서 강습 진행 중

**수상**-1993 KBS국악대상 단체상, 제6회 동래구 애향대상, 제42회 부산문화대상 수상

※ 이번호로 강태홍의 음악과 삶은 끝을 맺습니다. 다음호부터는 2014년 탄생 450주년을 맞는 불멸의 거장 세익스피어 편이 이어집니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옥상(屋上)’은 지붕의 위, 특히 현대식 건축물에서 마당처럼 편평하게 만든 지붕 위를 이른다. 기둥과 보라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옥상의 마당’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옥상은 기능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푸른색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를 위한 공간으로, 빨래, 장독대 등의 생활 보조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 옥상을 잊고 있었다. 최근 옥상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해석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옥상의 활용을 권장하기도 한다.



the Box-옥상테라스(사진 윤준환)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건축은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된다. ‘철’, ‘유리’, ‘시멘트’의 새로운 건축 재료의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는 혁명적 구축 방법을 만들어 냈고, 건축의 공간적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근대건축의 선구자 중의 한사람인 ‘르 코르뷔지에’<sup>1)</sup>는 ‘도미노 시스템 (system Domino)’<sup>2)</sup>과 ‘수평으로 긴 창’, ‘자유로운 평면’, ‘필로티’<sup>3)</sup>, ‘자유로운 입면’ 그리고 ‘옥상정원’으로 정리되는 ‘근대건축 5원칙’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1929년 ‘빌라 사보아(Villa Savoye)’<sup>4)</sup>에 구현된 그의 이론은 근대건축의 폭발적 시발점이 되었고, 현재까지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

### 관계 맺기로써의 옥상

저층 주택과 4~5층 빌라의 원도심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보수동 후면도로에 위치한 ‘보수동 주민자치센터’(조서영 건축가, 서원건축사사무소)는 관공서가 흔히 갖는 경직된 분위기 보다는 자그마한 공원 같은 건축물이다. 대지 주변의 빼곡히 들어선 주택들은 작은 도로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7m 높이차이의 도로는 대지의 앞과 뒤를 흐르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축가는 앞과 뒤를 흐르는 도로를 ‘마당’과 ‘옥상 정원’으로 이어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1층의 마당에서 시작하여 2,3층의 마당을 만들고, ‘옥상 정원’으로 흐르며 단절된 앞과 뒤의 주민과 공간을 새로운 관계로 맺어 주고 있다. 뒷 도로에서 이어진 ‘옥상 정원’은 주민들의 새로운 마당으로 만들어 지며 마을의 정자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도심에서 잃어버렸던 마을의 정자는 옥상 정원으로 되살아나며 주민 서로간의 관계 맺기로 지역적 커뮤니티를 되살리고 있다. ‘보수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과 도시적 길의 관계 맺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다대포 아미산 끝자락의 ‘아미산 전망대’(손숙희 건축가, 수가건축사사무소)는 아미산과 낙동강이라는 자연환경과의 관계 맺기로써 ‘옥상’ 전망대를 두고 있다.

### 옥상의 상업적 활용

수영강 건너 센텀시티의 고층 건축물과 대항하듯 당당히 서 있는 ‘The BOX’(이병욱, 동의과학대학교+이원영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메종)는 건축주가 직접 경영하는 커피숍과 임대공간으로 구성된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박스의 간략한 형태성은 수영강 건너의 대규모 건축물과 싸워도 뒤지지 않을 힘을 주고 있다. 1층에는 커피숍과 주차장으로, 2층의 2개 박스는 커피숍과 임대공간으로, 그리고 3층의 1개 박스는 임대공간으로 그리고 옆의 비어진 박스는 ‘옥상 카페’로 엮갈리며 배치되어 있다. 대지 뒤 ‘배산’을 등지고 앞은 박스는 전면을 향한 2층과 3층의 프레임 속으로 수영강의 멋진 풍경을 맞아들이고 있고, 두 개의 좌우 박스 사이로 오르는 계단은 골목길을 연상시키며 ‘옥상’의 공간으로 안내하며 수영강의 전경을 선물한다. 소극적 옥상을 적극적으로 바꾼 ‘The BOX’의 옥상은 ‘S



아미산 전망대-옥상 전망대(사진 조명환)  
레지던스 엘가-베란다와 옥상(사진 강기표)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스페이스라움-옥상 전시마당(사진 윤준환)



보수동주민센터-옥상정원(사진 윤준환)

백화점'이나 'L백화점'의 거대한 상업적 옥상과 규모면에서 비교될 순 없지만 옥상의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힘을 잃지 않으며 '미스 반 데어 로에'<sup>5)</sup>가 이야기한 '적을 수록 많다(Less Is More)'는 명제와 와 닿는다.

### 문화공간으로써의 옥상

부산의 중심적 도심에는 수많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고 오늘도 들어서고 있다. 개발과 사업이라는 영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물들은 뻣뻣한 주거시설의 배치와 공동체 공간의 부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신욱과 노정민 건축가(건축사사무소 라움, 부부건축가이다)는 서면 도심 속 14층 주상복합건물의 버려질 뻔한 옥상을 자신의 설계사무실과 옥상 전시마당으로 되살리고 있다. '스페이스 라움'은 젊은 예술가의 전시 마당으로 열려 있으며, 격주로 토요일마다 열리는 '라움 세미나'와 함께 공간의 확장성도 볼 수 있다. 설치미술가 김경화의 시멘트로 만든 작품 '길고양이들'이 지난 4월까지 전시되었고, 안재욱 작가의 '절재·자유'전이 6월말까지 진행된다. 고층아파트에서 잃어 버렸던 마당과 옥상은 최근 완공된 화명동의 '레지던스 엘가'(김용남 건축가,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아파트의 소극적 발코니에서 벗어나 아래 세대의 옥상이 윗세대의 마당이 되는 구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마당을 주고 있다. 흔히 경사지 테라스 하우스에서 보곤 하지만 이를 고층의 건축물에서 해결하고 있는 건 한국의 열악한 사업적 배경과 아파트의 공간 문화에서 획기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막 입주가 시작 되었지만, '벌써!' 각 세대의 주인들은 화단을 가꾸기도 하고,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야외 파라솔을 갖다 놓기도 하며 '옥상'을 꾸미고 가꾸고 있었다.

'옥상'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학자인 전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는 그의 저서 '옥상의 공간사회학'에서 옥상은 존재와 부재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다. 도시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닿고 있지 않아 부재 하고 있지만, 분명 존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상은 사유(私有)와 공유(共有)의 공간이다. 대지라는 공간의 한정에 따른 사유공간은 마당이 되기도, 정원이 되기도, 설비의 기능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늘과 접하는 공간으로써의 옥상은 공유(共有)의 공간이며 마을의 마당이 되기도, 전시공간이 되기도,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이 되기도 한다. 옥상은 버려지는 공간이 아닌 '가꿈'의 대상으로, 나아가 '나눔'의 공간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1)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1887~1965)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건축가, 화가, 근대건축의 이론가이며, 1920년대에 시작되는 근대합리주의 건축의 국제적 양식 속에 서양건축의 기조인 고전주의 미학을 조화시켜, 철근콘크리트 건축의 새로운 전형을 개척하였다. 주요작품으로 '빌라 사보아', '롱상 성당' 등이 있다.

#### 2) 도미노 시스템 (system Domino)

집을 뜻하는 라틴어 '도무스(domus)'와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결합한 단어로써 최소한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들이 모서리를 지지하고 평면의 한쪽에서 각 층으로 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든 개방적 구조로써 현대 건축물의 대부분은 이 이론에 따라 지어 지고 있다.

#### 3) 필로티 (Piloti)

원래는 기둥, 열주와 같이 건축물을 받치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이층 이상의 건물에 있어 일층에 공간을 만들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을 가리키게 되었다. 주로 주차장, 개방된 옥외 공간, 조경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 4) 빌라 사보아 (Villa Savoye)

'르 코르뷔지에'(1887~1965년)가 설계한 주택으로 그의 '근대건축의 5원칙'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날렵한 기둥 위에 올라앉은 '빌라 사보아'는 하중을 부담하는 벽이 없으므로 입면과 평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로로 줄지어 낸 창문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광을 들일 수 있다. 경사로를 사용한 동선 체계는 평평한 '옥상'에서 정점을 이룬다.

#### 5)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

(Ludwig Mies van der Rohe, 1886~1969)

독일 출신의 20세기 대표 건축가로, 전통적인 고전주의 미학과 근대 산업이 제공하는 소재를 교묘하게 통합하였으며 특히 유리 와 철에 관심을 보였는데, 대표작으로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의 독일관',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드라이브의 아파트' 등이 있다.



# 분노하라

정말 속상하고 애가 타는 요즘이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게다.  
착한 분노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분노하라!





# 천재화가 이중섭의 자취가 살아있는 이중섭의

# 범인동 풍경



『

광복동(光復洞)에서 만난 이중섭(李仲燮)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東京)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욱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南浦洞)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李仲燮)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 뼘 한 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를 오지 않는다고,  
 - 김춘수 '내가 만난 이중섭'







**부산시 동구 범일동 1497번지.** 한국 근현대사에 빛나는 천재화가 이중섭은 한국전쟁 시절, 일본인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한국명 이남덕)와 아들 태성, 태현과 함께 당시 피란민촌인 범일동에 3년여간 머물렀다. 이중섭 가족이 살았던 '범일동 1497번지'는 그의 작품인 '범일동 풍경'이 탄생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부두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면서 피란민으로서 하루 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갔지만 범일동은 이중섭이 가족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자 일본으로 떠난 가족들을 절실히 그리워했던 곳이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부인 마사코 씨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온 가족이 함께 했던 이 때를 꼽는다고 한다. 60여 년이 지난 오늘, 이중섭이 머물렀던 범일동에 그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명소가 탄생했다. 바로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옛 보림극장 인근 보림주차장 옆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골목 담벼락에 조성된 이중섭 부조 흉상이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거리의 시작을 알린다.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거리에는 이중섭 갤러리와 이중섭 연대기, 거리미술관, 희망길 100계단, 판잣집 화실 포토존, 그리고 마사코 전망대 등이 들어서 있다.

이중섭 갤러리는 모두 3곳으로, 이중섭의 작품들과 범일동에 남긴 그의 자취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꾸며놓았다. 주택가 골목길을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거리 미술관은 '구상네 가족', '춤추는 가족', '봄의 아이들' 등 이중섭의 대표작들이 서로 마주보며 전시되어 있다. 거리미술관을 지나왔다면 이제 잠시 숨을 고를 때, 마사코 전망대로 이어지는 희망길 100계단이 방문객을 기다린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계단길이지만 계단 사이 사이 적어놓은, 가족들에게 부친 이중섭의 편지 글귀를 읽노라면 어느새 정상이 가까워진다.

'나의 소중한 귀중한 귀여운 사람이여, 잘 있었소? ... 가난 따위는 생각도 말아주오, 힘을 냅시다, 아고리도 사나이요 ...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소처럼 걸음을 옮기면서 안간힘을 다해 제작을 계속하고 있소 ... 태현 태성에게 뽀뽀를 하나씩 나누어 주구려! ...'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들을 그리는 이중섭의 절절한 마음이 묻어나온다.

희망길 100계단 중간에는 판잣집 화실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이 곳은 그 당시 이중섭이 지어 혼자 지낸 판잣집을 벽화로 그려낸 곳으로, 벤치를 설치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꾸며놓고 있다.

계단길 정상, 범일동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곳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딴 마사코 전망대가 서있다. 생활고로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던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던 이중섭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곳으로, 아내와 주고 받았던 편지글로 꾸며놓았다.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고리, 마음에 맺힌 긴 편지 두통 함께 보았습니다. 당신의 힘찬 애정을 전신에 느껴 남덕은 마냥 기뻐서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남덕' 부인인 마사코 씨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2층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1층에는 이중섭 갤러리와 주민사랑방이 들어서 있다.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은 지난 4월 13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92세의 마사코 여사의 영상편지가 깜짝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작은 섬마을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

“

수령 100년이 넘은,  
늠름한 은행나무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덕도 천가초등학교.  
한적한 섬마을 가득 채우는  
음악소리에 이끌려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저마다 악기를 손에 쥔 아이들이 빛어내는  
음악적 열기가 가득하다.  
이날은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이 있는 날.  
천가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는  
58명 전교생 모두가 오케스트라 단원이라  
창단 부터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아무래도 지역적 여건상 문화적으로 열악한 섬마을이라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음악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을 펼칠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 창단에는 이 학교 교장선생님인 임장숙 씨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9월, 공모 교장으로 천가초등학교와 인연을 맺은 임장숙 씨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공약으로 걸 만큼 부임 전부터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부임 후 우선 기초실력을 쌓기 위해 토요스쿨을 개설, 전교생이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를 배우면서 오케스트라 창단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서구청과 현대상선으로부터 예산과 악기를 지원받아 학생 1인 1악기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 2013년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지정되면서 그해 5월 9일 창단식을 개최할 수 있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최우선으로 학생들의 희망악기를 파악하고 학생 특성을 고려해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교사 이지남 씨는 창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힘든 과정에서도 열심히 따라준 제자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는 현재 1학년은 오케스트라 예비단원으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기초실력을 다지고, 2학년 부터 악기를 선택해 정식 단원으로 활동한다. 지휘를 맡고 있는 이지남 씨 뿐 아니라 실력있는 외부강사 8명이 아이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매주 먼 길을 달려 천가초등학교를 찾고 있다. 현재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파트별 연습, 그리고 수요일에는 합주연습을 갖고 있다. 정해진 연습시간이 아니라도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악기를 대여해주고 있다.

지난해 5월 9일 창단식 축하공연을 통해 서툰 실력이나마 진지한 무대를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던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그동안 강서구 갈대꽃축제, 학생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가덕도 스토리 콘서트, 정기연주회, 천가동 작은음악회 등 여러 무대에 서서 지역민의 큰 환호를 받았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악기를 처음 접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연주를 꿈꾸는 학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해가 바뀌어 학교를 졸업했지만 연주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어 덩달아 인근 덕문중학교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관악팀만 있던 덕문중학교에 천가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입학하면서 현악팀이 구성된 것. 예술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서로의 악기가 어우러져야 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게 되면서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학교 내 왕따,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83주년을 맞은 천가초등학교, 천가 은행나무 오케스트라는 그 오랜 전통만큼이나 앞으로 천가초등학교의 상징으로 남고 싶다.



천가초등학교 임장숙 교장

문의\_천가초등학교 972-1008





7.24 목 ~ 25 금 오전 10:30 | 오후 3: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프로그램

- 바이올린마을
- 피리마을
- 나팔마을
- 타악기마을
- 지휘자와의 만남
- 한마음 음악회

2014 종합편

악기가족이야기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지휘 이동신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기 뮤지컬 컴퍼니 **기리**





# Culture Life

##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0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 2014년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



미국 Bal Malhada Dance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The 1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약칭 BIDF) 2014년 축제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가 5월 3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 열 돌을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는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뉴칼레도니아,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체코, 중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12개국 30여 개 무용단이 참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을 비롯해 스포츠댄스, 플라멩고, 탱고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칼레도니아 무용단, 체코 발레단이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 무용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칼레도니아 무용단은 원주민들의 토속춤을 현대적인 움직임과 접목한 두 개의 작품을, 프라하를 대표하는 체코의 프라하 체임버발레단은 발레단이 자랑하는 컨템포러리 발레 'Beat'를 폐막 무대에서 선보인다. 그 외 이탈리아 오니인무용단은 공연예술의 메카인 뉴욕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 중 하나인 마리아 콩무용단은 수십 차례의 해외 공연 투어에서 호평을 받은 컴퍼니를 대표하는 'Backstage'와 'Open Source'를 부산에서 공연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춤인 플라멩고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탱고도 이번 부산국제무용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탱고 SOFIA & HEBER는 2013년 아르헨티나 탱고월드컵 스테이지탱고 토너먼트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젊고 새로운 퍼포먼스팀이다. 이번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OLD & NEW TANGO'를 주제로 공연한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La Cumparsita(라 콤파르시따)'와 영화 OST를 위해 최근 발표된 퓨전 탱고곡 'EL TANGO DE RO-XANNE(로산느의 탱고)'에 맞춘 춤까지 정통탱고와 모던탱고의 느낌을 한 무대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다.

Sahnghai Ballet Theater는 상하이 발레단과 함께 상하이의 발레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번에 초청된 Yuanyuan Zhang과 Anpu Yuan는 2014년 사우스아프리카 국제발레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 차세대 월드 발레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무용수들로 고전발레 작품인 '그랑파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발레작품인 '희생'을 통해 빼어난 기량과 풍부한 감정표현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국 Bal Malhada Dance Comany는 한국의 현대무용가 김성용의 레지던시 신작 'For'를 부산국제무용제를 통해 세계 초연하며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T.H.E Dance Company는 안무가 김재덕이 지역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Hey Man!'으로 부산 관객들과 만난다. 프랑스 무용단 Danse Alleretour는 Jesús Hidalgo의 안무로 부산에 거주하는 5명의 무용수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 작품을 이번 무대에서 초연한다.

일 시 | 5월 30일(금)-6월 3일(화)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국제회의장 중앙광장  
입장료 | 초청공연 및 폐막공연 무료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 Preview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III



지휘\_김철호

우수단원들의 기량 개발과 새로운 협주곡의 정착을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제17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세 번째 무대가 6월 26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기존의 우수 창작곡 외에도 새롭게 편곡된 창작곡들을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거문고, 아쟁, 대금, 판소리, 타악 등 다양한 악기들의 독자적인 음색과 협연자들의 음악적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무대이다.

첫 무대는 거문고 주자 전현진이 연주하는 정대석 곡 거문고 협주곡 '무영탑'으로 연다. 부산초연으로 연주되는 '무영탑'은 신라 경덕왕 시절 불국사 석가탑의 조영(造營)을 둘러싼 백제의 석공 아사달의 예술적인 집착과 이면에 얽힌 설화를 소재로 작곡된 곡으로, 특히 거문고의 악기 구조에 따른 장점을 살려 열여섯 궤를 타악기적인 역할과 그 외 효과음을 다양한 주법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아쟁 주자 홍영혜가 연주하는 윤운석류 아쟁산조 협주곡. 국악기 중에서도 낮은 음역을 담당하는 아쟁은 정악에서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줄기처럼 가라앉은 편안함이 느껴지지만, 민속악에서는 때론 간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한의 절규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율 진행 속에서 남도음악 특유의 끈끈한 체취가 배어나는 윤운석류 아쟁산조를 들려준다.

대금주자 강영진은 한주환 선생의 원가락에 서용석의 음악성을 더한 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을 들려준다. 은은하면서도 날카로운 음색이 특징인 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은 다양한 조로 구성되어 그 어떤 산조보다도 극적인 표현력과 시김새가 탁월한데, 이번 무대에서는 협주곡 형식으로 편곡, 관현악과 어우러지는 풍성한 울림의 대금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표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

는 백성기 곡 창작판소리 '바람아! 완산 칠봉 바람아'를 들려준다. '바람아! 완산 칠봉 바람아'는 백제의 찬란했던 자랑스런 문화 중심지인 천년고장 전주의 완산 칠봉을 중심으로 명승고적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한 창작으로, 모두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무대는 타악주자 송강수, 최오성, 박재현, 이경희가 들려주는 풍물과 관현악 '상쇠'. 원곡은 풍물놀이 협연곡으로, 호남지역의 좌, 우도 농악 가락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변형리듬을 혼용했다. 부정놀이 장단과 칠채, 육채, 오방진 장단을 곳곳에 삽입시켜서 풀고 죄는 맛을 가미하여 흥과 신명을 불러 일으키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모두 북 협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일 시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1회 정기연주회 ‘명작, 러시아 I’



피아노\_에카테리나 메체티나

5월 13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함께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저력을 보여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러시아의 거장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코프스키를 만나는 이번 무대는 러시아의 가장 명망 높은 상 가운데 하나인 ‘트라이엄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예카테리나 메체티나(Ekaterina Mechetina)를 초청,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연주를 시작, 젊은 나이에 비해 풍부한 경력을 지닌 예카테리나 메체티나는 10살에 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모차르트상과 함께 부상으로 피아노를 받았으며, 6년 뒤 가장 어려운 콩쿠르 중 하나인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출전하여, 당시 이탈리아의 한 평론가로부터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정상에 위치한 피아니스트’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어 예카테리나 메체티나는 2002년 베르첼리, 2003년 피네롤로, 2004년 신시내티의 트라이엄프 퍼포먼스에서 우승하는 등 수많은 공연과 투어,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바쁜 행보를 펼쳐왔다. 예카테리나 메체티나는 특히 보다 성숙되고 노련한 연주로 최근 FUGA LIBERA 레이블과 함께 ‘라흐마니노프’ 음반을 발매하고, 새로운 작곡가들의 풍부한 레퍼토리와 정제되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호평을 이어왔다. 미국 보스턴 연주 후 예카테리나 메체티나는 “정상급 러시아 피아니스트 예카테리나 메체티나, 미국 데뷔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다”라는 보스턴 글로브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이러한 성공은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카테리나 메체티나가 들려주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라흐마니노프 절정에 이르는 기교와 낭만적 멜로디로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으로 개개의 아

름다운 선율과 전체에 흐르는 달콤한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러시아적 정서가 피아노 기교의 묘미와 더해져 곡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1909년 11월 28일, 발터 담로슈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연주에서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연주로 초연되었고 평생토록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피아니스트 요제프 호프만에게 헌정되었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에 이은 또 하나의 명작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교향곡 제4번 이후 10년만인 1888년에 완성된 이 곡은 약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걸쳐 작곡되었지만, 그가 오랜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후로로스코예라는 마을에 정착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이 교향곡 제5번에는 그가 평소에 존경해 오던 모차르트 음악을 향한 경향이 짙게 깔려 있는 한편,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우수에 젖은 아름다운 선율과 동구적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초연은 1888년 11월 17일, 페



# Preview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名作, 러시아 시리즈 출발

5월 13일 열린 제500회 정기연주회에서 장엄하고 웅장한 선율로 부산음악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러시아의 명작들을 엄선한 '名作, 러시아'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에 대한 지역 음악팬들의 깊은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수석 지휘자 리 신차오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이번 무대는 화려한 색채감과 섬세한 감각,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리듬 등 러시아 음악 특유의 매력을 제501회와 제502회 두 차례에 걸쳐 선사한다.

애잔하고 감상적인 분위기로 한국인의 정서에 호소하는 러시아 음악은 서양의 형식과 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오랜 예술적 전통과 고유의 개성을 가미함으로써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음악으로서 세계 음악계에 당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제501회 '名作, 러시아 I'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음악을, 유베르트 수당이 지휘하는 제502회 '名作, 러시아 II'에서는 라흐마니노프, 무소르그스키, 린스키-코르사코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I 편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은 2012년 10월 마크 고렌슈타인의 지휘로, II 편의 린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는 2007년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연주된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名作, 러시아' 시리즈에 음악애호가들은 벌써부터 설렌다.

테르부르크에서 차이코프스키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현란하고도 격정적인 교향곡 제4번에 비해 비통한 기분이 곡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지만 그 슬픔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있다. 교향곡의 악장에 왈츠를 등장시킨 것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교향곡 제4번은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교향곡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다. 연주시간은 약 45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  
**명작, 러시아II**

7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 지휘/유베르트 유당
- 피아노/예프게니 이조토프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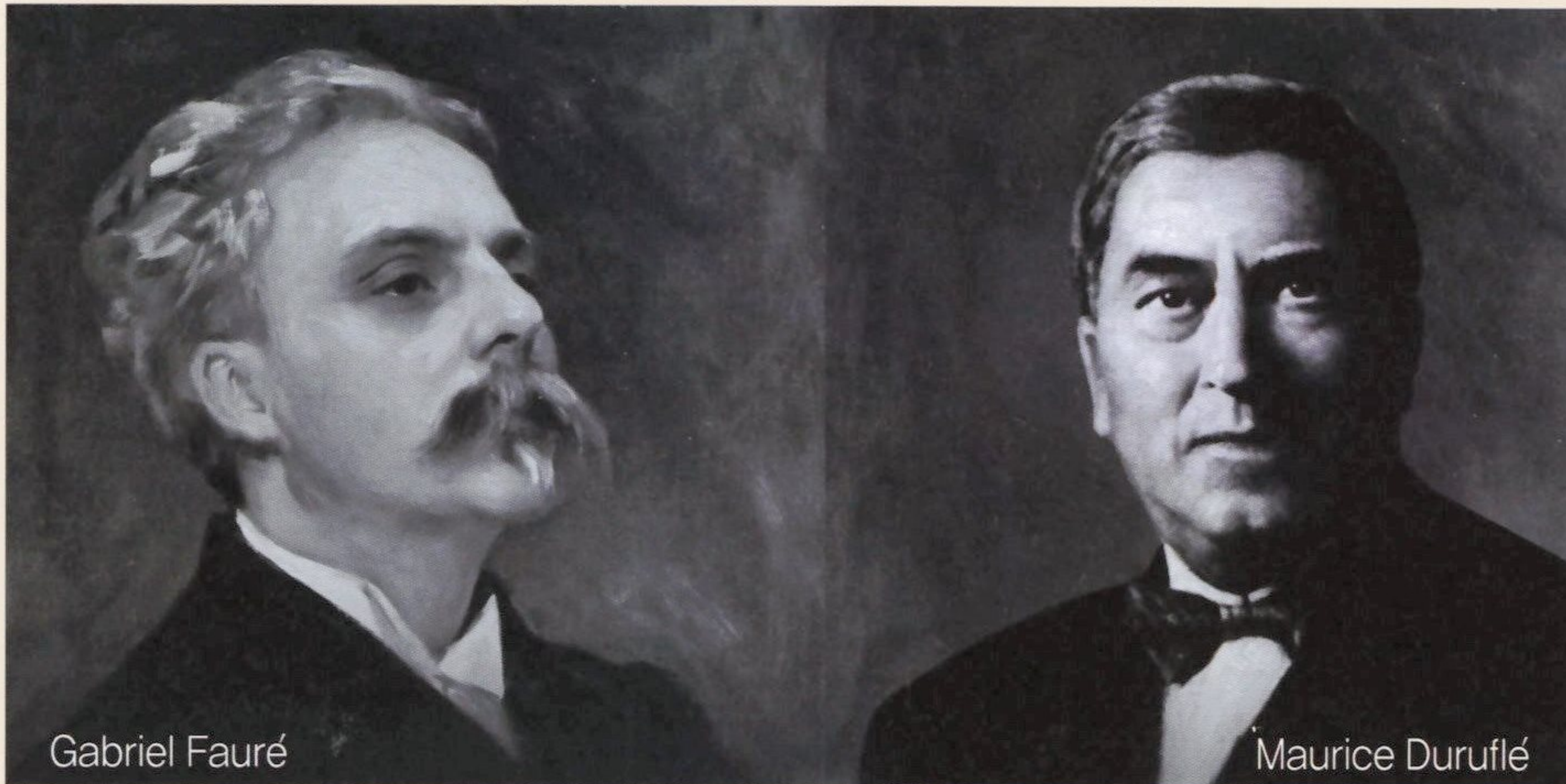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지휘 리 신차오



##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M. Duruflé & G. Faure '두 개의 레퀴엠(REQUIEM)'



Gabriel Fauré

Maurice Duruflé



지휘 오세종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2014년 6월 가브리엘 포레와 모리스 뒤뤼플레의 '레퀴엠'으로 영혼의 울림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오세종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올해 '레퀴엠'은 지난 4월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레퀴엠 본연의 의의를 살리며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흔히 '진혼곡'으로 불리는 '레퀴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쓰였던 곡이다. J. 브람스는 자신의 레퀴엠을 통해 '살아 있는 자를 위한 레퀴엠'을 쓰기도 했다. 두 프랑스 작곡가 G. 포레(Requiem OP.48)와 M. 뒤뤼플레(Requiem OP.9)의 레퀴엠은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두 편 모두 이상적인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부모와 아버지께 헌정되어진 작품으로 다른 레퀴엠에 비해 보다 인간적인 감성을 가진 작품들이다. 특히 M. 뒤뤼플레의 레퀴엠은 이번 무대에서 오르간과 하프, 타악기의 형식(Version)으로 공연된다.

G. 포레의 레퀴엠은 단선율의 순수함에 영향을 받았으며 지옥불과 천벌보다 상냥한 위로의 감정을 담고 있는 곡으로 다른 음악학자는 '죽음의 자장가' 혹은 '온화한 레퀴엠'이라고도 부른다. 종교보다 인간적인 감정에 충실하려 했던 포레의 레퀴엠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세기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 뒤뤼플레가 1947년 작곡한 '레퀴엠'은 자신의 부친에게 헌정되었다. 그의 레퀴엠은 전체적으로 애도의 느낌이 흐른다는 점과 '심판의 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구 선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포레의 레퀴엠과 유사하다. 뒤뤼플레는 서정적 흐름에 있어 드뷔시적인 색채감을 소유하였고 이것은 그 기초를 이루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그에 상응하는 성구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협 해외파견콩쿠르, 미국 내셔널오페라협회 콩쿠르, 팜비치 오페라, 달라스 오페라 콩쿠르 우승, 메트로폴리탄 내셔널 파이널리스트, 엔리코 카루소, 리더크란츠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고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오페라, 콘서트, 오라토리오 솔로이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리톤 염경묵, 헤르만 슈뢰터 국제오르간콩쿠르에서 우승한 오르가니스트 홍충식, 메조소프라노 정은영, 소프라노 김한별이 특별출연한다.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부산 ITU 전권회의 성공개최 D-100 행사기념

오페라 갈라 콘서트

##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



클래식은 어렵다, 오페라는 어렵다는 초보들을 위한 친절한 클래식 음악회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가 7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어렵다고 느끼는 오페라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휘자 금난새가 재미있고 친절한 작품 해설로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7월과 11월에 차례로 선보인다.

지휘와 해설을 맡은 금난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인기 프로그램 '클래식은 내친구'로 부산시민들에게는 친숙한 음악계의 스타 지휘자이다. 서울대 졸업 후 베를린 음대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하며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한 금난새는 이후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며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작곡가 베르디는 1800년대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이탈리아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북이탈리아의 북세토 근처의 작은 마을 레론콜레에서 선술집을 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는 청년시절까지 파란과 고생이 많았지만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위업을 완성했다. 26곡의 오페라 대작과 명작을 남긴 베르디는 19세기 전반의 벨칸토(belcanto) 오페라 시대의 유일한 개성 넘치는 작곡가로 이름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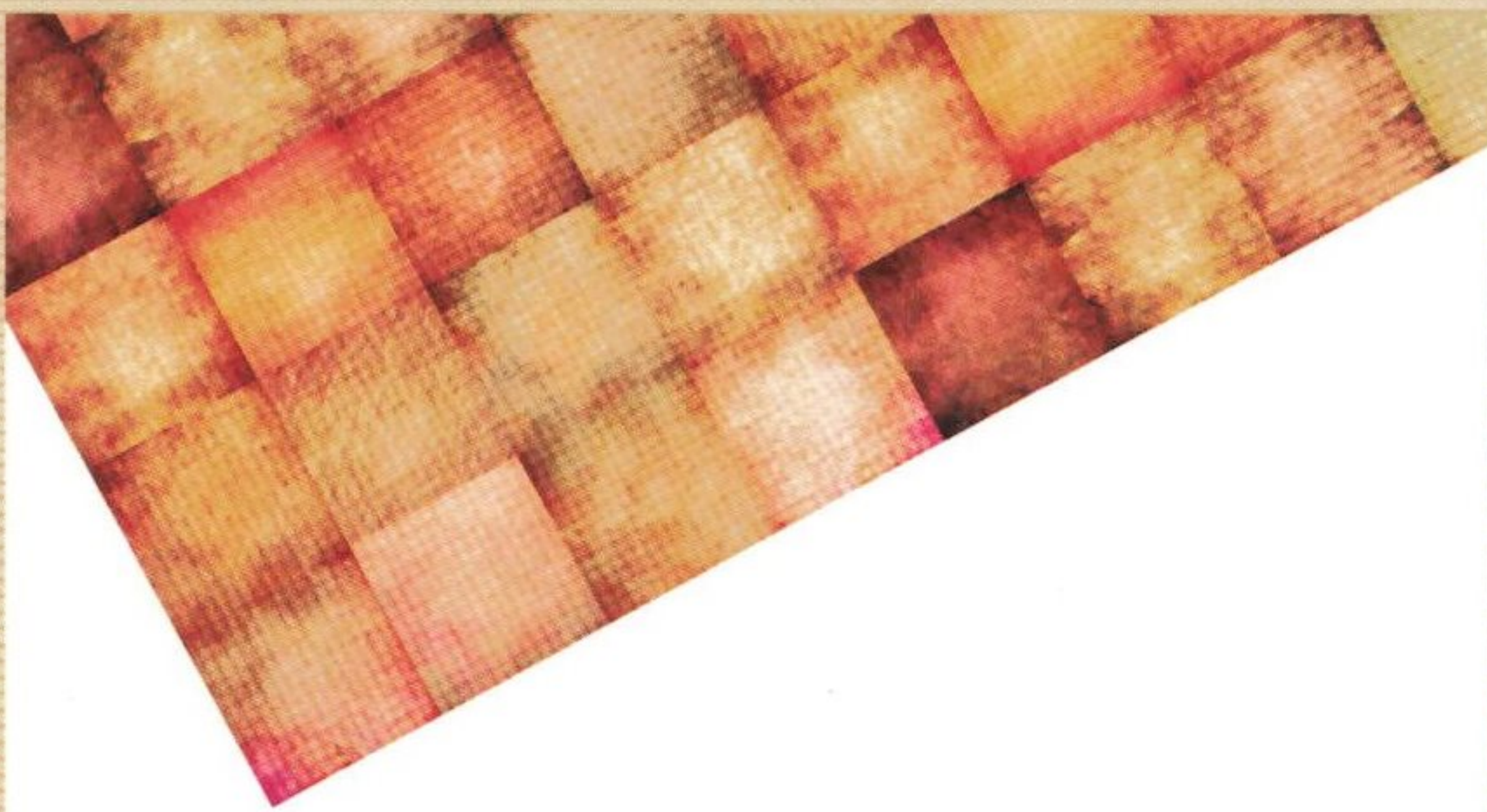
베르디의 대표작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에 빛나는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인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것으로 알렉산더 뒤마의 아들이 쓴 '춘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번 오페라여행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이재욱, 바리톤 박정섭 등 유명 성악가들과 함께 작품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주요 연주곡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의 1, 3막과 비제, 구노, 로시니의 오페라 중 유명 아리아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는 해설로 오페라의 세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음악평론가 박진홍

1962년 창단 이래, 부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의 향연을 선사해 주었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500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은 부산시향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일찍부터 술렁거렸다.

이날 부산시향은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를 변형하였다. 2nd 바이올린과 첼로, 더블 베이스와 타악기군이 자리를 바꾸어 앉았고 트럼펫, 트롬본, 튜바가 왼쪽에 자리하여 오른쪽에 자리한 호른과 균형을



맞추었다. 그로 인해 각 악기군의 음색적 특징을 보다 잘 살려 내었고, 전체적인 볼륨이 증대되었으며 중저음이 전체 소리를 감싸 안아 부드러움이 강조되었다.

악기 배치의 변화는 첫 곡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최근 필자가 찾았던 부산시향의 연주 중 가장 또렷하고 웅장하며 강렬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다. 지휘자 리 신차오가 부산시향이 정기연주 500회의 위업을 달성한 것을 축하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구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려하고 경쾌한 금관 악기들의 팡파르와 타악기의 역동성, 그리고 현악기의 리드미컬한 섬세함이 더해져 이날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이어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번>을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연주했다.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로 알고 있기에 기대가 컸다. 부산시향의 피아니시모로부터 연주가 시작되고 그 전주를 받아서 그녀의 스트라디바리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보잉의 탄력과 민첩성, 굳더더기 없는 움직임, 유연한 완급 조절, 완벽하게 구현되는 다이내믹이 명작의 가치를 정확히 전해 주었다. 마치 하나하나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음표들처럼 관객들의 몸과 마음도 모두 흩어져 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30여분의 연주가 끝나고 숨죽였던 긴장감이 엄청난 환호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다. 이어서 신지수는 객석의 찬사에 답하며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과 <베니스의 축제 변주곡>으로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다. 지칠 만도 한 열정적인 연주 뒤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최고의 무대였다.

후반부에는 북유럽의 경이로운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2번>이 연주되었다. 500회 연주를 통해 떠오르는 태양의 새로움과 기대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그는 더욱 정교해진 다이내믹한 표현과 악기 간 소통을 이끌어 내어 이 작품의 진가를 객석으로 전해 주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4악장의 피날레가 격정적인 카리스마를 뽐으며 끝이 났다. 여러 번의 커튼콜 후,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다시 무대에 선 리 신차오는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들고 있었다. 앵콜곡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해 연주하겠노라는 말과 함께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숙연한 분위기로 연주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는 이날 연주의 감동을 통해 남아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화려한 피날레 보다 더 큰 감동으로 치유의 힘을 전하는 연주였다고 생각된다.

지난 세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발전해 온 부산시향이다. 얼마나 많은 난관을 뚫고 지금에 이르렀을까. 그렇게 50여년을 꾸준히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감동과 치유의 힘을 전해 주었기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고, 더 오랜 세월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 주는 부산시향으로 굳건히 서기를 두 손 모아 바라본다.



# Review



## 명화를 만나다 한국근현대회화100선

2014.4.8~7.6, 부산시립미술관

서양화가 박미경



도록이나 미술교과서에서 봄직한 우리나라의 근현대회화 작품들을 최상의 조명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감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서양문물을 받아 들여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보기란 쉽지 않다.

이번 한국근현대회화 100선 부산전시에는 1920년~1970년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57명의 작품 100점(수묵채색화 30점, 유화 70점)이 출품되었다. 서울전시에는 출품되지 못한 박수근의 '두 여인', '우물가', 장욱진의 '물고기', 김인승의 '봄의 가락', 김영주의 '인간들의 계절', 도상봉의 '명륜당', 김환기의 '십 만개의 점' 등 7점을 부산전시에서는 만나 볼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을 시작으로 일본 재야전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 이중섭의 '황소'는 작은 캔버스에서 튀어 나올 듯 휘몰아치는 붓 터치와 질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박수근의 유명한 '빨래터'는 엽서 세장을 이어 붙인 크기인 3호와 40호, 20호가 있다. 빨래터의 인물 중 맨 왼쪽의 반쯤 일어난 자세의 인물로 인해 전체 화면에 활기를 주고 있으며 파스텔 같은 부드러운 색감과 화강석 같은 질감 표현이 시선을 머물게 한다. 박수근의 작품 속 인물과 풍경들은 옛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동심과 같은 장욱진의 '가로수'는 심각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어 웃음 짓게 하고 김환기의 '십 만개의 점'은 비구상의 정점을 찍는 대작이라 여겨졌다. 김환기에 비해 일찍 파리로 간 남관은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추상표현주의 영향으로 색채와 구성이 서구 현대미술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다. 초현실주의적이고 장식적인 조형세계를 보여주는 천경자는 화려한 색채의 색들로 색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한국 근대의 기점 설정엔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경성 교수는 "한국의 전통미술과 근대미술을 외형적으로 구분 짓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서구화, 즉 작품 제작의 논리화를 들 수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한국근대미술의 연대 설정을 개화기를 기점으로 근대 1기(개화기 1910년), 근대 2기(1910년~1945년), 현대 1기(1945년~1960년)로 나눈다.

근현대 시기 한국 미술가들이 성취한 결과는 매우 크다. 20세기 초부터 크고 작은 세계 전쟁과 일제 식민지, 서구근대체제의 도입, 한국 전쟁과 분단 등 정치사회적 혼란과 다사다난한 역사의 현장을 체험, 극복하였다. 더욱이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술에 대한 무지와 미술가들에 대한 무시, 경제적 어려움은 또 하나의 시련이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시대정신에 입각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으로 미술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들의 예술혼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써 작가, 소장가, 소장기관이 작품을 수집, 보관한 노력의 덕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20세기의 정신과 삶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 2014년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

일 시 | 5월 30일(금)-6월 3일(화)

대극장, 중극장, 국제회의장

입장료 | 초청공연 및 폐막공연 무료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1만원

문의 |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The 1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약칭 BIDF) 2014년 축제 '10년의 몸짓, 날개를 달다'.

올해 열 돌을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는 뉴칼레

도니아,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체코, 중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국내단체 등 12개국 30여 개 무용단이 참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플라멩고, 탱고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 내한공연을 펼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칼레도니아 무용단, 체코 발레단의 무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표

하는 무용단인 Cape무용단은 라벨의 '볼레로'에 맞춰 10명 무용수들이 아프리카 무용수들 특유의 유연성과 정통 발레 테크닉, 다채로운 현대무용 테크닉과 접목된 군무와 현대발레 작품을 선사한다.

뉴칼레도니아무용단은 원주민들의 토속춤을 현대적인 움직임과 접목한 두 개의 작품을, 체코 국립발레단과 함께 수도 프라하를 대표하는 체코의 프라하 체임버발레단은 발레단이 사랑하는 두 개의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을 야외공연과 폐막공연 무대에서 각각 선보인다.

**일정**

- 5.30(금) 개막식전 공연 오후 6:30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지신밧기>
- 5.30(금) 개막식 오후 7:00
- 5.30(금) 공식초청공연 오후 7:30 중극장
- 5.31(토) 공식초청공연 오후 7:30 중극장
- 6.1(일) BIDF 국제포럼 오후 4:00 국제회의장
- 6.1(일) 공식초청공연 오후 7:30 대극장
- 6.2(월)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오후 7:00 중극장
- 6.3(화) 폐막식 오후 7:00 중극장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제10회부산국제무용제는 축소되어,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5.30-6.1까지 해변에서 이뤄지는 야외무대는 부산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지무스 오페라단 기획공연 행복콘서트 '평화와 전진'

일 시 | 6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아지무스 오페라단 070-7522-4649

세월호 침몰사고의 국민적인 슬픔을 위로하고 용기를 전하기 위해 '평화와 전진'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이 낳은 최고의 여성지휘자 김봉미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 명쾌한 해설과 함께 펼쳐지는 유나이티드코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클래식에서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Pace, pace mio dio'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최성환/아리랑 판타지 등 수곡

출연/테너 전병호, 장진규, 이승우, 소프라노 장은영, 변향숙, 강민성, 바리톤 허병욱, 베이스 최현욱



### 제13회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은순 010-3580-8661

2002년 창단된 아마추어 색소폰 오케스트라 아마빌레색소폰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40여명의 색소폰 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지역주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아마빌레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라는 뜻의 이태리 음악용어이다.

**프로그램**

박병학(편곡)/동해행진곡, 조용필 판타지아

김하균(편곡)/오페라의 유령, Sing

매구놀이마당 사물놀이(영남판굿) 등

- 지휘/이수영(상임지휘자)
- 특별출연/강신일(매구놀이마당 대표)
- 사회/정봉경(부산은행 방송국 아나운서)



### 김은정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6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예고 재학 중 독일로 유학, 라이프찌히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김은정의 귀국 독주회.

김희정은 2013년 The Bradshaw & Buono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입상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작품 58 다장조

라벨/쿠프랭의 무덤

슈만/Symphoische Etüden 작품 13

###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Dream Performance 2014

일 시 | 6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627-7992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순수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댄스, 재즈, 힙합, 비보잉까지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들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시련(출연/서민규)

Firestarter

창조(출연/민윤정)

Who os Diva(출연/김수연, 이소은, 조진희)

So Brraty(출연/이수희, 이정민, 백소연)

소고춤(출연/이상희, 서민규 외 11명)

Sweet Dreams(출연/정세희) 등





# Program Guide >>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펼치는  
음악으로 여는 희망의 세상

## 제2회 이유태 독창회 '희희낙락'

일 시 | 6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미국 보스턴대학 경영학박사 출신인 부경대학교 이유태교수의 제2회 독창회 '희희낙락'.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1993년 귀국, 부경대학교에서 재무관리, 투자론 등을 가르치는 정통파 경영학과 교수인 이유태는 음악

과 전혀 관계없이 금융경영학자로서의 길을 걷다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김경출의 지원으로 성악에 발을 들여 놓았다.

### |프로그램|

가곡/청산에 살리라, 떠나가는 배, 눈, 산아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제2막 투우사의 노래 등 수곡  
• 피아노/김경출  
• 특별출연/신라대 'S. String Ensemble' (지도/이라희)

## 6월에 그려보는 내 피아노 스케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일 시 | 6월 6일 금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희 010-4552-4106

신라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가지꿈 음악교육연구소 소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학점은 행재 외래교수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희를 비롯해 한가지꿈 음악교육연구소 피아노교수법 연구회 회원, 한가지꿈 음악교육연구소 지도자 과정 이수자들이 들려주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K-오페라 조직위 예술감독, 21세기 오페라단장. 대구 총회신학대학 교회음악대학원 교수로 있는 테너 손정희가 특별출연한다.

### |프로그램|

바흐/Dances Of The Young Republic 중 '시 실리안느'(2 Pianos 8 hands)  
모차르트/교향곡 제40번 사단조 K.550(2 Pianos 8 hands)  
헨델/Two Handel Minuets(2 Pianos 8 hands)  
시벨리우스/핀란드어 작품26(2 Pianos 8 hands)  
구노/왈츠(2 Pianos 8 hands)  
가곡/산노을, 그리운 마음, 내맘의 강물 등 수곡  
• 연주/김정희, 손정희, 정민주, 송혜란, 손경진, 박주연, 이승아, 이승윤, 고유정 외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627-8088, 010-4842-6688

사단법인 예술전문단체 인코리안오케스트라의 부속 단체로 2001년 3월 창단하여 지금까지 정기연주회 및 축하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오케스트라는 연 2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왔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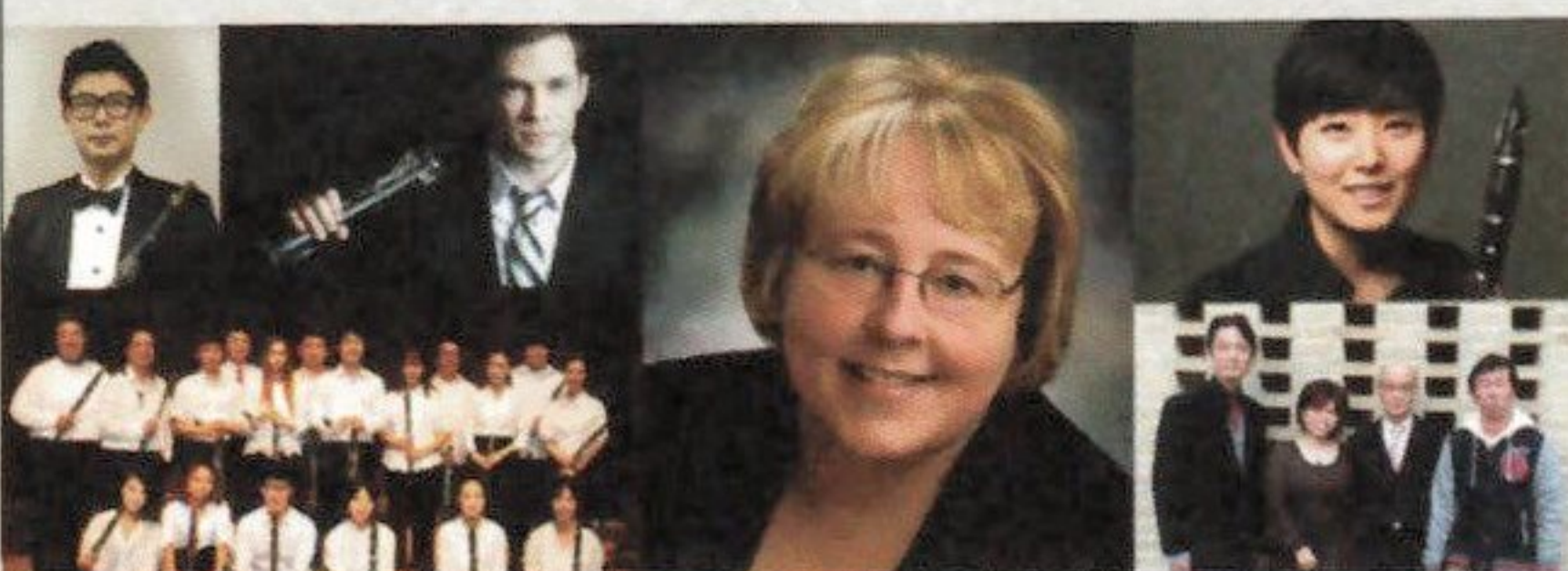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드볼작/바이올린협주곡  
베토벤/교향곡 제3번 '영웅'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음악과 교수)  
• 협연/정재원(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악장)



## 부산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일 시 | 6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070-4178-7238

한국과 미국, 일본의 클라리넷 주자들이 들려주는 부산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콰르텟, 콰텟과 클라리넷 콰이어의 다양한 편성의 클라리넷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은 부산 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와 일본, 미국의 클라리넷 주자들이 펼치는 연주회, 충남대학교, 동의대학교에서 열리는 클라리넷 교류행사, 클라리넷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 작곡가들의 다양한 장르 음악을 소개한다. 특히, Kyle Rowan /In twilight moments, stillness, dancing은 한국 초연곡으로 클라리넷 앙상블의 현대 작곡법으로 작곡되었고 마지막 곡인 Deux Danses for clarinet octet와 Paquito for 8 Clarinets은 라틴풍의 정렬적인 음악을 선사한다.



##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10주년 기념 음악회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017-544-5451  
<http://cafe.daum.net/Stroke>

클래식 음악의 품격과 현대 타악 앙상블의 독창적인 장르, 분위기를 살려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불거리를 선사해 온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의 창단 10주년 기념 무대. 지난 10년간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에 보내준 시민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전문적인 타악 음악의 특성이 부각되는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타악앙상블이 보여줄 수 있는 판타지한 공연으로 타악기의 매력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모음곡  
데이비드 만치니/솔로드럼과 타악기앙상블을 위한 모음곡 등 수곡  
• 특별출연/주니어 타악기 앙상블



## UKYO(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제9회 정기연주회 밝은 미래, 나눔을 함께하는 음악회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UKYO 010-5540-1538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010년 8월에 창단된 순수 민간 청소년 자선 단체 오케스트라인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이하 UKYO)의 제9회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지역에 재학중인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UKYO는 공연의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어린 환자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 |프로그램|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치마로사/두 대의 플루트 협주곡  
슈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등 수곡  
• 지휘/전영수(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플루트/유하은, 이하나





프로그램  
가이드

**글로리콰이어 제23회 정기연주회**  
**내 영혼 바람되어**

일 시 | 6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글로리콰이어 010-8544-4702  
010-4031-7053

...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리는 가곡과 대중가요, 동요 및 외국가곡 등으로 꾸미는 글로리콰이어 제 23회 정기연주회. 레이비앙상블의 멋진 스트링연주와 글로리콰이어가 후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드림합창단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여러 장르의 곡과 다채로운 무대를 감상함으로 슬픔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을 달래는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공연 수익금은 전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 지휘/이정철

**김소현 해금 독주회 '풍류와 산조'**

일 시 | 6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소현 010-4642-9310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부산해금야경 연주단 해아연, 퓨전국악그룹 BE 동인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금주자 김소현 해금독주회.

해금, 대금, 장구의 편성으로 구성한 '취타풍류'와 김영재류 해금산조 한 바탕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손한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재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임동혁·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

대한민국을 흔드는 젊은 BIG3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과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특별무대.

우리 음악계에서 최고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의 연주자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과 예술감독 스테판 블라더와 함께 전통 비엔나 사운드의 진수를 들려주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이번 무대는 세기의 천재 모차르트와 젊은 거장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대로 관

심이 높다.

예술감독 스테판 블라더와 함께 내한하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특히 최고의 모차르트 연주팀으로 정통 모차르트 사운드를 구현하며 비엔나를 대표해 온 체임버 오케스트라이다.

이번 무대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과 클라라 주미 강은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함께 협연하고 임동혁은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연주한다.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스테판 블라더가 자랑하는 대표 레퍼토리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로 최고의 사운드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All Mozart  
디베르티멘토 D장조, K.136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320d)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466  
교향곡 41번 C장조 '주피터' K.551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  
**제 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 010-3304-5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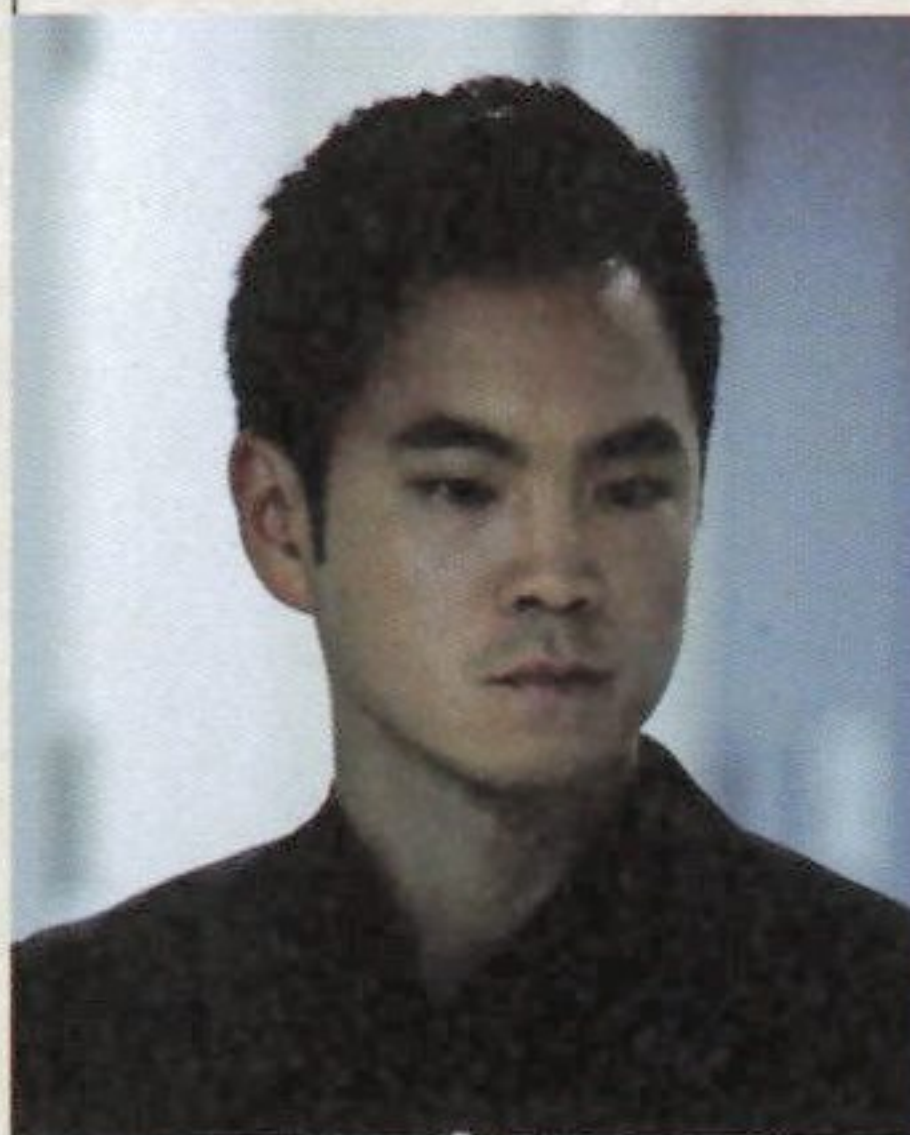
...

부산에서 교육과 연주활동을 하는 동의대학교 음악과 졸업생, 대학원생들로 결성된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의 제10회 정기연주회.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는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정통 피아노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음악을 연주, 발표하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아울러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그램|**

포레/테마와 변주 올림다단조 작품 73  
스크리아빈/소나타 제4번 작품 30  
글린카/알라비에프 로망스 '나이팅게일' 변주곡  
멘델스존/안단테와 알레그로 브릴리언트 작품 92(1 Piano 4Hands)  
베버/마탄의 사수(Piano 6Hands)  
슈베르트/피아노5중주 '송어' 작품 114(2Piano 8Hands) 등 수곡





# Program Guide >>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1회 정기연주회 명작, 러시아!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5월 13일 제500회 정기연주회로 관록의 무대를 보여준 부산시립교향악단 6월의 무대, 러시아의 거장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명작, 러시아'.

19세기와 20세기 초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코프스키를 만나는 이번 무대는 러시아의 가장 명망 높은 상가운데 하나인 '트라이엠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예카테리나 메체티나(Ekaterina Mechetina)가 협연자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남을 갖는다.

예카테리나 메체티나는 10살에 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모차르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베르첼리, 피네롤로, 신시내티의 트라이엠프 퍼포먼스에서 우승하는 등 수많은 공연과 투어,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 왔다.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3번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 지휘/리 신차오
- 피아노/예카테리나 메체티나

## 제5회 피아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피아스트라 010-9470-0094

2010년 동의대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피아스트라의 제5회 정기연주회. Piano와 Orchestra의 합성어로, 피아니스틱한 맛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겸비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뜻을 모았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듀오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K.381  
 브람스/헝가리무곡

비제/카르멘 서곡

슈베르트/판타지 D.940 등 수곡

- 연주/임주아, 노지영, 신지은, 오주희, 반지숙, 황찬욱, 염지선, 이혜현, 남성은, 이지현, 윤령재, 유정진, 손정민, 최윤희, 정나은, 허민지, 김미현, 김민자, 심정연



##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밥 칠콧의 'REQUIEM, 레퀴엠'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010-5663-3347



5월 미국 메모리얼데이에 맞춰 세계적인 작곡가 밥 칠콧 초청으로 뉴욕 링컨센터 엘리스 툴리 홀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의 합창단과 함께 'Requiem'을 공연한 부산하모니합창단이 5월 연주회의 감동을 부산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밥 칠콧의 레퀴엠은 죽음을 슬픔으로 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하기 위해 밝고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프로그램

합창 1. Bob Chilcott 'Requiem'

합창 2. 뉴욕에 울려 퍼진 하모니/산유화, 산촌, 오직 주께만 영광, 즐거운 소리로 주께, 목소리를 위한 터키행진곡, 엘리제를 위하여

- 지휘/김강규 • 반주/윤지영 • 트레이너/김태우
- 객원/오르간 이순재, 테너 이재원

## 2014년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꼭꼭 숨어라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류지원 010-3864-9889



6·25 전란 중 부산에서 시작한 KBS어린이합창단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은 그동안 '신나는 날, 즐거운 날' 방송출연을 비롯해 불우청소년 돕기 자선음악회, 금년새 오케스트라 협연, 소프라노 조수미 협연, 한국합창연합회의 출연 등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남성중창단 '해피앙상블'이 특별출연, KBS광주어린이합창단이 우정출연한다.

### 프로그램

우효원/꼭꼭 숨어라

류지원/걸어가는 꽃

국현/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등 수곡

- 지휘/류지원 • 안무/함주현
- 피아노/김유영

## 가족과 함께 즐기는 All that Harp

일 시 | 6월 22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영립 010-9261-8843



'하프'라는 악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All that Harp.

아일랜드의 민속악기인 켈틱(Celtic) 하프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그랜드(Grand) 하프를 통해 자주 만날 수 없는 하프의 매력을 전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하피스트 김영립의 해설로 재미있게 만날 수 있다.

### 프로그램

Le Pins de Charlannes(H. Renie)

The Nightingale(D. Henson-Conants)

Danza de Luzma(A. Rolando Ortiz)

I'd rather have Jesus(G. B. Shea) 등 수곡

- 출연/고경아, 류다운, 배주옥, 이주현, 전수인, 정주희(이상 하프), 김은아(바이올린), 손사론(소프라노), 박혜령(마림바)

- 하프, 해설/김영립

## 미국 캠벨스빌 앙상블 초청연주회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미국 캠벨스빌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재즈트리오 캠벨스빌 앙상블 초청 연주회.

2012년 영화의전당 공연을 통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캠벨스빌 앙상블이 정통 보사노바와 삼바, 소울풀한 재즈의 어우러짐으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Spain-Chick Corea(b. 1941)

Donna Lee-Charlie Parker(1920-1955)

Resposta-Ney Conceicao (b.1972) 등 수곡

- 플루트/색소폰 데니스 산토스
- 첼로/더블베이스 사울로 디 알메이다
- 드럼/채드 플로이드 • 바이올린/조완수
- 피아노/윌리엄 버다이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시민행복 프로젝트  
2014 풍류(風流) 9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  
시민무용교실을 통하여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무용단원들이 함께 마련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시민행복 프로젝트 2014 풍류(風流) 9기-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시민무용교실 강습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며 170여 명의 시민 전문 무용인을 양성해온 풍류(風流)는 지난 4년간 우리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며 무용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그동안 같고 닮은 태평무와 화선무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 태평무(출연/김숙희, 김영숙, 류혜숙)
- 화선무(출연/김성희, 김기련, 김명숙)
- 태평무(출연/박선희, 이숙자, 이채영, 조공심)
- 설장고춤(특별출연 부산시립무용단 김윤호)
- 화선무(출연/김진선, 박옥순, 윤정하)
- 태평무(출연/조어진, 최필선, 최현숙, 한길량)
- 화선무(출연/이명희, 임연금, 하순연, 황미숙)
- 풍류 한마음 춤(출연/전 출연자)
- 예술감독/홍경희 • 무용지도/이현주, 안주희

**호국보훈의 달 특집  
제6회 라메르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평화의 꿈 콘서트**

일 시 | 6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라메르오케스트라 627-5665  
010-5566-5332



1998년 창단 이래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부산 시민들과 만나온 라메르오케스트라의 제 6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과 순국선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음악으로

로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 영상/6·25 동란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곡
- 마스카니/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 드볼작/신세계교향곡
-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 예술 총감독/이재석
- 특별출연/테너 장원상, 플루트 황미리, 송은결

**예원회 제11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협주곡의 밤  
두번째 시리즈 '로맨틱 그리고 두대의 피아노'**

일 시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예원회 010-4871-9288

...  
2002년 부산대학교 안원희 교수의 제자들로 창단된 예원회의 제 11회 정기연주회. 200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10회의 정기 연주회를 가진 예원회는 학구적 연주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이지 클래식, 교과서 음악회 등으로 대중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는 제10회 정기연주회 협주곡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객원 지휘자가 아닌 안원희 교수 제자인 서울 필하모닉 전임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 쇼팽/그랜드 폴로네이즈
- 슈만/피아노 협주곡
-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 생상/피아노 협주곡 2번
-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2번
- 연주/조경희·조정주, 차미령, 정꽃님, 임현지, 성평강, 안버리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M. Durufle & G. Faure  
'두 개의 레퀴엠(REQUIEM)'**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3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가브리엘 포레와 모리스 뒤뤼플레의 '두 개의 레퀴엠'.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오세종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2014년 '레퀴엠'은 지난 4월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레퀴엠 본연의 의의를 살리며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 회복을 위한 선율을 선사한다.

G. 포레의 레퀴엠은 단선율의 순수함에 영향을 받았으며 지옥불과 천벌보다 상냥한 위로의 감정을 담고 있는 곡으로, 다른 음악학자는 '죽음의 자장가' 혹은 '온화한 레퀴엠'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종교보다 인간적인 감정에 충실해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자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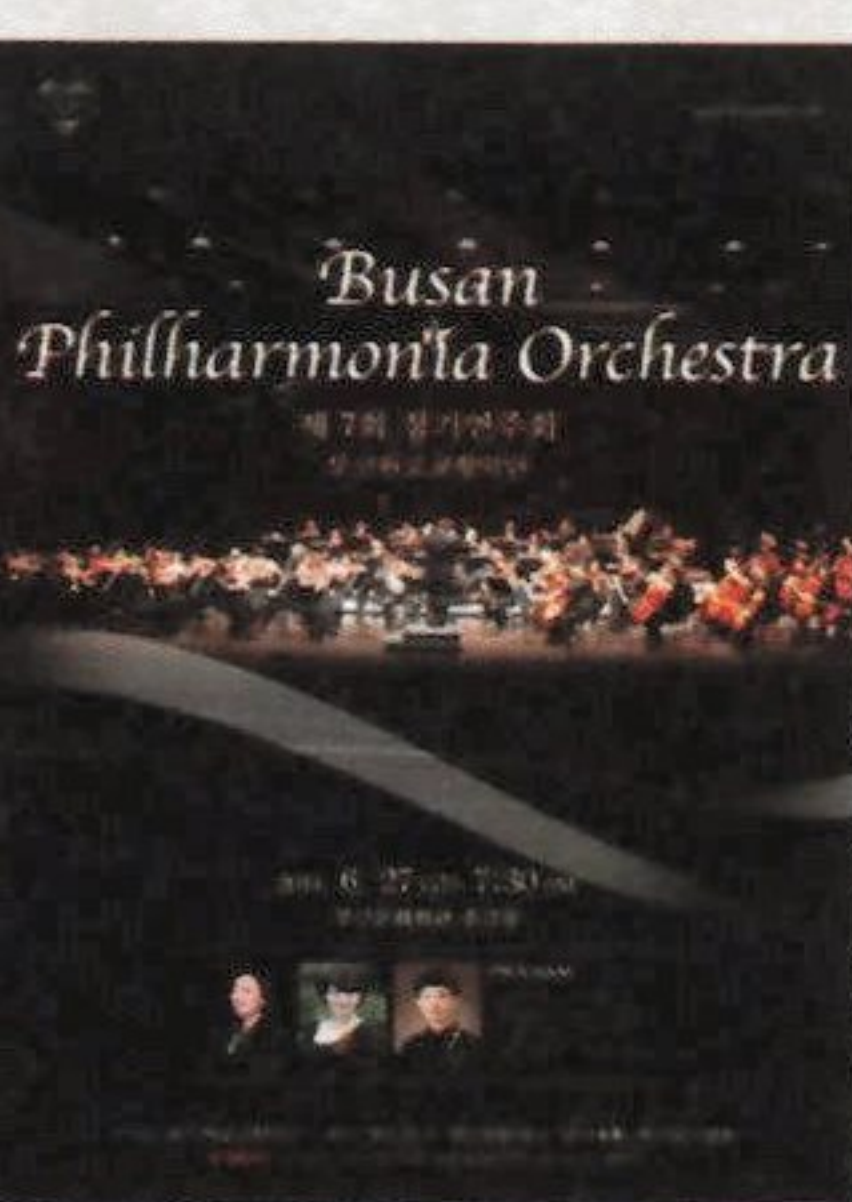
20세기의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 뒤뤼플레가 1947년 작곡한 '레퀴엠'은 자신의 부친에게 헌정되었다.

**|프로그램|**

- 뒤뤼플레/Introit, Kyrie, Domine lesu Christe, Sanctus, Pie Jesu, Agnus Dei, Lux aeterna, Libera me
- 포레/Introit et Kyrie(입당송과 자비송) 불쌍히여 기소서, Offertoire(봉헌송), Sanctus(거룩하시다), Pie Jesu(자비로운 예수), Agnus Dei(하나님의 어린 양), Libera me(나를 구원하소서), In Paradisum(낙원에서)

**부산원로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원로교향악단 011-843-0366  
www.busanphil.com



2008년 척박했던 부산 지역의 클래식 음악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져왔던 제1세대 음악인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퇴직단원 등 부산의 원로음악인들로 출발한 부산원로교향악단의 제7회 정기 연주회.

부산원로교향악단은 2011년 8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새로이 한걸음을 내딛었다.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 7번
-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 슈트라우스/박쥐 서곡
- 지휘/이라희
- 바이올린/여주현
- 플루트/장재우





# Program Guide >>

## Sorina Duo Piano Recital

일 시 | 6월 2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자매 피아니스트 박정희와 박미정이 활동하고 있는 Sorina Duo의 무대.

박정희와 박미정은 선화예술학교와 보스턴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수십 회의 연주를 통하여 뛰어난 앙상블로 청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박정희는 특히 부산MBC음악콩쿠르, 한국쇼팽콩쿠르, Richmond 음악콩쿠르 1위, Citta di Cantu, Viotti-Valsesia, IBLA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고 박미정은 Kingsville International Isabel Scionti 피아노 국제콩쿠르 1위 및 협연, Concord Orchestra, New England Philharmonic 음악콩쿠르 등에 입상한 바 있다.

Sorina는 한국어의 '소리'와 이탈리아어의 'una' '하나'라는 글자의 합성어로 '하나의 소리로 앙상블을 이룬다는 뜻'.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2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1번 사단조 작품 5 '환상적 풍경'  
 라흐마니노프/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작품 17



## UKO 제33회 정기연주회 '추모... 그리고, 희망'

일 시 | 6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 010-3863-3087

...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출발,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해 온 UKO(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추모... 그리고, 희망' 무대.

부산MBC가 주최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무대로, 민선6기 출범에 앞서 음악을 통해 한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두 번 다시는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다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프로그램]**

시벨리우스/슬픈 왈츠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윌리엄스/선들러 리스트 테마  
 베르디/빠체 빠체 등 수곡

•지휘/이동신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외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4 부산 ITU 전국회의 성공개최 D-100 행사기념 오페라 갈라 콘서트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

클래식은 어렵다, 오페라는 어렵다는 초보들을 위한 친절한 클래식 음악회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라 트라비아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어렵다고 느끼는 오페라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휘자 금난새가 재미있고 친절한 작품 해설로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

비아타'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7월과 11월에 차례로 선보인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에 빛나는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인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것으로 알렉산더 뒤마의 아들이 쓴 '춘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번 오페라 여행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서할란, 테너 이재욱, 바리톤 박정섭 등 유명 성악가들과 함께 작품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주요 연주곡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전주곡, 축배의 노래, 아! 그이인가, 지난 나날들이여 안녕, 피날레  
 비제/오페라 '카르멘'-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줄리엣의 왈츠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나는야 이 거리의 해결사

## 제8회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Duo Concreto

일 시 | 7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최성규 010-3564-3439

...

경성대학교 동문으로 함께해 온 음악 친구 주종식, 최성규가 들려주는 Duo Concreto.

테너 주종식은 현재 워싱턴 감리교회 음악감독,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단 단원으로, 바리톤 최성규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과 워싱턴이라는 거리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교감하며 부산과 워싱턴을 상호방문하며 교류 연주를 이어왔다.

**[프로그램]**

Musica proibita, Occhi di fata, Parlami d'amore mariu, 강건너 봄이 오듯이  
 Aria 'La dolcissima effige' from Adriana Lecouvreur  
 Du bist dei Ruh, Ganymed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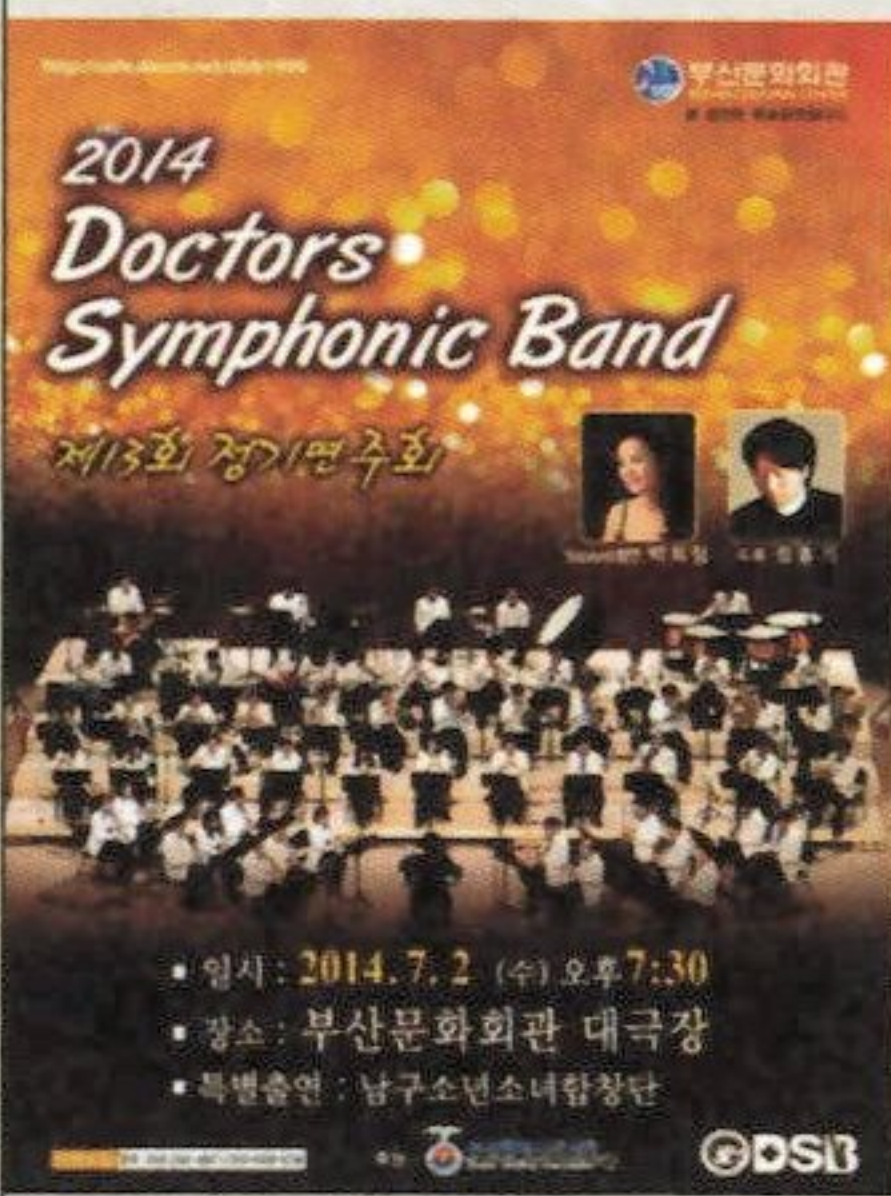




프로그램  
가이드

### 닥터스빅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흥기 010-2561-6047  
이국희 010-9458-9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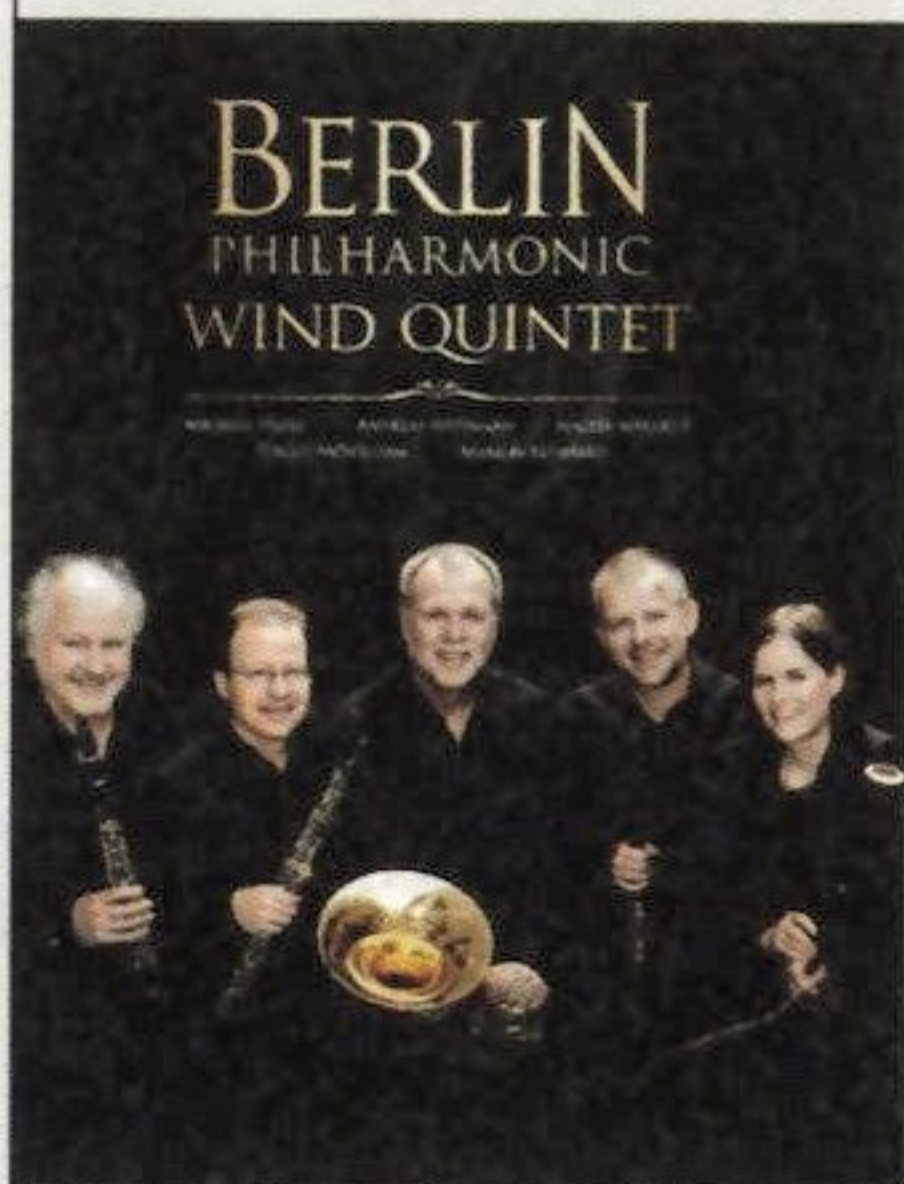
1999년 음악을 좋아하는 부산지역 의사들로 출발한 닥터스빅밴드의 제13회 정기연주회. 닥터스빅밴드는 2000년 대동밴드 발표회에 찬조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온천천 환경문화축제 초청연주, 자갈치 축제, 부산대학교 병원 환자를 위한 초청음악회,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등 부산 지역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 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B Rossette, Concerto D'Amore  
Samba di Janeiro, Tequila  
Disco Party II, Alvamar Overture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사계(봄, 여름, 가을, 겨울)'  
소프라노 박희정 '아름다운 나라'  
• 지휘/정흥기 • 협연/박희정  
• 특별출연/남구소년소녀합창

### 제25회 이건음악회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 초청공연

일 시 | 7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신청은 이건음악회 블로그 : [www.eagonblog.com](http://www.eagonblog.com))  
문의 | 이건창호 010-9941-6780  
어썸 커뮤니케이션즈 02-547-5707



1990년 가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파 해외 뮤지션을 발굴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열어온 이건창호의 메세나 음악회 '이건음악회' 2014년 무대.

올해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시대에 국제적 명성을 얻은 베를린필하모닉 내의 첫 번째 상설연주단체로 1988년에 설립된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이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부산, 고양, 서울, 인천, 광주 등 5개 도시를 무대로 전국 무료 순회공연을 펼친다.

베를린필하모닉 5중주 앙상블 특유의 음악적 표현력과 넓은 스펙트럼으로 전세계 클래식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베를린필하모닉 윈드퀸텟은 많은 청중들과 비평가로부터 클래식 5중주 연주를 재해석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7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단원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이 협연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악기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호른 협주곡 제4번  
브루흐/스코틀랜드 환상곡  
하이든/오보에 협주곡  
피에르네/하프 협주곡  
다비드/트롬본 소협주곡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등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조우태(바이올린, 경성대 2학년), 박소라(부산예고 3학년), 이주형(플루트, 인제대 3학년), 허근영(오보에, 경성대 3학년), 조성현(호른, 부산대 4학년), 박미리(트롬본, 동아대 2학년), 정주희(하프, 부산예고 2학년)

### 토요상설무대

일 시 | 토요일 오후 4:00(3,10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 6월 7일 국악밴드 아비오

김성경, 박현철/서랍 속 장난감 나라,  
김성경/틀 안의 풍경  
김성경, 박현철/이슬바람, 퍼즐, Track:길, 재  
바이오닐리그/바람계곡, 풍장  
연주/김성경(피리, 태평소), 김은경(대금, 소금), 김형진(베이스), 윤승환(타악), 김나영(해금), 박현철(기타), 류경화(가야금), 강우영(드럼), 정이혁(신디)



### 6월 14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헨델/시바 여왕의 도착(오라토리오 '솔로몬' 작품 67 중) 파헬벨/캐논  
하이든/현악4중주 제31번 나단조 작품 33-1  
몬티/차르다시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여름'  
현악4중주 String Quartet  
• Violini/배아름 • VioliniII/권순지  
• Viola/성정인 • Cello/김동미

### 6월 21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풍류장고(출연/김공주)  
부채춤(솔로/이정인, 군무/윤은하, 안주희, 김진영, 이현주, 전해련, 김시현)  
경고춤(출연/박창희, 이상민, 박은혜)  
사랑가(출연/김도은, 장영진)  
소고춤(출연/이현정, 김주연, 김미란)  
진도북춤(출연/이화성, 오수연, 김경미, 이나겸)  
• 안무, 구성/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6월 28일 아지무스 오페라단 '가족오페라 갈라콘서트'

아카펠라 교향곡/라데츠키 행진곡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O mio babbino caro'  
오페라 '리골레토' 중 'La donna e mobile'  
오페라 '사랑의 묘약' 메들리 '약장수 아리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Sull'aria(편지 2중창)(영화 '쇼생크탈출')  
오페라 '돈조반니' 중 'La ci darem la mano(손잡고 갑시다)'  
영화 '씨스터 액터' 중 'I will follow him'  
뮤지컬 '렌트' 중 'Seasons of Love'  
CM송 메들리 등 수곡  
• 대표/손욱  
• 출연/테너 서명보, 베이스 최현욱, 테너 김지현, 피아노 강지원, 소프라노 손유경, 박나래, 박현지, 남희수  
• 자막/이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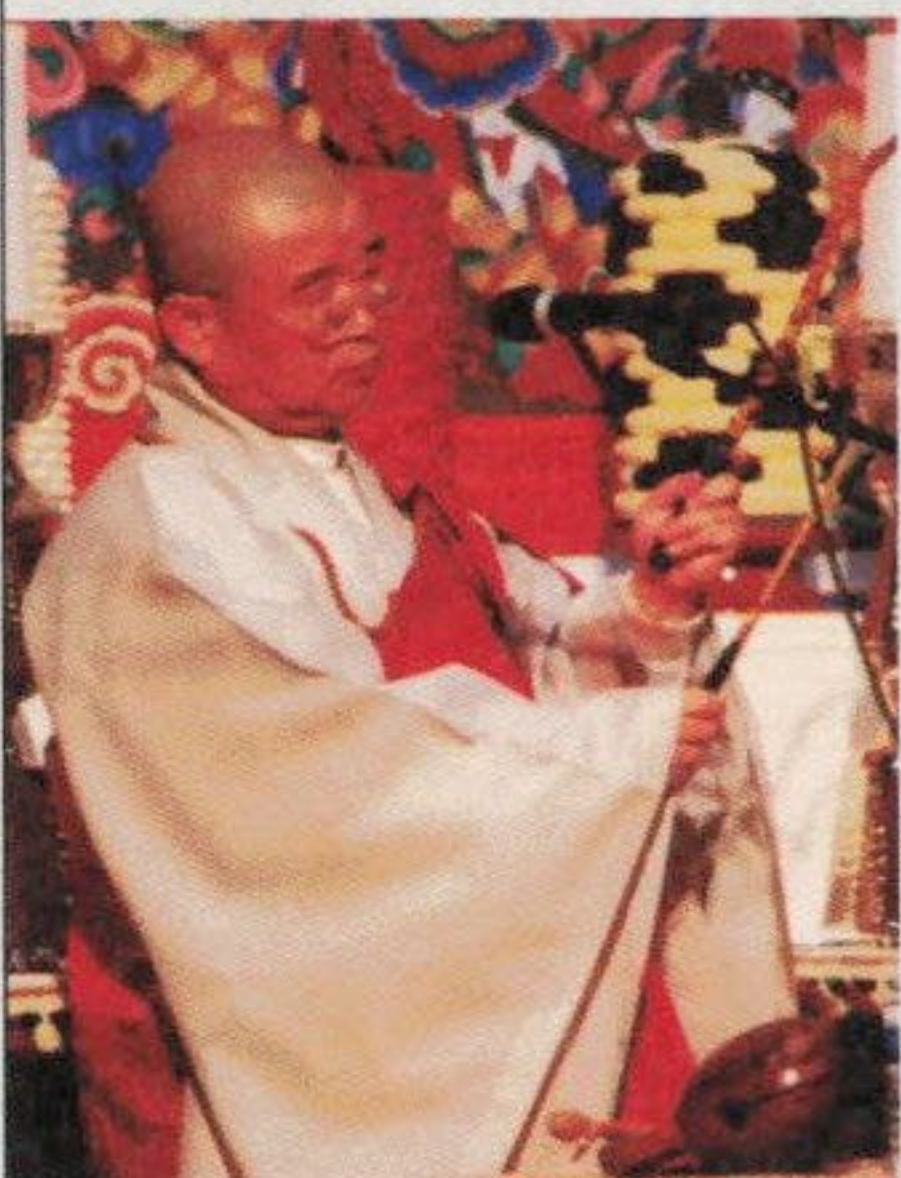
## 음악

###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마련해온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 3일 원로 예술인 초청공연 '석봉스님과 영산재'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 범음범패·법고무 예능보유자로, 전국민속예술축제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석봉스님 초청 공연.

#### |프로그램|

홍고, 영산작법(운수상단), 상주권공, 화청,

장엄염불, 법고무 및 삼회향

#### 10일 최윤영 다섯 번째 이야기 '동백꽃을 사랑한 경상도민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경상도민요보존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최윤영의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민요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윤영은 제1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경기민요 대상, 제14회 경기

국악제 전국경연대회 시조부 금상, 제5회 한국가요제 대상,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21c 아리랑상(따북네), 장려상(배꽃)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애기 재우는 소리(기장), 풀베기 소리(수영구), 동래 아리랑(동래), 도화 널그리며(최윤영, 신희준 곡), 천안 삼거리, 장사치 노래(안동), 는살땀기 타령(밀양), 뱃노래(남해) 등 수곡

- 피아노/하지림      • 기타/한형민
- 드럼/곽영일      • 콘트라베이스/유경훈
- 해금/강지은
- 노래/경상도민요 보존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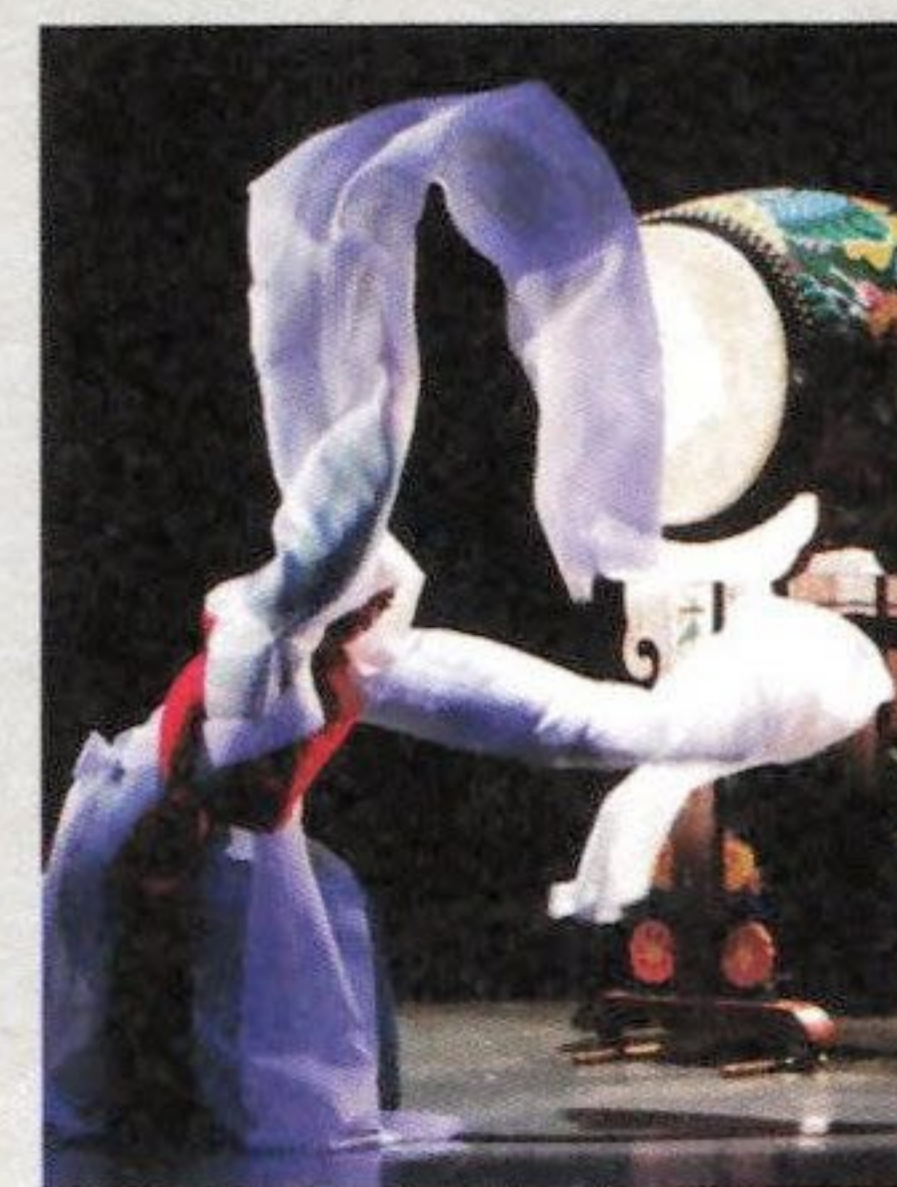
#### 17일 부산풍물패 사물놀이 30주년 기념 '옛 음악의 향기를 찾아서'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풍물패 사물놀이 30주년 기념무대. 1984년 11월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풍물패 사물놀이는 지난 1989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성주풀이, 가락장구, 삼도농악, 모듬북, 북춤, 판굿  
• 출연/김상헌(대표), 김민상, 최오성, 정성훈, 김태현, 윤지풍, 김성겸, 정은진, 박승빈, 김태형, 황진삼, 박성규

#### 24일 김진영의 춤 '풍(風)'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활동 중인 춤꾼 김진영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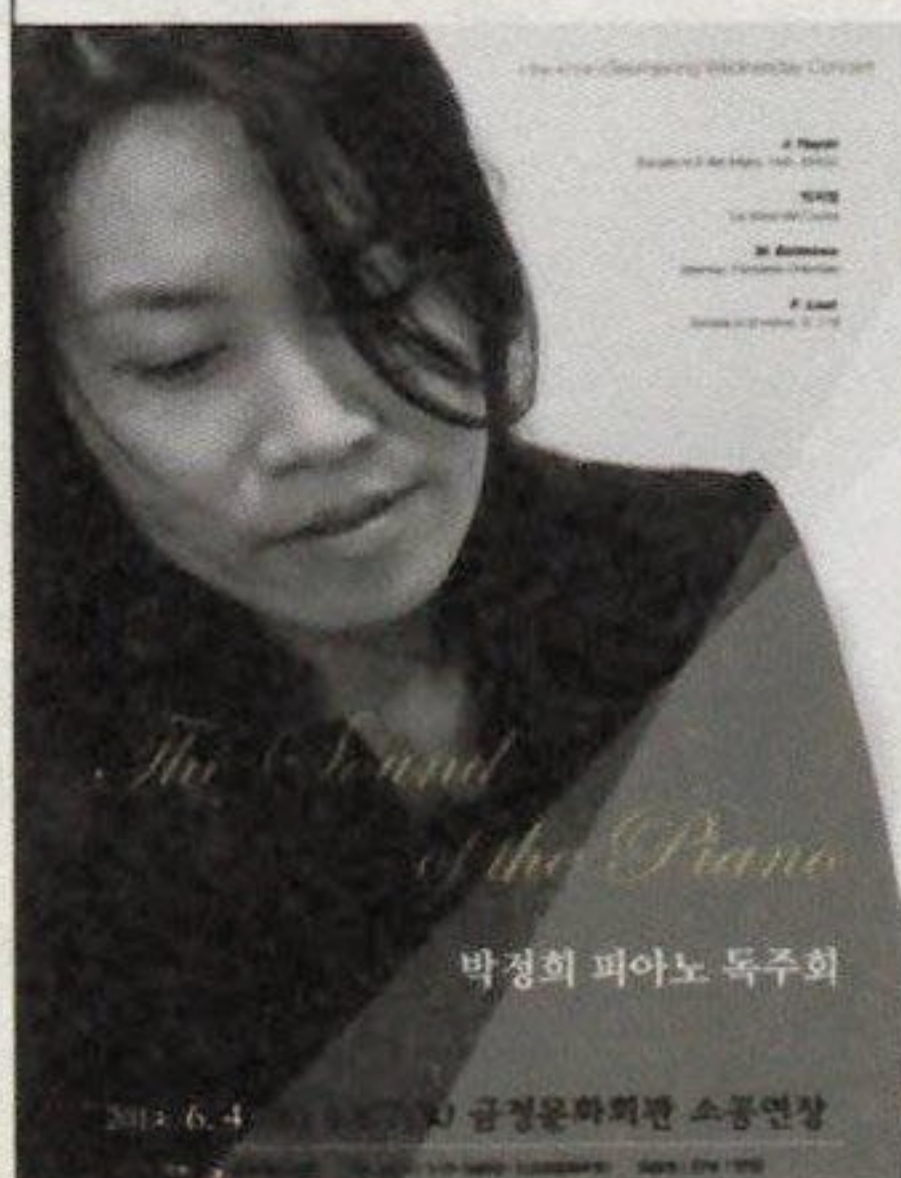
#### |프로그램|

승무, 한량무, 설장고, 풍류산조, 비나리\_씻김, 소고놀이  
• 춤/장래훈, 서정연, 김기원, 박상용, 허태성  
• 반주/설영성, 장재희, 김현일, 양일동, 류재철, 이우창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4일 박정희 피아노 독주회



진지하면서도 풍부한 기질과 음악을 향한 끊임 없는 열정을 지닌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론지음악원, 보스턴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현재 센토 챔버소사이어티 창단멤버이자 동아

####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내림마장조 Hob. XVI:52  
박지영/마음의 소리  
발라키레프/이스라메이-동양 환상곡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S.178

#### 11일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여인의 사랑과 노래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성 성악인의 모임으로 매년 따뜻한 테마와 주제로 무대를 열어 온 벨리씨미 성악연구회의 제13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명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방미애, 이은미, 박수정, 이나연, 장은영, 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금찬이

#### 18일 아스현악4중주단 제14회 정기연주회 '퀸텟 갈라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서은아,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스현악사중주단의 14번째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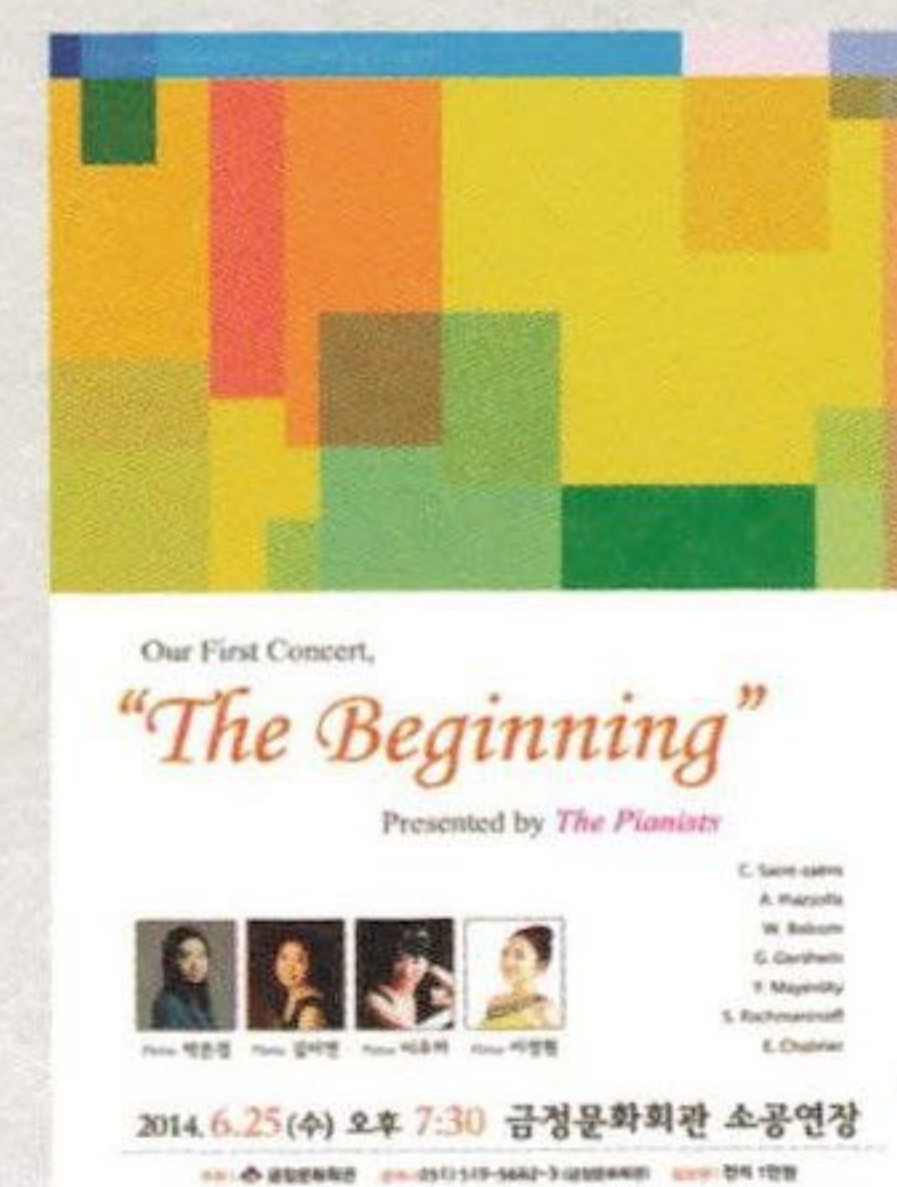
아스현악4중주단은 2001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 MBC목요음악회,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 축제', 부산시립미술관 초청연주회, 봉

생병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프로그램|

카푸스틴/피아노5중주 작품 89 1악장  
보케리니/기타5중주 라장조 G.448 '판당고' 3악장  
슈베르트/피아노5중주 가장조 작품 114 '송어' 4악장  
모차르트/클라리넷5중주 가장조 KV.622 4악장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가장조 작품 81 1악장  
• 협연/조현선(피아노), 여인호(플루트), 박희철(콘트라베이스), 고충진(클래식기타)

#### 25일 The Pianists 'The Beginning'



피아니스트 박은정, 김미연, 이유미, 이정원이 들려주는 피아노 앙상블의 밤.

#### |프로그램|

생상스/죽음의 무도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윌리엄 볼콕/에덴동산  
거쉰/프렐류드 제1번  
내림나장조 등



프로그램  
가이드

## 아미치 델라 무지카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일 시 | 6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055-320-3861



인제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예비 성악가들의 모임 '아미치 델라 무지카'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아미치 델라 무지카는 지난 2008년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를 무대에

올린 바 있다.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의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약혼녀의 정절을 시험하는 두 친구를 통해 연인들 사이의 사랑과 갈등, 신뢰를 그린 코믹 오페라이다.

- 지도교수/김성진 • 연출/박용민
- 음악감독/정금련 • 피아노/신세라, 김지훈
- 출연/윤비연, 강소현, 이경희, 박가영, 강지현, 박소정, 오가영, 임찬우, 최범석, 황동환

## 스페이스 옴 '차가 있는 음악회' 6월, 평화로움을 위하여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옴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 5일 아미치 콰르텟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서은아, 비올리니스트 김상철, 첼리스트 서성은으로 구성된 아미치 콰르텟의 무대.

'친구들'이라는 뜻의 아미치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스메타나 현악4중주 '나의 생애로부터',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를 들려준다.

- 플루트/조단비

### 12일 메조소프라노 한현미의 '프랑스음악으로의 초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계명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파리 Boulogn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국제성악콩쿠르 UFAM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 Ravel 특별상 등을 수상한 메조소프라노 한현미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

- 출연/한현미, 박소정, 정세비, 한선영, 박정호, 김한나, 이상희, 박가영, 윤비연
- 반주/이영송

## 19일 감성 피아니스트 현미경의 '사랑이 오는 소리'



영국왕립음악원과 러시아 성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불가리아 국제청소년음악콩쿠르 한국인 최초 1등상, 러시아 국제음악콩쿠르&페스티벌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수상한 감성 피아니스트 현미경의 힐링 콘서트.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곡과 영화음악, 뉴에이지 곡을 영상이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콘서트로 마련된다.

## 26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캔컵 sing sing한 콘서트

뮤지션, 프로듀서, 디렉터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컨텐츠 창작자들의 네트워크인 창조예술인협동조합 캔컵의 첫 번째 옴니버스 앨범 '싱싱캔컵' 발매기념 전국 클럽투어 부산 콘서트.

일기예보 리더였던 가수 나들과 브릿팝을 기조로 실험적인 사운드를 지향하는 락밴드 트루마인, 노래하는 기타리스트 안강호, 싱어송라이터 이그린, 일본인 피아니스트 히데오 고보리 등 조합원들이 클래식에서부터 포크록, 모던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콘서트 '끌림'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5일 국악과 8인의 성악가가 함께하는 러브 스토리

1980, 90년대 유행했던 유재하, 김광석, 김현식의 노래를 엮어 구성한 스토리 콘서트로, 퓨전국악의 반주로 노래하는 색다른 콜라브레이션 공연이 펼쳐진다.

### 12일 콘택 스트링 콰르텟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콘택 콰르텟은 지난 2003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최상의 호흡과 앙상블, 새로운 구성의 실내악 무대로 실내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 연주/김란(피아노), 서영희(바이올린), 송지현(바이올린), 조진영(비올라), 정학선(첼로)

### 19일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2012년 새롭게 결성한 홍노경밴드 해류뭉해리의 무대로, 자작곡과 가요, 팝, 재즈 등을 영상과 함께 들려주는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해류뭉해리'는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라는 순 우리말로, 시원하면서도 즐거운 음악으로 관객과 만난다.

## 글로벌의 귀재음악회 김빛날윤미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6월 7일 토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글로벌장학재단 기금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제1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에서 금상, 현악부문 최우수상, 전체대상 등 3관왕에 오른 차세대 유망주 김빛날윤미의 바이올린 독주회.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김빛날윤미는 그동안 센앙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부산신포니에타 연주회, 부산신인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2014 토리스 하우스콘서트

일 시 | 6월 8일(일), 29일(일) 오후 8:00  
토리스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토리스 518-5060

금정구 구서동에 자리한 핸드 드립 커피 전문점 토리스가 매월 둘째주,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하우스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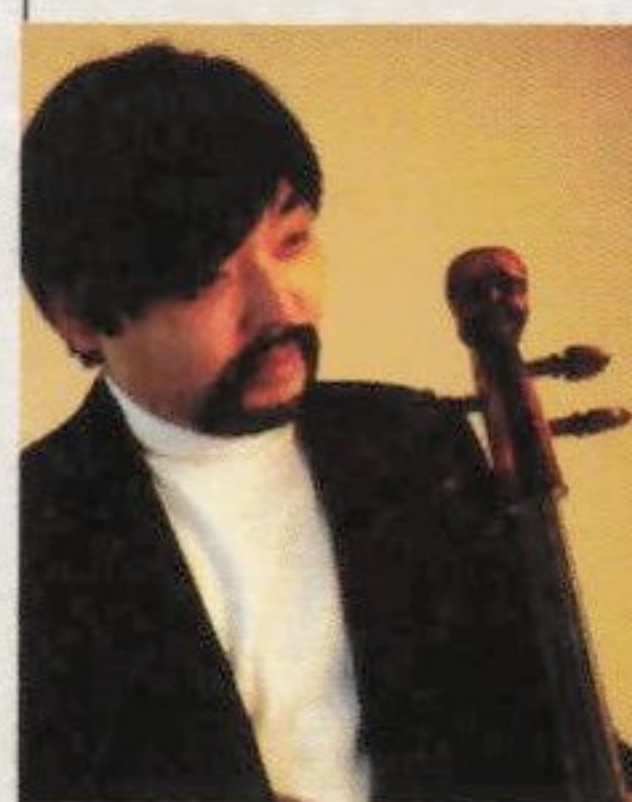
### 8일 김애라의 해금여행



국립국악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김애라의 무대.

김애라는 그동안 정통 국악에서부터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무대, 새로운 창작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29일 양욱진 첼로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 체임버 오케스트라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예술감독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의 무대.



## 장예지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6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장예지 010-4431-3373



부산예고 재학중 도독,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 음대 디플롬 과정과 바이마르 리스트 국립 음대에서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후 부산플루트앙상블, 플루트 4중주 '클랑Klang',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

동중인 플루티스트 장예지 독주회. 장예지는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재예술원, 부산예술중·예술고등학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플루트의 화려한 음색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은정
- 바이올린/박진
- 비올라/김명복
- 첼로/박준현

## 조운범의 시네마클래식 시리즈 7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일 시 |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영화 속 음악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6월 무대.

R.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슈트라우스가 니체의 철학을 치밀한 관현악법으로 표현

한 관현악곡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사용되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주제로,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조운범의 명쾌한 해설로 들려준다.

- 진행/조운범
- 연주/카르텟엑스

## 라 무지카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6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라 무지카 앙상블 010-4560-5322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우소라,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김판수, 피아니스트 이진성으로 결성된 라 무지카 앙상블 연주회.

라 무지카 앙상블은 그동안 '어렵지 않은 클래식 음악'을 모토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흥미로운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베르트, 클라라 슈만 부부의 작품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프로그램

- 클라라 슈만/피아노 트리오 작품 17
- 로베르트 슈만/옛 이야기 작품 132
- 로베르트 슈만/피아노 5중주 작품 44
- 해설/황지원



## 동래문화회관 제25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그리운 마음

일 시 | 6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6월 무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리운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5명의 남성성악가가 출연, 중후한 음색의 바리톤과 가슴깊이 스며드는 베이스로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 김동환/그리운 마음
- 장일남/신고산타령
- 신동수/산아
-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
-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야 이거리의 해결사'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수곡
- 출연/바리톤 고일언, 양재원, 정승화, 지광윤, 베이스 권영기

## 제33회 부산관악제

일 시 | 6월 10일 화요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문 의 | 박중희 010-9224-0482

부산지역 10개 관악단이 한 자리에 모여 부드러운 선율과 웅장한 하모니를 들려 줄 부산의 대표적인 관악축제 제33회 부산관악제.

지난 1974년 한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주관으로 처음 시작된 부산관악제는 매년 부산지역 고등학교 관악단들이 참가하면서 실력있는 관악 음악도들을 배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 8개 학교 관악단과 볼런티어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일본 상대마고등학교 관악단이 출연, 웅장한 관악의 향연을 펼친다.

### 출연 단체

-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관악단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관악단
- 경남공업고등학교 관악단
- 동주여자고등학교 관악단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관악단
- 볼런티어 부산우드윈드앙상블
-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관악단
- 일본상대마고등학교 관악단
- 예원여자고등학교 관악단
- 부산공업고등학교 관악단

## 제31회 을숙도명품콘서트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6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3개의 독주 악기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어우러지는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 이승임/Dream for Orchestra
- 베토벤/3중 협주곡
- 슈만/교향곡 제3번
- 예술감독/김원명
- 지휘/이효상
- 협연/김준연(바이올린), 정준수(첼로), 오윤복(피아노)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프로그램  
가이드

### 소프라노 박영희 독창회

일 시 | 6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영희 010-9454-8785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및 동교육대학원,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양산 중앙중학교 교사, 아르모니아성악연구회 회원, 해운대 달맞이성당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소프라노 박영희 독창회.

**프로그램**

스카를라티/갠지스 강가에서  
R. 스트라우스/헌사  
모차르트/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자매여, 좀 보세요'  
라흐마니노프/여기가 좋아요  
베르디/오페라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중 '고맙소, 친구들' 등 수곡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동희
- 해설/바리톤 정용욱
- 피아노/정금련

### 피아노 듀오콘서트 네 손을 위한 판타지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민강은 010-5898-1957



경성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송지은, 최혜련, 권미성, 민강은, 양정은, 김성희, 한상민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송지은은 이화여대 대학원 및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최혜련은 경성대학교 음악대학원과 독일 Kassel 음대를, 양정은은 경성대학교 음악대학원과 독일 Essen 국립음대를, 김성희는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한상민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작품 381  
스메타나/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2곡 '몰다우' 등

### 퓨전시나위 예타래 연주회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지난 1998년 창단 이후 기획연주회 '예타래와 함께 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와 이탈리아 5개 도시 순회연주,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숨쉬는 땅' 기획공연, 슬로바키아 국립오페스트라와의 협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통하여 우리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영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퓨전시나위 예타래의 무대.

**프로그램**

이경섭/소리놀이 1+1  
박범훈/메나리 주제에 의한 피리 3중주  
Piano, Saxophone & 풍물을 위한 퓨전시나위 2014



### 정다희 바이올린 귀국 독주회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정다희 010-6379-9333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보스턴대학교, 미시간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The Blossom 멤버로 활동하며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귀국 독주회.

미국 유학시절 MSU 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Lansing 심포니오케스트라, Alma 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기도 했던 정다희는 귀국 후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에이미 비치/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 23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2번 라장조 작품 94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 피아노/심정자

### Summer Zazz Concert in Haeundae

일 시 | 6월 16일 월요일 오후 7:0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미국 뉴욕 Five Towns College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기타리스트 유한승과 베이시스트 홍경섭, 드럼주자 홍성률로 구성된 유한승 재즈기타 트리오가 마련하는 썸머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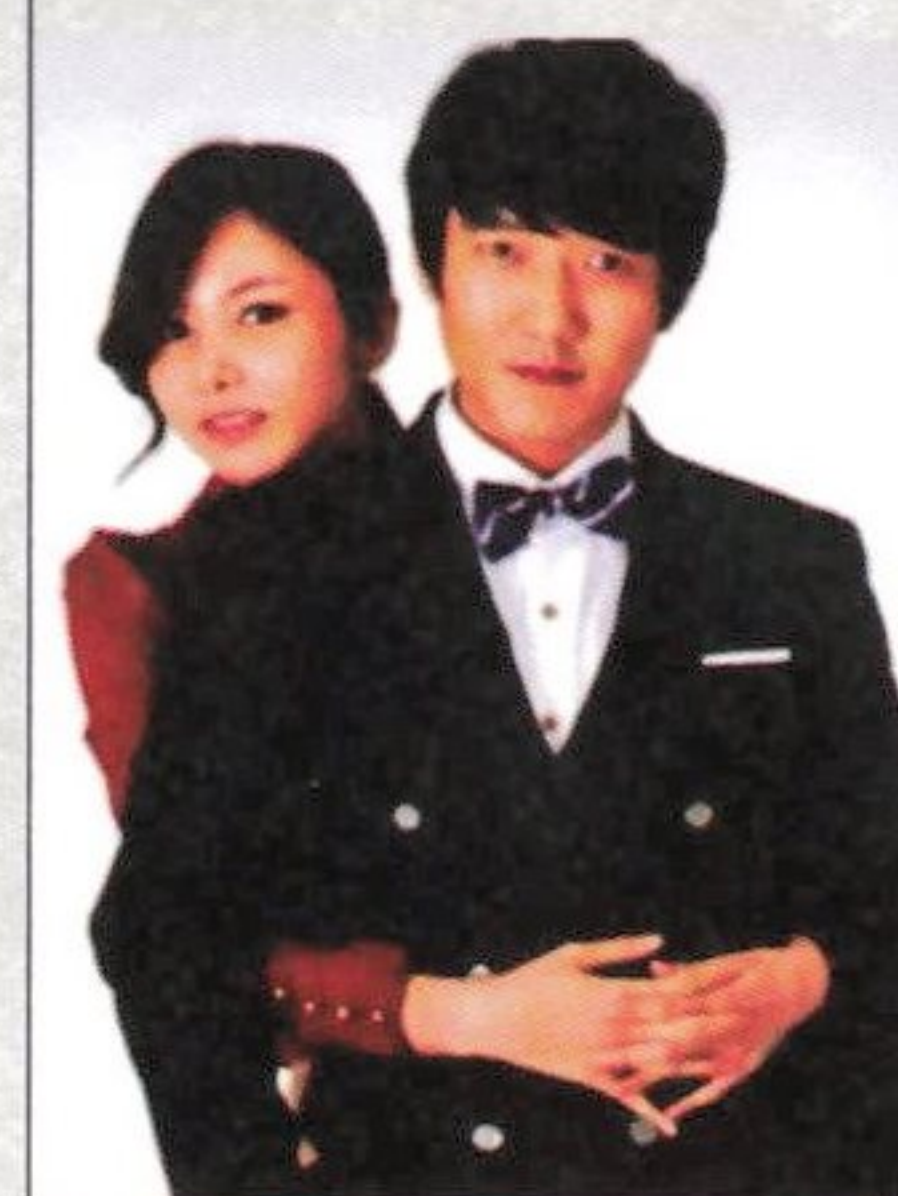
###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융합예술음악학과 모란이 피기까지는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융합예술음악학과 이수혜 809-1193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융합예술음악학과 재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견뎌 펼치는 학구적인 무대.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재즈피아노,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전공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실제 연주무대를 통해 선보인다.

### 6월 한낮의 유U; 콘서트 The Very Best Musical

일 시 |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낮의 유U; 콘서트.

6월 무대에서는 뮤지컬 배우 최은석과 뮤지컬팀 더 뮤즈가 출연, 뮤지컬 갈라무대를 펼친다.

최근 '현대판 오만과 편견'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아이 러브 유 비코즈'에서 제프 역으로 사랑받았던 뮤지컬 배우 최은석은 그동안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6시 퇴근', '뮤지컬&댄스 환상 갈라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Facade, 넌 내게 반했어, All that jazz, Fame, This is the moment, Sandy, Those Maggic Change, 사랑의 찬가, A whole new world, Maria 등 수곡



## 하재원 해금독주회

일 시 | 6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하재원 010-7230-1123

...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하재원 독주회.

하재원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금정악회 회원, 부산 쉼삼중

주단 너울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룡음, 표정만방지곡 전곡을 들려준다.

- 장구/권성택(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
- 대금, 단소/이영섭(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악장)
- 피리, 생황/윤형욱(국립국악원 정악단 부수석)

## 소프라노 손주연 독창회 삶과 영혼의 노래

일 시 |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손주연 010-5509-9029

...



깊은 호흡에서 우러나오는 영롱한 음색의 소유자 소프라노 손주연 독창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베르첼리 비웃티 아카데미아, 뻬아첸차 국립음악원, 비발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손주연은 이탈리아 가곡연구회 콩쿠르에서 2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을 졸업한 손주연은 이탈리아 가곡연구회 콩쿠르에서 2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기뻐하라, 환호하라 K. 165  
멘델스존/꽃다발 작품 47 제5번  
드보르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부치는 노래'  
김동진/가고파  
이수인/고향의 노래 등 수곡  
• 특별출연/메조소프라노 이민정, 테너 김성배, Papa&Mam Choir

## 데이빗 가렛 내한공연

일 시 | 6월 19일 목요일 오후 8: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의 | KNN 1661-6488

...



뛰어난 외모와 넘치는 재능으로 이 시대 최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데이빗 가렛 내한공연.

독일 출신의 데이빗 가렛은 10세에 무대 데뷔, 13세에 주빈 메타와의 협연, 유명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계약, 뉴욕 줄리어드 음대 출신에 이자크 펄만의 수제자라는 타이틀까지 정통 클래식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바이올리니스트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팝에서부터 록, 헤비메탈, 일렉트로니카, R&B 그리고 라틴음악과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해왔다.

최근에는 천재음악가 파가니니의 일생을 그린 영화 '파가니니: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배우로도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영남국악원 30주년 기념공연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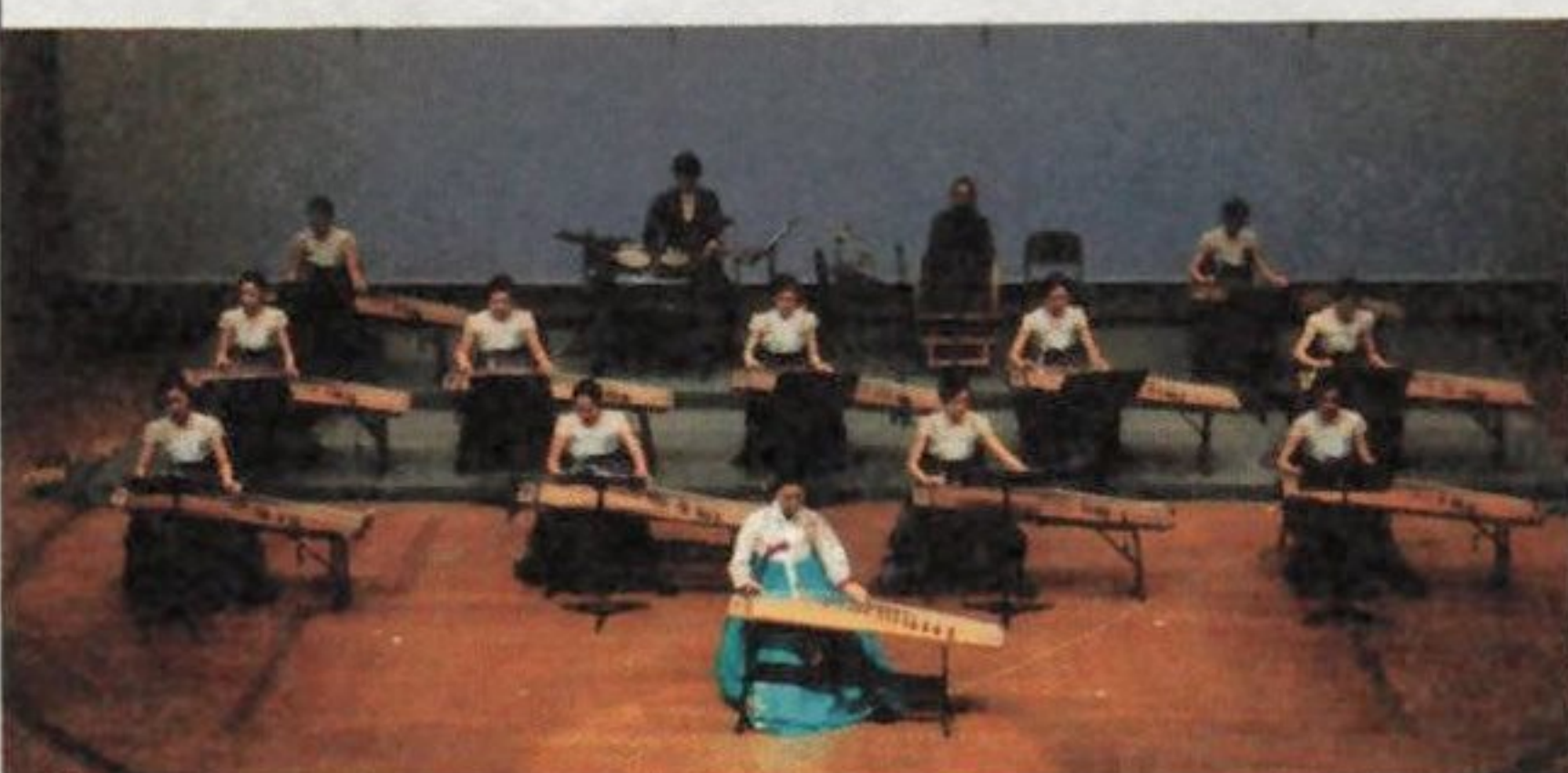
입장료 | 초대  
문의 | 장혜숙 010-4544-5505

...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는 부산국악요람의 1번지 영남국악원 30주년 기념공연.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 장혜숙이 원장으로 있는 영남국악원은 이번 무대에서 현재 국악계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명의 연주자들이 출연, 화려한 국악의 성찬을 펼친다.

- |프로그램|**  
중광지곡 중 '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  
성금련류 산조 '가야금-아쟁' 병주  
황의중/25현가야금 3중주 '벚노래변주곡'  
곽재영/25현가야금 5중주 '하바나길라'  
황병기/가야금과 장고를 위한 '하마단'  
단소독주 '요천순일곡'  
최재륜(편곡)/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앙상블



##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의 로맨틱 콘서트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0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의 로맨틱 콘서트.

연세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 에센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카메라타 부산 악장, 아도르심포

니오케스트라 악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은 지난 2007년 서울과 부산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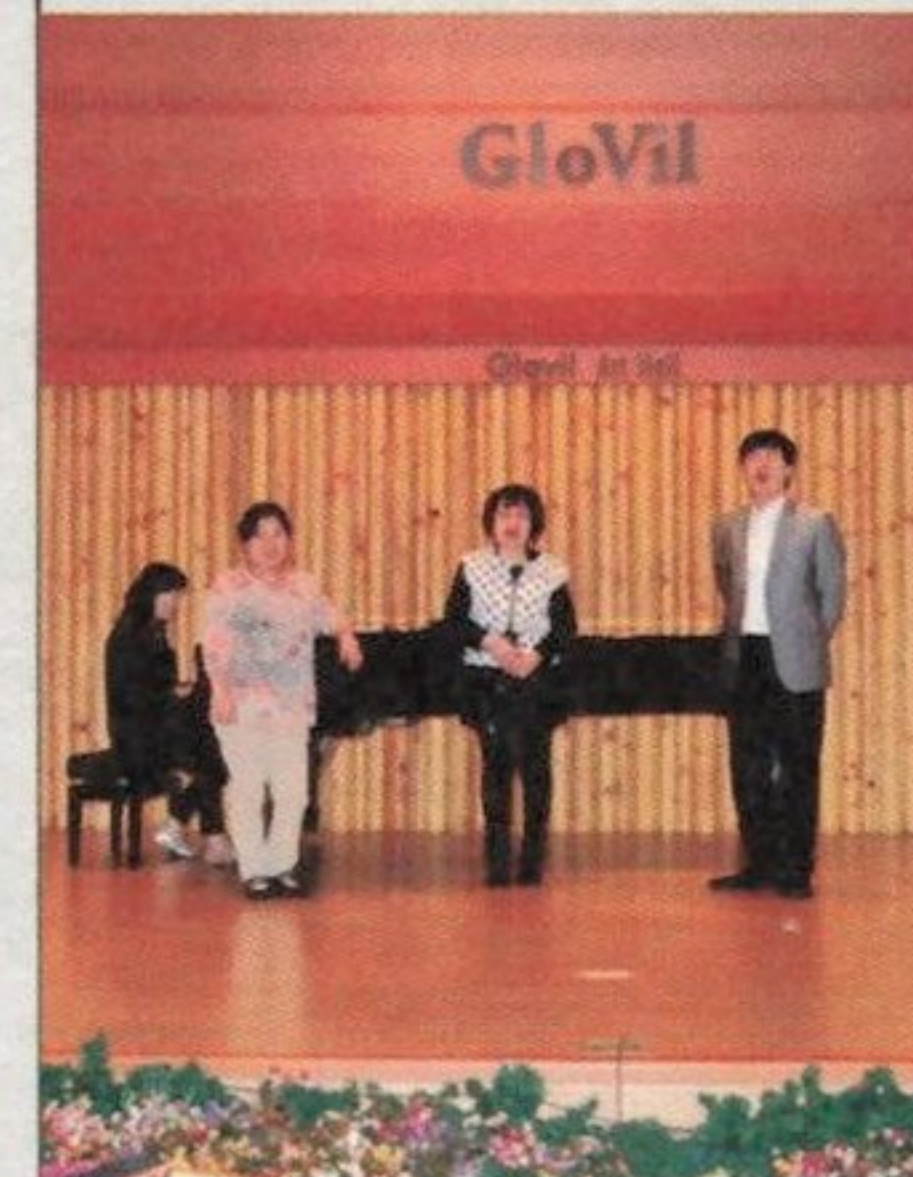
- |프로그램|**  
크라이슬러/코렐리 테마에 의한 변주곡  
슈만/로망스 가장조  
쇼팽/녹턴  
피아졸라/Adios Nonino  
가르로스 가르델/Por Una Cabeza 등 수곡  
• 찬조출연/피아니스트 서혜리

## 부산예술가곡회 창단연주회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소프라노 조신미, 김연경, 박순정, 이경숙, 테너 채사무엘, 조창현, 문상준, 양수배 등이 주축이 되어 창작가곡 활성화에 주력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회 창단연주회.

부산예술가곡회는 매월 셋째 주 글로벌아트홀에서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 |프로그램|**  
김성덕/모란  
황베드로/어느 봄날  
최영섭/영혼의 바다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카탈라니/오페라 '라 발리' 중 '그렇다면 멀리 가겠어요' 등 수곡  
• 사회/대표 조신미 • 피아노/김정숙



프로그램  
가이드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쇼팽 트리오**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살롱음악회 6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 쇼팽 음악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정엽, 플루티스트 정세린, 첼리스트 김새로미의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트리오 28번  
장은호/아이들을 위한 은유(2014)  
쇼팽/녹턴 작품 27-2번  
루이스 파랑/트리오 마단조 작품 45



**성기업 플루트 독주회**

칼 필립 바흐 탄생 300주년 기념 음악회

일 시 | 6월 22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음대를 졸업하고 매년 독주회와 실내악무대, 기획연주회 등을 통해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성기업 독주회.

바흐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바로크 및 고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 평소 무대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그 시대 바흐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현과 바소 콘티누오,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가단조 Wq.166 [한국초연]  
바흐/현과 하프시코드,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Wq.22[부산초연]  
•해설/김윤선 •지휘/박광식  
•연주/움챔버오케스트라

**봄, 여름 그리고 가을...실내악 음악여행 시리즈!  
실내악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청소년 및 1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계절별로 만나는 실내악의 향연 '실내악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여름 시즌 공연. 부산, 경남지역의 젊고 우수한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역동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타악 앙상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타악앙상블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려온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바다축제 해변음악회, 실내악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청소년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아르츠 콘서트-스페인편 '비르투오소'**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루브르 천번 가본 남자' 윤운중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펼쳐지는 아르츠 콘서트 스페인편. 미술과 건축의 거장 피카소, 달리, 가우디부터 천재음악가 사라사테, 카잘스, 호세 카레라스까지 천재 예술가들의 뜨거운 예술혼이 살아있는 정열의 스페인으로 문화여행을 떠난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인 왕립음악학교 기타과를 한국인 최초로 입학해 화제를 모은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호세 리와 올림푸스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이 출연, 열정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타레가/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비제/카르멘 환상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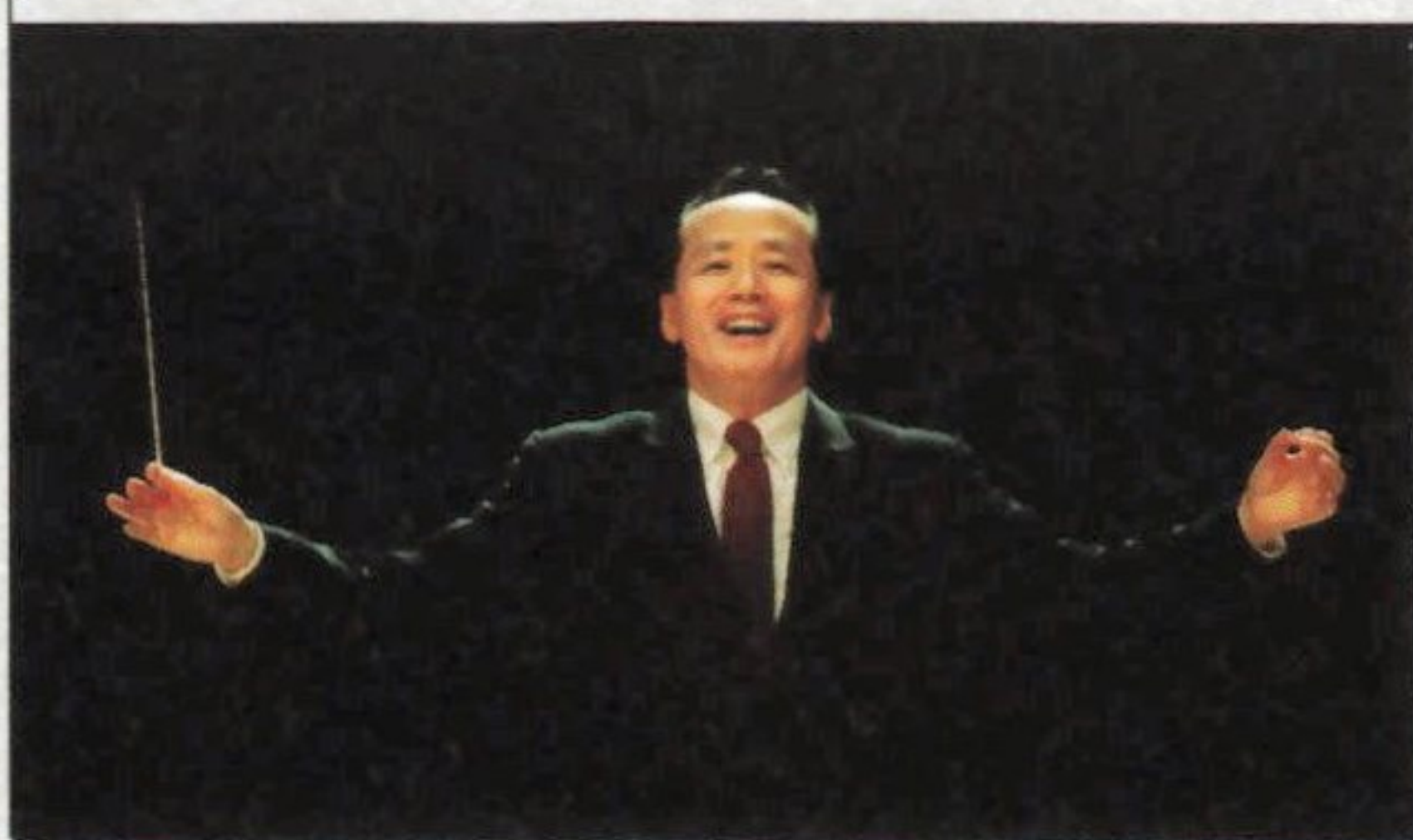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2만 5천원, A석 2만원  
B석 1만원(초·중·고생 30% 할인)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8119

평소 접하기 힘든 유명한 오페라곡을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온 지휘자 금난새는 특히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다.

•연주/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신동원, 바리톤 성승욱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힐링콘서트  
활의 노래**

일 시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밴드 아비오가 펼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2007년 결성된 국악밴드 아비오(我飛娛)는 '음악을 자유로이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기존 국악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찾아보고자 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퓨전국악그룹이다.

아비오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초청연주를 통해 한국적인 느낌과 전통의 색깔은 고수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비오만의 음악을 널리 알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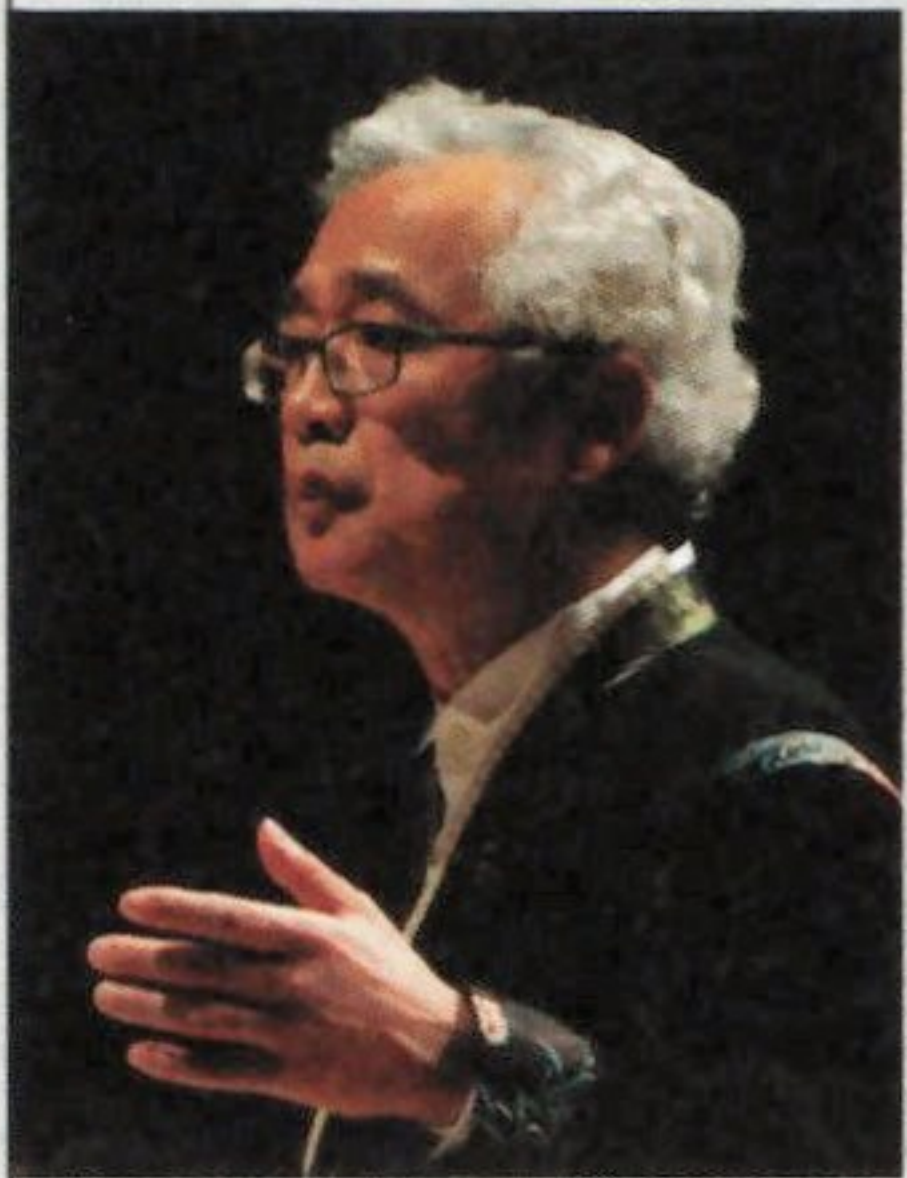
**|프로그램|**

해금솔로 '도라지', 서랍 속 장난감 나라, 이슬 바람, 흔들의자, 프론티어(양방언 곡), 국악동요 '산도깨비, 소금장수', 바람계곡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Ⅲ

일 시 |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뛰어난 기량  
 을 확인할 수 있는 협연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73회 정기연주회 '이  
 어지는 벗들의 어우러  
 짐 Ⅲ'.  
**|프로그램|**  
 정대석(편곡/이준호)/거

문고협주곡 '무영탑'(부산초연)  
 김희조(편곡)/윤윤석류 아쟁산조 협주곡  
 박위철(편곡)/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  
 백성기/창작판소리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  
 최상화/모듬북과 풍물을 위한 관현악 '상쇠'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전현진(거문고), 홍영혜(아쟁), 강영진(대  
 금), 박성희, 정선희(소리), 송강수, 최오성,  
 박재현, 이경희(모듬북)

## 제62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듀오 벤투스

일 시 | 6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비 1만원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 박지은과 영  
 남대학교 교수인 클라리  
 네티스트 채재일의 듀오  
 무대.  
 미국 맨하탄음대 학사,  
 예일대 석사를 졸업한  
 박지은은 미국 아마하  
 어워드 1등, Artist In-  
 ternational Awards

우승으로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무대를 가진 후 미  
 국과 스코틀랜드, 중국, 일본 등에서의 독주회와 마  
 스터클래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미국 줄리어드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채재일은  
 동아콩쿠르 1위, 제네바국제콩쿠르 특별상, 스페인  
 도스 에르마나스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  
 서 입상했으며 LA오페라 수석, 필라델피아 오케스  
 트라 객원수석,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 글로벌 행복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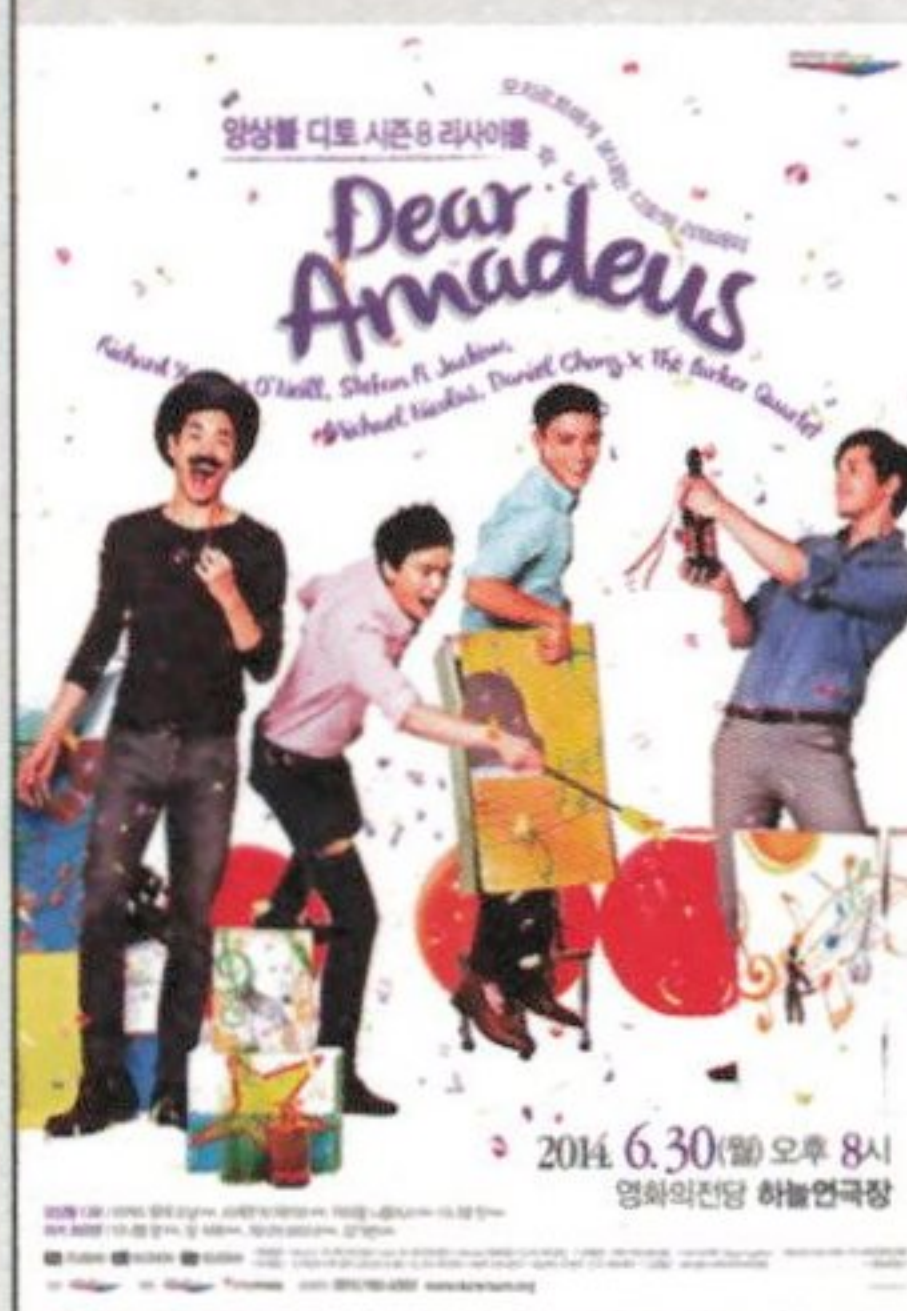
일 시 | 6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글로벌장학재단 기금마련)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  
 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  
 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글로벌 행복음악회 6월 무대에서는 제17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신예  
 들의 연주와 지역민들의 색소폰 향연이 함께 펼쳐  
 진다.



## 양상블 디토 시즌: 리사이틀 Dear AMADEUS!

일 시 | 6월 30일 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비올리스트 리처드 웅  
 재 오늘을 중심으로 바  
 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재키, 다니엘 정, 첼리  
 스트 마이클 니콜라스  
 등 클래식계 아이들로  
 구성된 양상블 디토의  
 시즌 8 리사이틀 무대.  
 'Dear AMADEUS'라  
 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  
 번 무대에서는 독주,  
 오케스트라, 오페라 등 클래식 전 분야에 걸쳐 이정  
 표를 남긴 세기를 뛰어넘은 천재 아마데우스 모차르  
 트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계 연주자 다니엘 정(리더  
 /바이올린), 김기현(첼로)과 제시카 보드너(비올라),  
 잉 수에(바이올린)로 구성된, 2011 그레미상 수상  
 에 빛나는 파커 콰르텟이 4년만에 양상블 디토와 함  
 께 무대에 오른다.

## 연극

### 로맨틱 코미디극 내사랑 은경씨

일 시 | 4월 30일(수)-6월 2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오후 7:00,  
 일·공휴일 오후 2:00,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을 이끌었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정년퇴직하  
 면서 겪게 되는 일상을  
 통해 5060세대의 따  
 뜻한 부부애를 그린 로  
 맨틱 코미디극 '내사랑  
 은경씨'.  
 30년간 가정을 위해 열  
 심히 일해온 한 가정이  
 남편으로, 아버지로 돌  
 아오면서 겪게 되는 혼란을 정감 넘치게 그리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의 엄마, 여  
 보로만 존재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리얼 코믹 연극 달콤한 수작

일 시 | 5월 1일(목)-6월 2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6/10일부터 평일 오후  
 5:00 추가공연,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코믹극의 전설 '라이어'  
 의 작가 레이 쿠니의  
 아들 마이클 쿠니가 선  
 보이는 힐링 코미디극  
 '달콤한 수작'.  
 이사 가버린 세입자 앞  
 으로 날아온 사회복지  
 료를 챙기게 되면서 벌  
 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연극 '달콤한 수작'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과 오합지졸 캐릭터들이 쏟아  
 내는 정신없는 대사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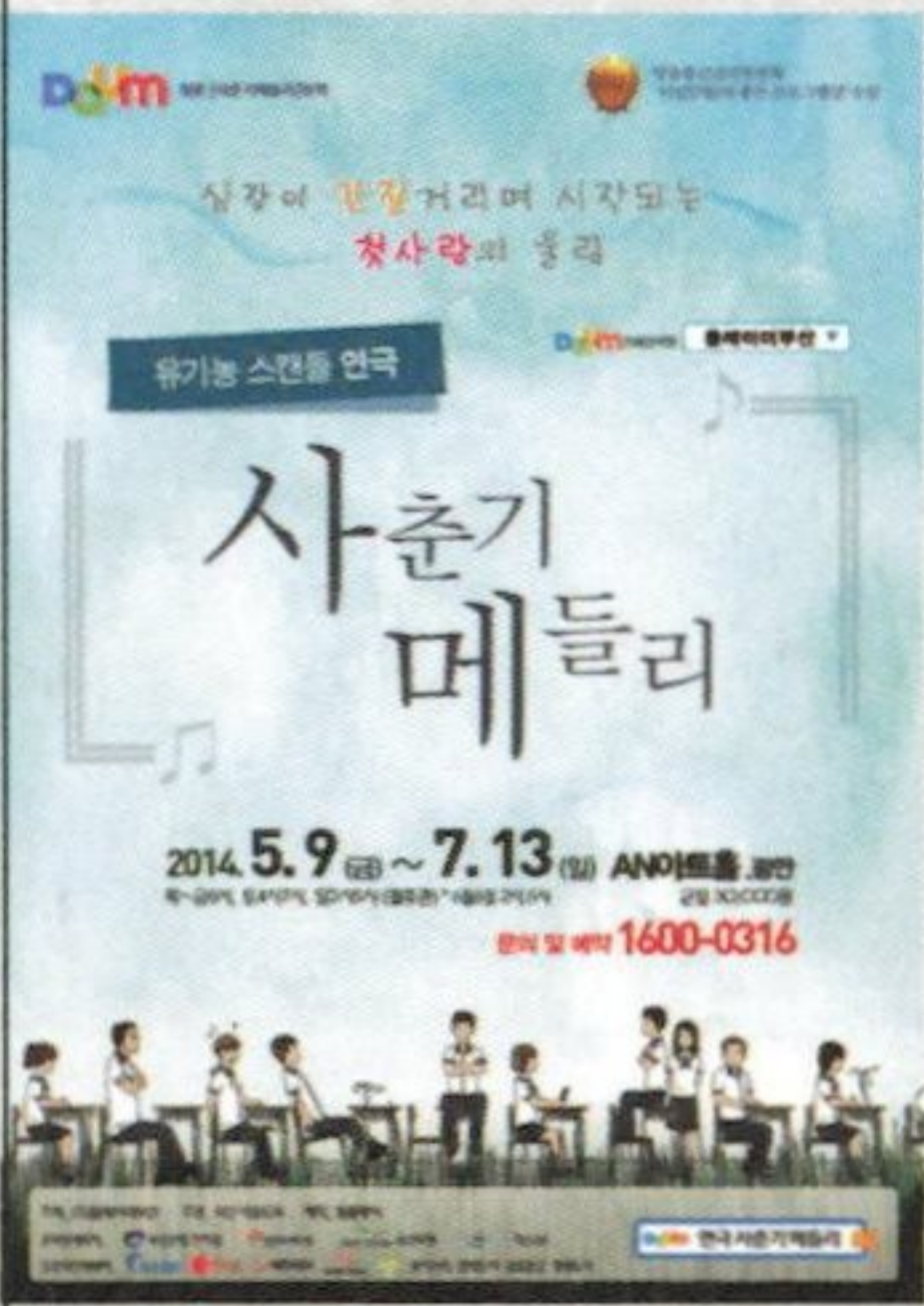
- 원작/마이클 쿠니
- 각색, 연출/이원준
- 출연/이원준, 최병혁, 김정수, 박현만, 배서현, 김민정



프로그램  
가이드

### 연극 사춘기 메들리

일 시 | 5월 9일(금)~7월 13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6/6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인터넷에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곽인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무대에 올린 연극 '사춘기 메들리'.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낯설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전학 온 주인공 정우를 통해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춘기 메들리'는 지난해 7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드라마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콘서트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6월 4일(수)~9월 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에저또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10년동안 한사람을 그리워해온 남자 태양과 10년동안 한사람을 마음만 품어온 여자 두나, 그리고 친구의 첫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두나의 소꿉친구 만식과 제니 등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 작, 작사, 작곡, 연출/김민

### 연극 쉬어매드니스

일 시 | 5월 22일(목)~6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관객들의 수사와 추리를 통해 매일 매일 살인사건의 범인이 달라지는 신개념 관객참여 폭소 추리극 '쉬어매드니스'. 정신없고 산만한 미용사 조지의 미용실 '쉬어매드니스'가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이 되면서 펼쳐지는 '쉬어매드니스'는 미용실에 있던 네 명의 배우가 용의자가 되고 목격자인 관객들은 형사들과 함께 범인을 잡기위해 사건을 되짚어 나간다. 파헤치려는 관객과 숨기려는 배우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배우들의 애드리브와 함께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한다.  
• 연출/변정주, 정태민

### 시나위 공연기획단 오셀로

일 시 | 6월 5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예매처 할인 50%)  
문 의 | 시나위 공연기획단 010-3556-7308 070-8612-5244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고귀하고 용맹스러운 장군 오셀로가 아내에 대한 의심과 스스로 만들어 낸 상상에 의해, 혹은 자기 자신의 정의감에 대한 과도한 믿음에 의해 형편없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오셀로'.

부산연극제에서 4번이나 연출상을 수상한 시나위의 대표연출가 오정국이 연출을 맡고 중견배우 류상훈과 박상규가 주인공 오셀로와 이아고 역을 맡아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원작/셰익스피어 • 각색/김지숙  
• 연출/오정국  
• 출연/류상훈, 박상규, 최현경, 김하린, 오영섭, 엄준필, 박재현

### 연극 리틀 말콤

일 시 | 6월 3일(화)~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SM기획 1600-1602

미술대학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열정의 방향, 그리고 소영웅주의를 풍자한 연극 '리틀 말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불신,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감, 뜨거운 정열 등 대학생들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 원작/데이빗 홀리웰

### 공포호러연극 2014 두여자

일 시 | 6월 4일(수)~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록우산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SM기획 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 버블매직쇼-부산

일 시 | 6월 6일(금요일) 오후 1:00, 3:0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 1만 2천원)  
문 의 | 극단 파랑새 1544-2486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과 버블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버블매직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비누방울 세계와 눈을 땔 수 없는 진귀한 마술세계가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프로그램|

매직쇼/비둘기마술, 카드마술, 봉마술, LEO마술, 화이어마술, 순간이동마술 버블쇼/맨손버블쇼, 밧줄버블쇼, 도너츠만들기, 비누방울 탁구치기, 도구로 큰비누방울 만들기, 해파리 만들기, UFO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비누방울 휘날레



## 극단 전위무대 제106회 정기공연 용띠위에 개띠

일 시 | 6월 6일(금)~1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76년생 용띠 나용두와 82년생 개띠 지견숙이 펼쳐는 별난 부부의 결혼이야기 '용띠위에 개띠'. 1997년 초연 이후 3천여회 공연, 30만명이상이 관람한 연극 '용띠위에 개띠'는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신혼, 출산, 결별, 재결합 등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기로 시작되어 내기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인연과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준다.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 출연/김진욱, 이민영

## 연극 울동네 합창단

일 시 | 6월 11일(수)~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의 | SM기획 1600-1602



목소리 큰 거 빼 놓고는 내세울게 없던 오지마을 중의 오지 '강촌마을'이 합창마을로 지정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연극 '울동네 합창단'. 취재를 위해 VJ가 찾아오면서 6명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합창연습에 들어가고 보다 자극적인 장면들을 요구하는 VJ에 의해 마을사람들간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한다. '울동네 합창단'은 자신들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일 시 | 6월 12일(목)~7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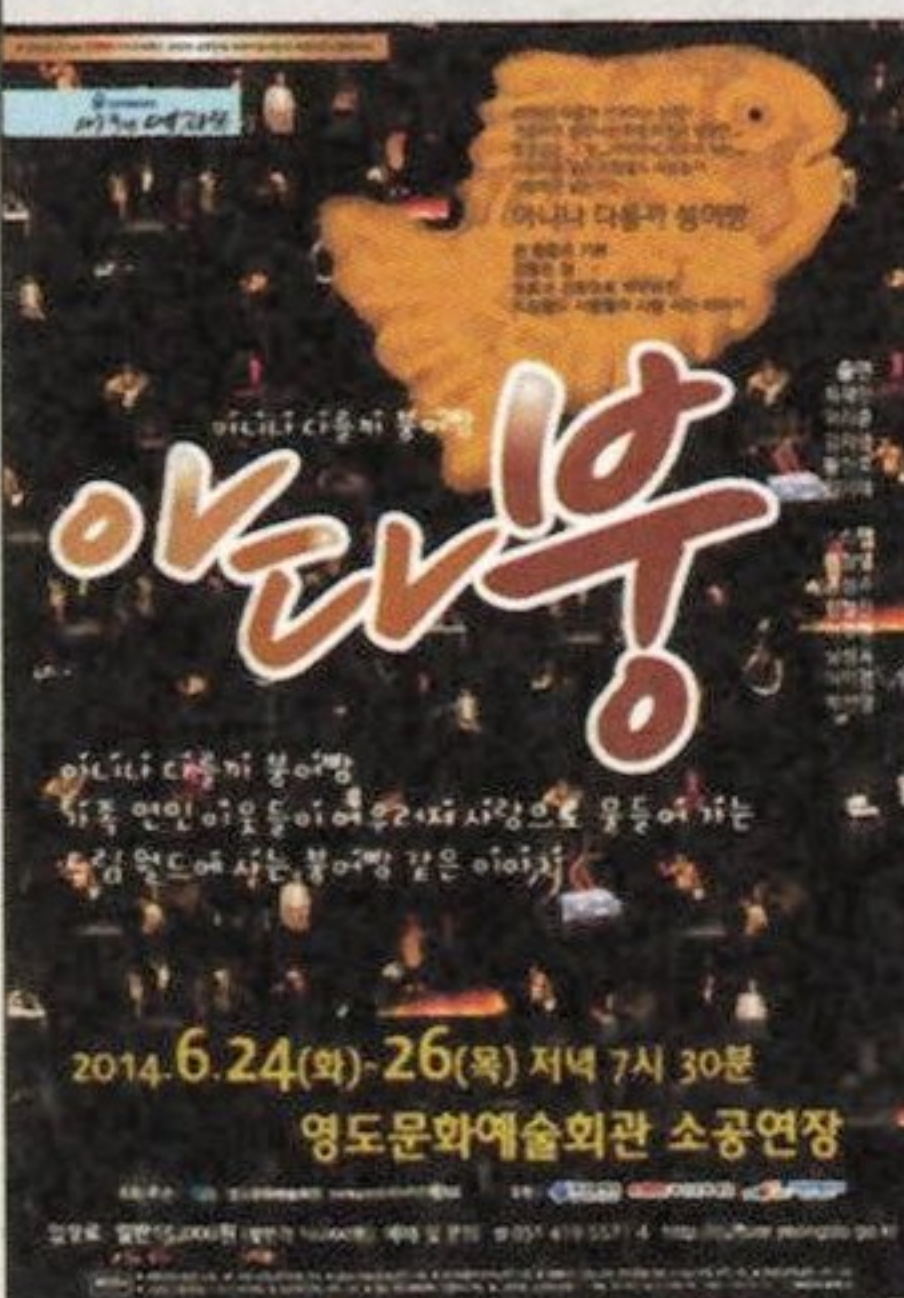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기 위한 '썸타는' 커플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부산공연. 미워할 수 없는 천방지축 사고뭉치 준희가 2년간 짝사랑해 온 차도남 차명석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연애킨

설파팅 업체에 의뢰하면서 펼쳐지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로맨틱 코미디다운 톡톡 튀는 대사와 허를 찌르는 웃음코드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출연/변아로미, 차승연, 문성운, 이진실

## 극단 에저또 아니나 다를까 붕어빵

일 시 | 6월 24일~26일 화~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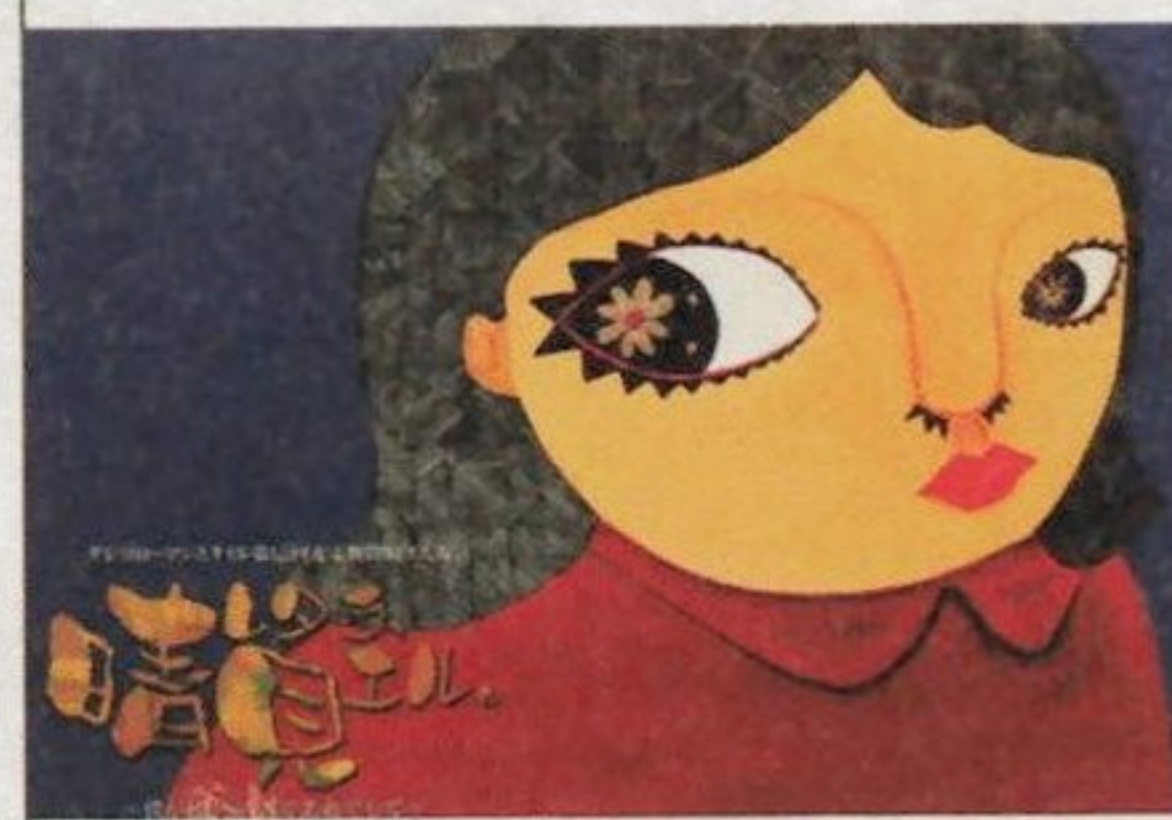


들여다보면 붕어빵처럼 닮은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극단 에저또 창작극 '아니나 다를까 붕어빵'. 자신을 낳고 도망간 아버지를 18년만에 만나게 된 사고뭉치 주인공 비즈를 통해 고달픈 삶 속에서도 가족, 연인, 이웃의 응원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 속에 펼쳐진다.

- 출연/최재민, 이지훈, 김지연, 황진호, 김기태

## 연극 맑으면 보여

(원제: 晴シタラ見エル。~ぼくがBUSANであれでして~)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9일 일요일 오후 3:00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15세관람가)  
문의 |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 469-1978



부산-후쿠오카 두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행정을 중심으로 발족된 후 서로의 도시를 오가며 문화를 교류하는 '왔다갔다 페스티벌' 2014년 사전협력 작업으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배우 강민지와 일본 후쿠오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그레코로만스타일이 공동 제작한 무대. 부산공연에 앞서 6월 20일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오카 니시테츠홀에서 먼저 무대에 오른다.

- 연출, 작/야마시타 아키라(극단 그레코로만스타일, 일본 후쿠오카)
- 출연/강민지, 야마시타 아키라, 나카야마 다이ске, 니하시 야스히로, 이케다 세이카, 츠보요코, 후쿠자와 키와무, 마츠오카 신야, 이자키 유키오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일 시 | 6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3: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학생 30% 할인)  
문의 | 쇼비보이(주) 1599-9727



아름다운 발레와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가 조화를 이룬 난버벌 퍼포먼스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첫눈에 비보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발레리나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비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화려한 브레이크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7년 영국 에딘버러 프렌치 페스티벌 2,050개 참가작 중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50회 장기공연을 가진데 이어 지금까지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다.

- 기획, 극본, 연출, 예술총감독/최윤엽



프로그램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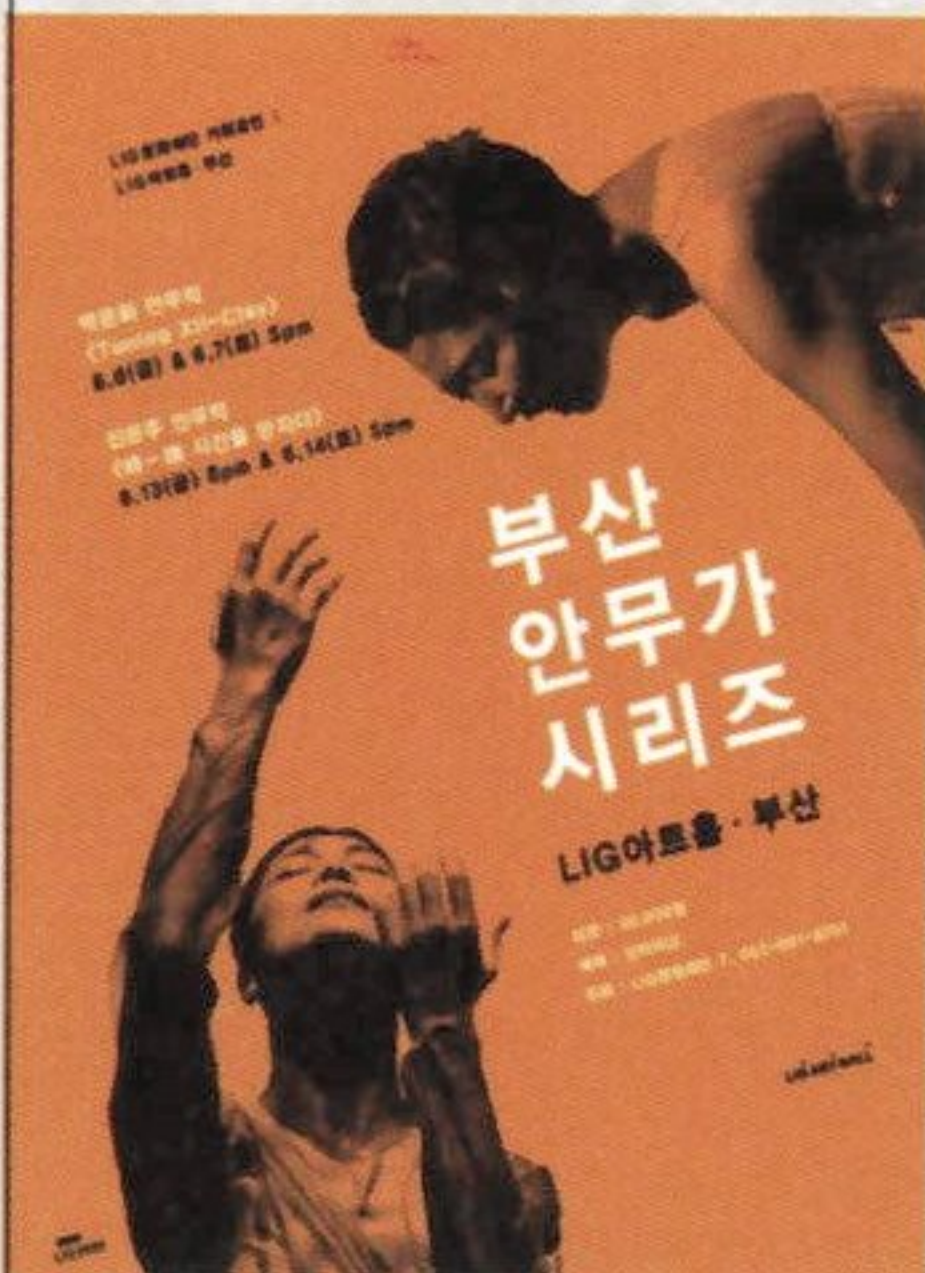
무용

LIG아트홀 부산 안무가 시리즈

일 시 | 6월 6일(금)-7일(토), 13일(금)-14일(토),  
오후 5:00 LIG아트홀 ·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LIG아트홀 661-8701



LIG아트홀이 부산 지역 안무가들에게 자신만의 춤기법을 담은 작품의 제작기회를 제공해 우수 레퍼토리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 안무가 시리즈' 첫번째 무대로 박은화와 신은주의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6일-7일

박은화 안무작 'Tuning XII-Clay'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움직임 발견하고, 일상에서 대면하는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채로운 춤의 언어로 선보여온 안무가 박은화의 'Tuning' 시리즈 12번째 작품. 자연에서 가져온 '흙'이라는 주제를 통

해 생명력과 조화로움, 창조성을 안무가 특유의 춤사위로 풀어냈다.

- 안무/박은화
- 출연/박은화, 안선희, 조현배, 이연주

13일-14일

신은주 안무작 '時-撫 시간을 만지다'

전통 춤사위의 재해석과 새로운 춤 이미지 창조, 특유의 격렬한 에너지로 주목 받아온 안무가 신은주는 이번 무대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함, 생경한 감각을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낸 신작 '時-撫 시간을 만지다'를 선보인다.

- 안무/신은주
- 출연/신은주, 수미 마사유키, 김근영, 김도은, 김현정, 박병철, 손영일, 장정희, 최지원



2014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연(緣)-Timeless Love

일 시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대극장

17일 화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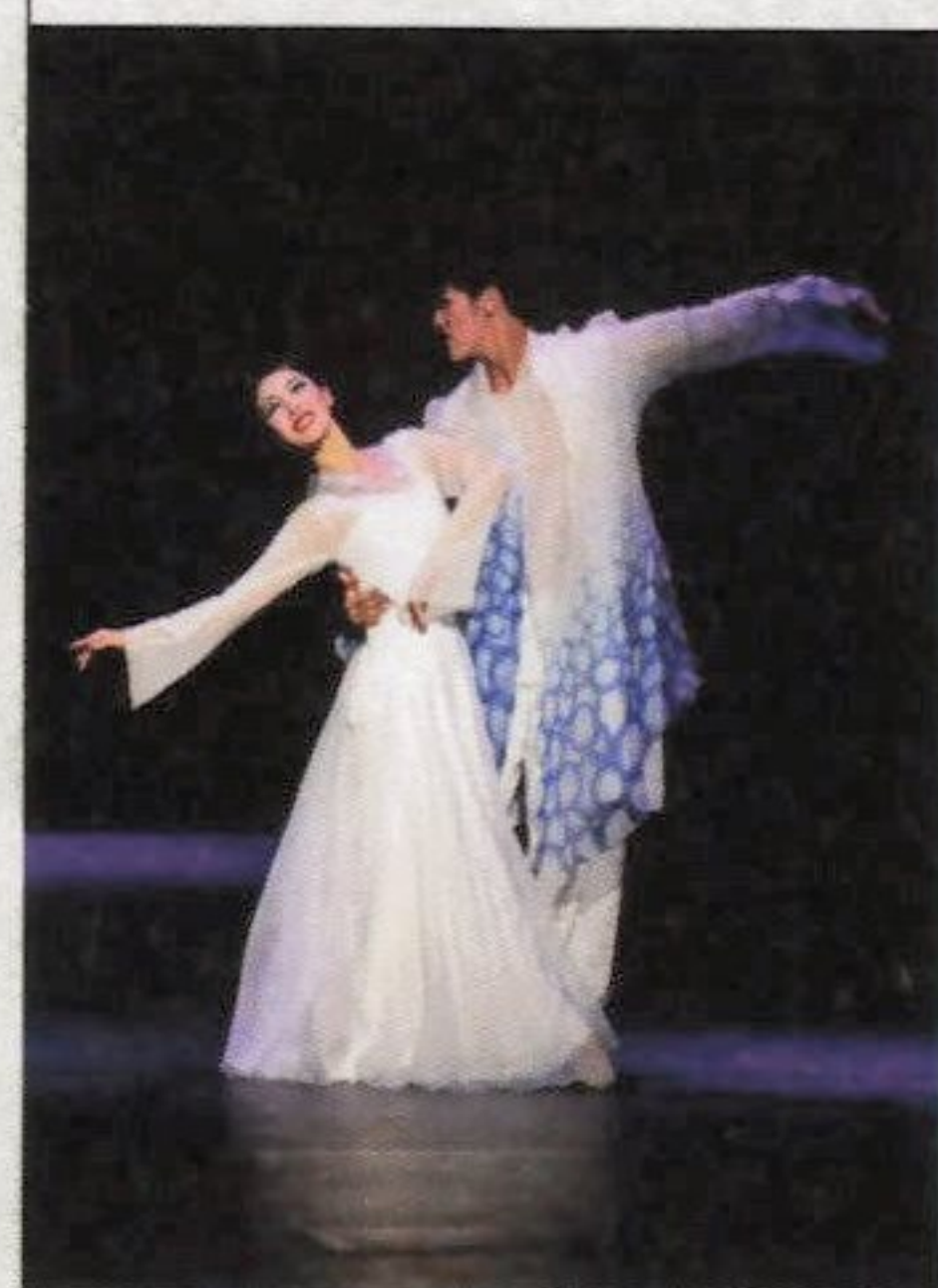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



부산시립무용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창작춤인 '연(緣)-Timeless Love'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리움과 애절한 사랑을 그린 고전소설 '이생규장전'을 소재로, 인간사

최대의 화두인 '사랑'을 춤극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프로그램|

제1장 운명적 만남/제2장 무르익는 사랑  
제3장 전쟁과 이별/제4장 인연의 환(環)

- 안무/홍경희
- 대본/이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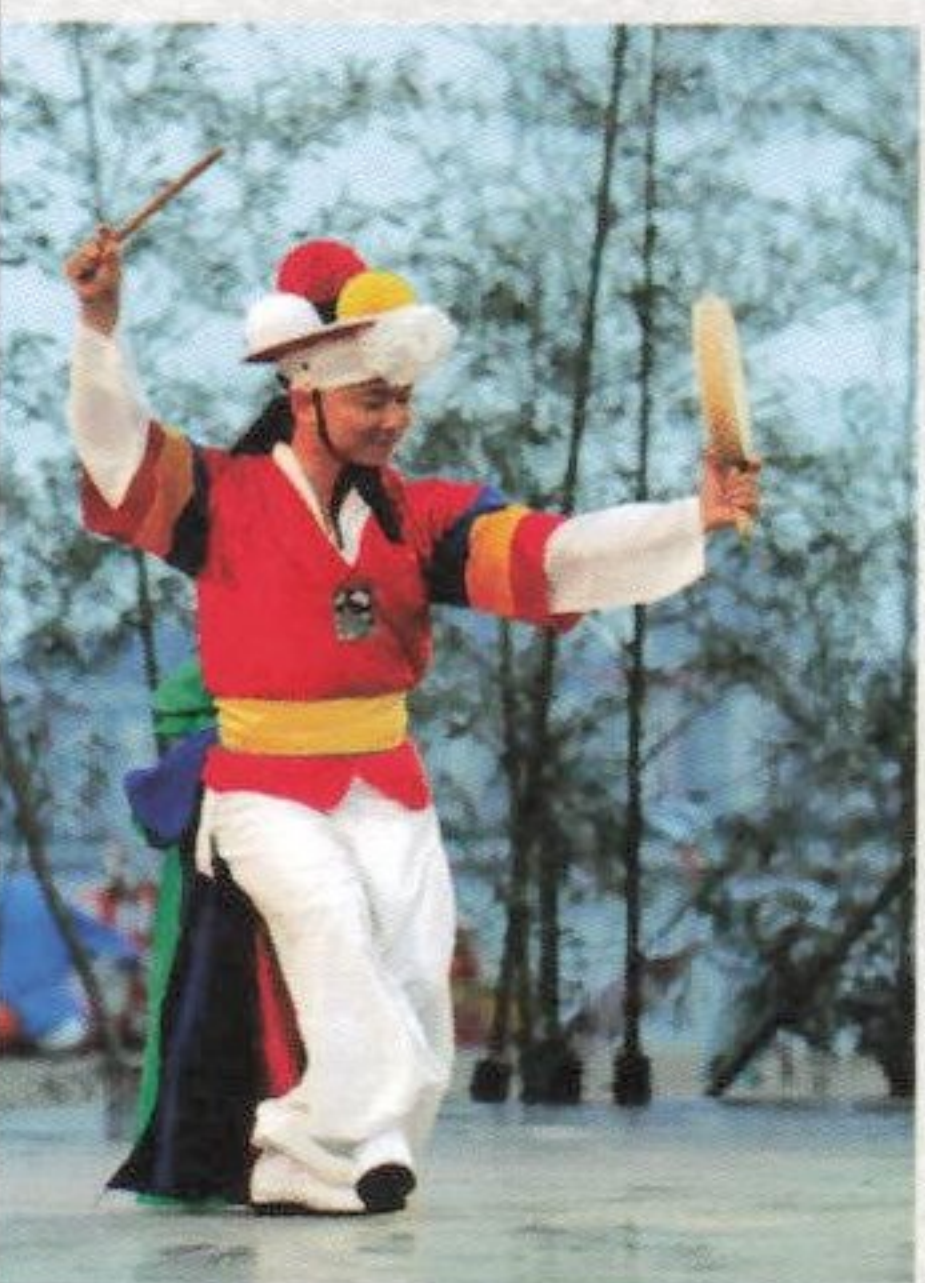
제11회 춤추는 남자들 전통춤판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춤추는 남자들 010-6711-3922



남자 춤꾼들의 강렬한 몸짓을 확인할 수 있는 '춤추는 남자들' 2014년 무대.

지난 2003년 남성 춤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무가로서, 무용가로서 그들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획된 '춤추는 남자들'은 그동안 세대와 장르를 넘

나들며 다양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처용무(이진호), 삼도 고깔소고춤(류재철), 탈. 짓. 굿(황해순), 통영 문동북춤(이강용), 양반춤(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승무(최병재), 허튼 덧배기춤(남기성)

- 연주/오상훈(태평소), 문학중(쟁과리), 김한준(장구), 이수진(징), 권용우(북)
- 연출/김미현

동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PLAN-Co.

#1. '소리, 소문도 없이'

일 시 | 6월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 ·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LIG아트홀 661-8701

한국과 일본의 항구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의 예술가들의 협업무대인 '소리, 소문도 없이'는 국경,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공동 리서치 프로젝트로, 무용과 연극, 음악, 미술,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한일 양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일상 속에 떠돌고 있는 소문과 일반인들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사실 등을 함께 조사해 공연과 포럼의 다양한 형태로 공개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현대무용 안무가 네지 피진(Pijin Neji)이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다.

- 공동창작/네지 피진(안무), 남지웅(영상), 김일두(음악), 안선희, 김동석, 김초슬(무용) 외



영화

2014 KAFA ROADSHOW in Busan

일 시 | 6월 2일-3일 월-화요일

영화의전당 소극장(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제작된 우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2014 KAFA ROADSHOW in Busan.

2014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일 시 | 6월 11일, 18일, 25일 수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 6/11일 그대를 사랑합니다(감독/추창민)
- 6/18일 미드나잇 인 파리(감독/우디 앨런)
- 6/25일 베른의 기적(감독/손케 브르트만)



## 아랍영화제

일 시 | 6월 20일(금)-26일(목)  
 영화의전당 소극장(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  
 영화에서 그려지는 아랍의 모습과 아랍인들의 삶을 통해 아랍 문화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최되는 아랍영화제.

|상영작|

When Monaliza Smiled(요르단), Thursday afternoon(튀니지), Omar(팔레스타인), My Sweet pepper Land(쿠르드) 등

## 2014 시네프랑스

일 시 | 6월 26일(목)-28일(토)  
 영화의전당 소극장(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일반 6천원, 청소년 4천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  
 프랑스로 떠나는 영화여행 2014 시네프랑스. '레아 세이두(Lea Seydoux)'라는 테마로, 배우 레아 세이두가 출연한 영화 '미녀와 야수',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시스터'를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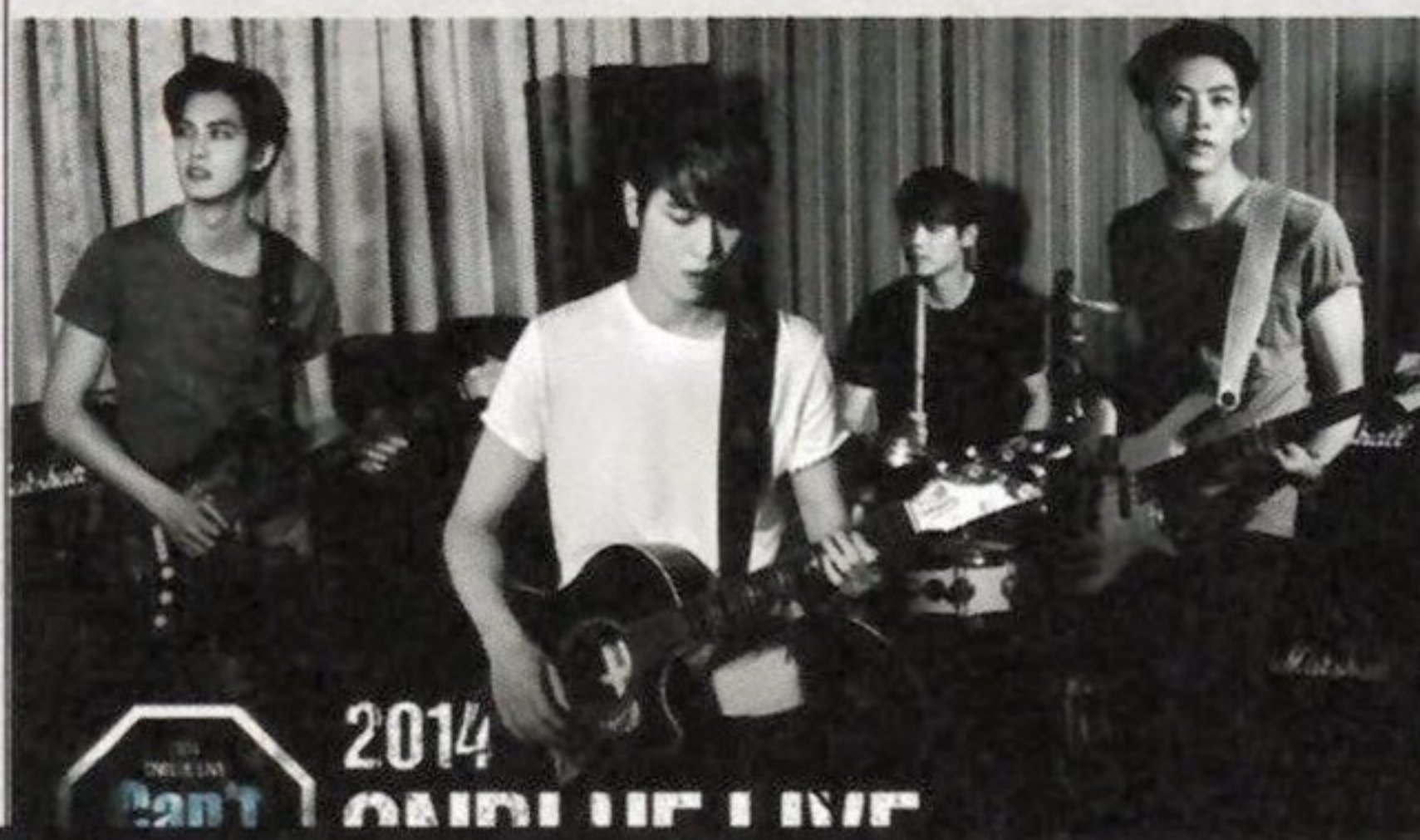
## 콘서트

### 2014 김경호 2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青年, 김경호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9만 9천원,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문 의 | SW엔터테인먼트 1588-3154

### 2014 CNBLUE LIVE 'Can't Stop'

일 시 | 6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지정석, 스탠딩 R석 9만 9천원  
 지정석 S석 8만 8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  
 원 지정석 S석에 한해서만 10% 할인)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 행사

###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6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무지크바움에서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 조르디 사발, 바흐 B 단조 미사, 2011 풍쁘르와 페스티벌 공연실황
- 찰리 헤이든, 다큐멘터리와 대표음반, 2003 브르 크하우젠 듀오공연(팻 메스니)
- 바비 맥퍼린, 2013 알파 재즈페스티벌 등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2014 호국보훈의 달 추념 시마당 제132회 시낭송대회

일 시 | 6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 전시

### 명화를 만나다\_한국근현대회화 100선

일 시 | 4월 8일(화)-7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임상빈展 'Antarctica-남극대륙'

일 시 | 4월 15일(화)-6월 9일(월)  
 서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서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 박영학展 'Beyond the scenery 풍경너머'

일 시 | 5월 7일(수)-6월 5일(목)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 Sehen Zen 시선視禪

일 시 | 5월 10일(토)-7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3924

### 우양자 초대전

일 시 | 5월 14일(수)-6월 14일(토)  
 갤러리 324  
 문 의 | 갤러리 324 314-0032

### 동상이몽(東上異夢)전

일 시 | 5월 17일(토)-6월 16일(월)  
 예술지구 P 제1 전시장  
 문 의 | 사진미디어공간 포톤 070-4322-3708

...  
 부산을 연고지로 작업하는 사진작가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지역사진계의 젊은층과 허리층의 작가들을 발굴, 재조명하기 위해 모인 '포톤'의 출발을 알리는 기획전.  
 '부산'을 주제로 다양한 담론과 표현방법으로 작업하는 작가 뿌리야 김, 송성진, 이동근, 이순행, 이인미, 화덕현의 작품이 전시된다.



뿌리야김작 중층적 재현-산복도로, 그 신화적 공간

### 한국 도자 문화의 꽃展

일 시 | 5월 23일(금)-6월 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900년대 제작된 당대 최고의 도자기 무형문화재와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도자사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전시.

### 설파 안창수 작품전 '수묵에 취하다'

일 시 | 6월 9일(월)-6월 15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 팝&파티展 -마리킴, 찰스장, 김지평, 김태중

일 시 | 6월 11일(수)-6월 30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문 의 | 사진미디어공간 포톤 070-4322-3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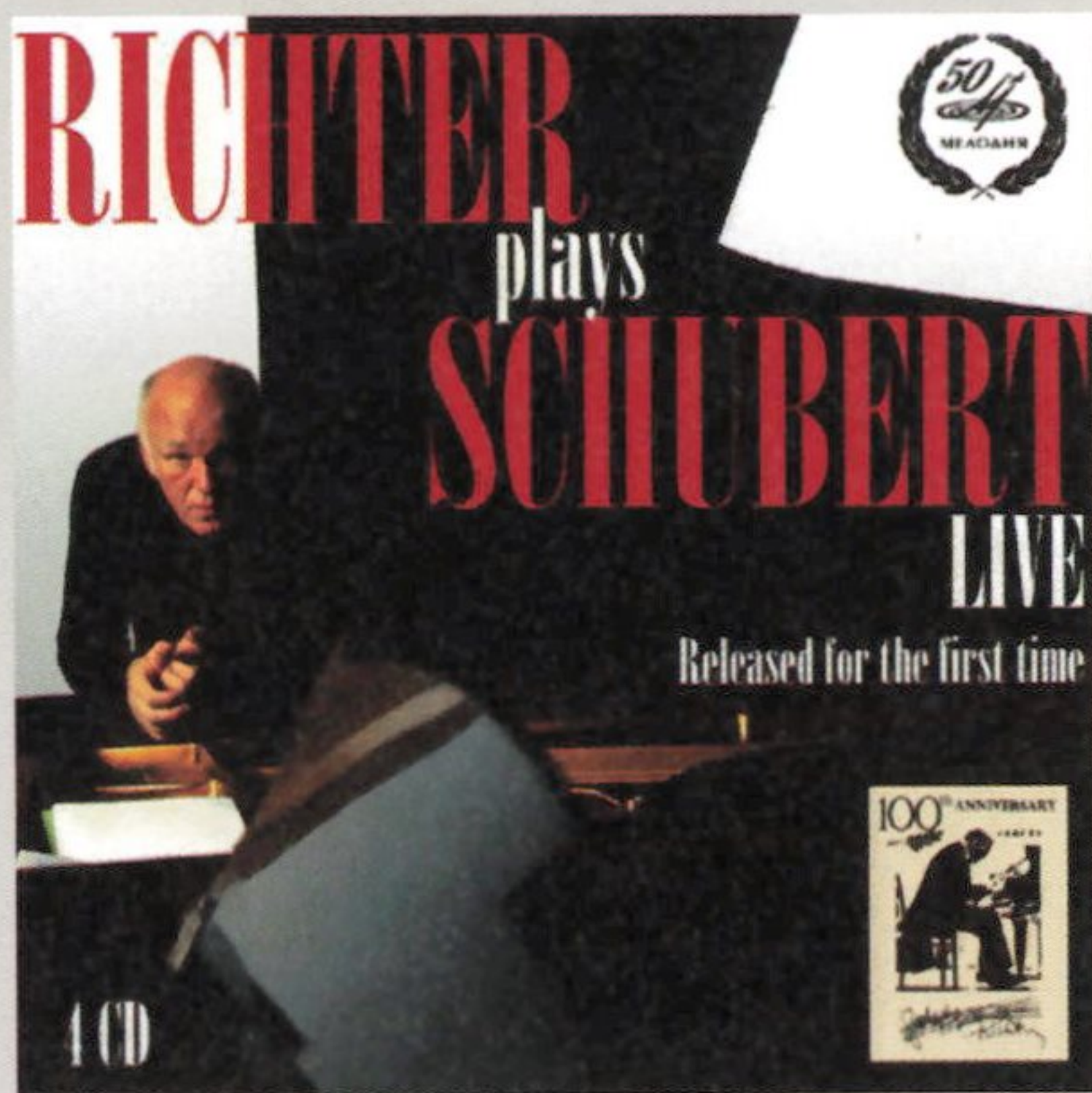
...  
 마리킴, 찰스장, 김지평, 김태중 등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팝아티스트들의 작품과 도자기 아트상품을 만날 수 있는 팝&파티展.

### 강홍윤 판화모음전 나의 예술혼을 일깨우다

일 시 | 6월 16일(월)-6월 25일(수)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 New Album... GM뮤직 제공



### ❖ 리히터가 연주하는 슈베르트 (최초 발매) (4CD)

스미아토슬라프 리히터(피아노)

#### ▶ 2015년 리히터 탄생 100주년 기념 발매음반

최초로 공개되는 실황 녹음으로, 1970년대 모스크바 음악원 그랜드 홀에서 이루어진 연주를 모은 4CD 박스. 1978년 5월 2일 네이가우스 탄생 90주년 기념 콘서트, 같은 해 10월 18일 슈베르트 서거 150주년 콘서트, 그리고 1971년과 1979년의 연주 실황을 수록하였다. 리히터의 슈베르트는 정평이 높는데, 평소 슈베르트 작품을 좋아하지 않던 글렌 굴드가 리히터의 연주를 듣고 슈베르트 음악의 진가를 발견하였다고 고백하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작품의 본질을 관통하여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드라마틱한 연주로, 최고로 매력적인 슈베르트를 만날 수 있다.



BRUCKNER  
Symphony No. 8  
Christian Thielemann  
Staatskapelle Dres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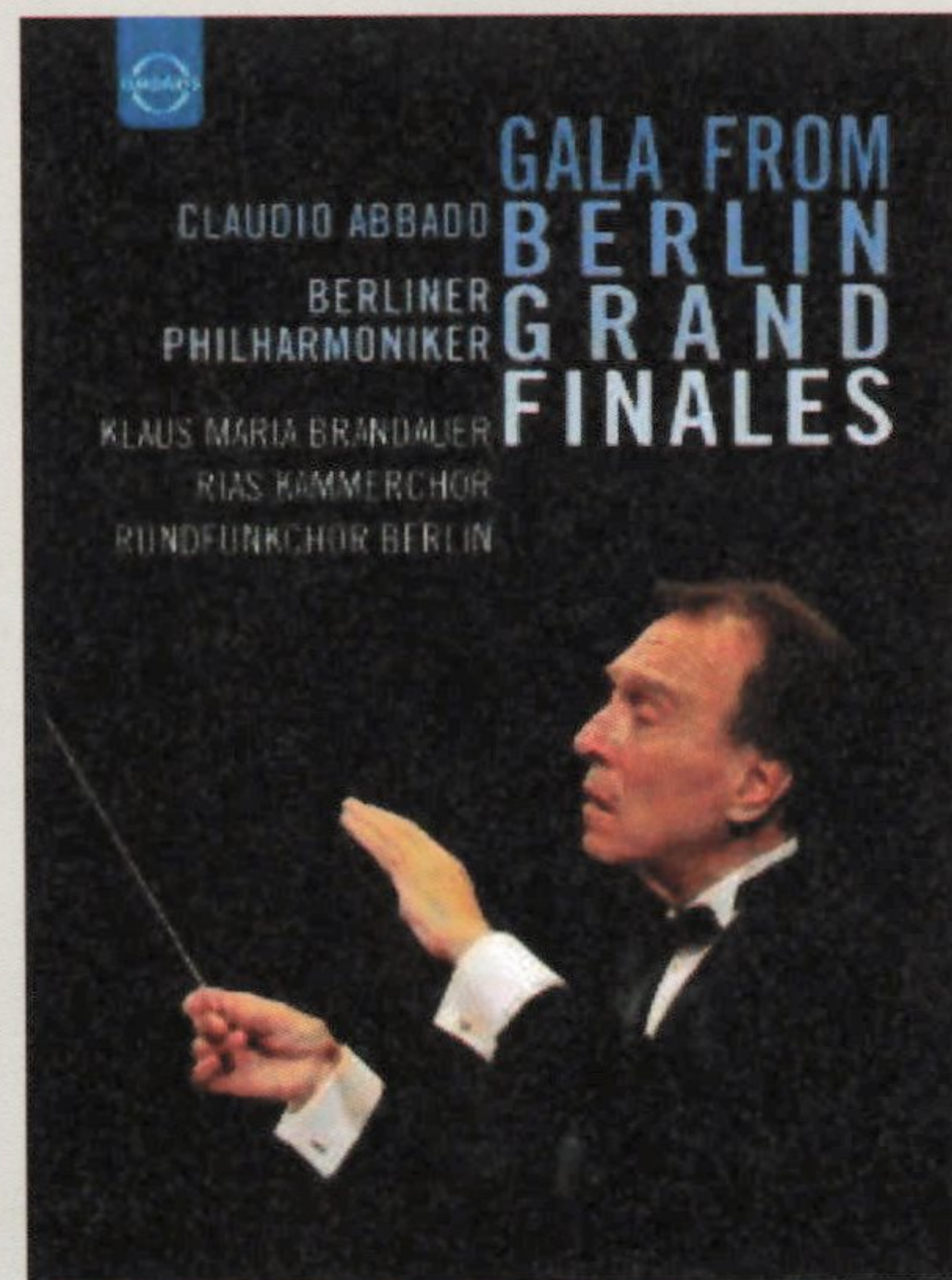
The Bruckner Symphonies

###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크ристи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연주)

#### ▶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의 브루크너 교향곡 8번

크ристи안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에게 있어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은 의미심장한 작품임에 분명하다. 틸레만이 이 교향곡을 객원 지휘했었던 2009년 9월 14일의 콘서트가 이후 그를 자신들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했던 악단의 최종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는 공식 취임식의 몇 달 전인 2012년 6월 10일에도 이 거대한 스케일의 교향곡을 또 다시 무대에 올렸다. 청중들의 열렬한 갈채를 이끌어내었던 이날의 연주실황이 C Major가 자랑하는 최고 사양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2012년 9월 1일, 틸레만의 취임콘서트에서 연주되었던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은 OpusArte 레이블을 통해 이미 발매되었다.) 교향곡 8번은 교향곡 역사상 가장 웅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거작의 하나로, 혹자는 이를 두고 브루크너 교향곡의 에베레스트라고 칭하기도 했다. 틸레만 특유의 장중한 스케일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의 온기와 중량감을 겸비한 사운드는 이 거작의 위용과 심원한 감동을 당당하게 증명해준다.



### ❖ 그랜드 피날레-1999년 베를린 필하모니커 송년음악회

클라우스 브랜다우어(나레이션)/ 베를린 방송합창단(합창)/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베를린 필하모니커(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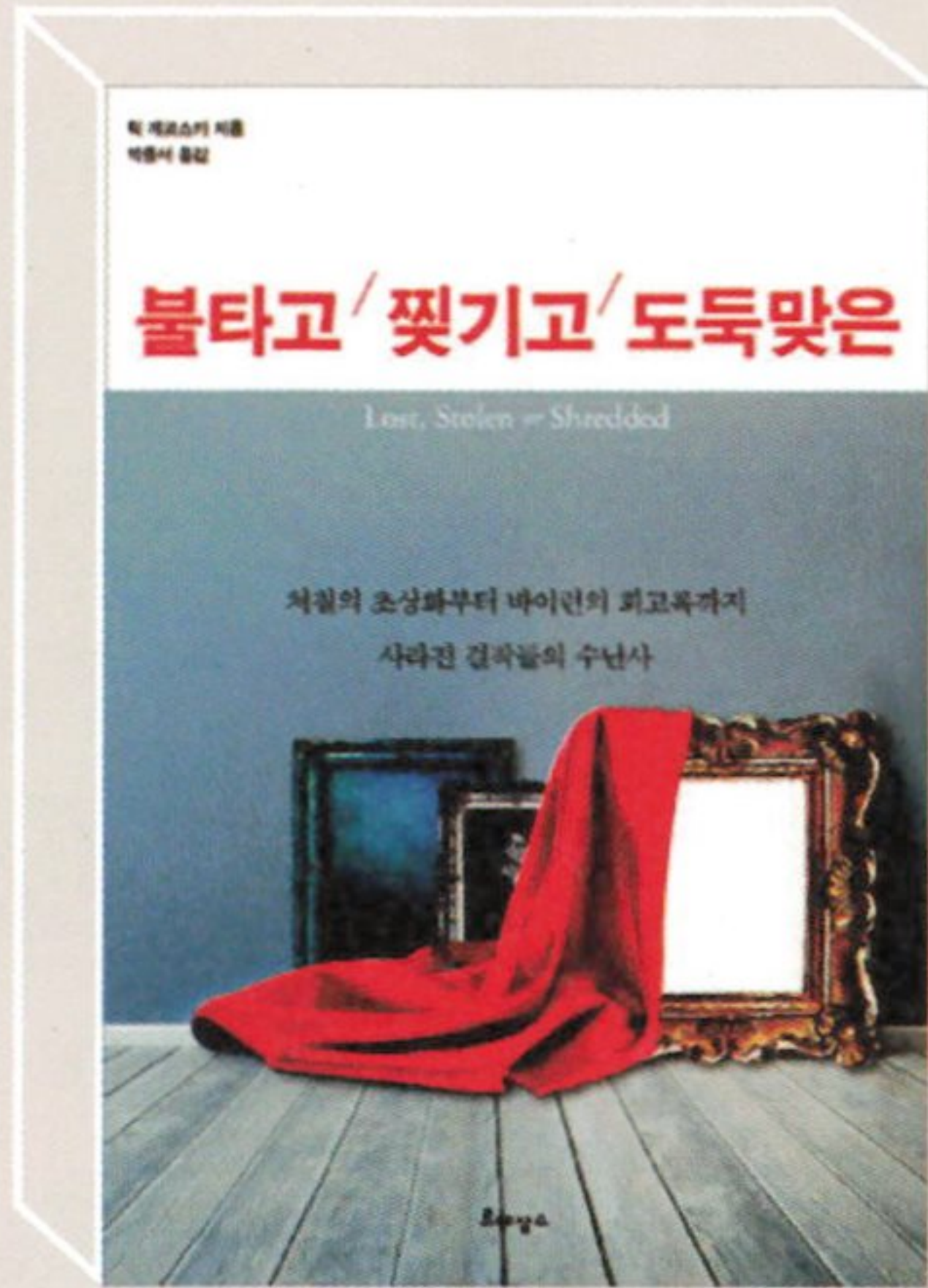
#### ▶ 새천년에 대한 기대를 화려하게 담았던 베를린 필의 1999년 송년음악회

뉴 밀레니움에 대한 기대로 전 세계가 흥분했던 1999년 12월 31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끌던 베를린 필 역시 특별한 분위기의 송년음악회로 이 대열에 동참하였다. 전반부는 1천 년대의 마지막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말러의 교향곡 5번, 스트라빈스키와 라벨의 발레 대단원과 같은 명곡들의 피날레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RIAS합창단과 베를린 방송합창단이 참여한 프로코피에프의 '알렉산더 네프스키'와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의 피날레는 이 연주회의 장엄함을 배가시킨다. 새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떠들썩한 환영식으로 꾸며진 후반부는 린케의 오페레타에 삽입된 서곡과 행진곡들, 트란슬라토이어의 '스포츠광장 왈츠', 피셔의 '스파클링 샴페인', 니콜라이의 <원저의 유쾌한 미망인들> 서곡과 같은 흥겨운 음악들로 꾸며졌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도 출연했던 영화배우 클라우스 마리아 브랜다우어가 '구레의 노래'의 마지막 낭송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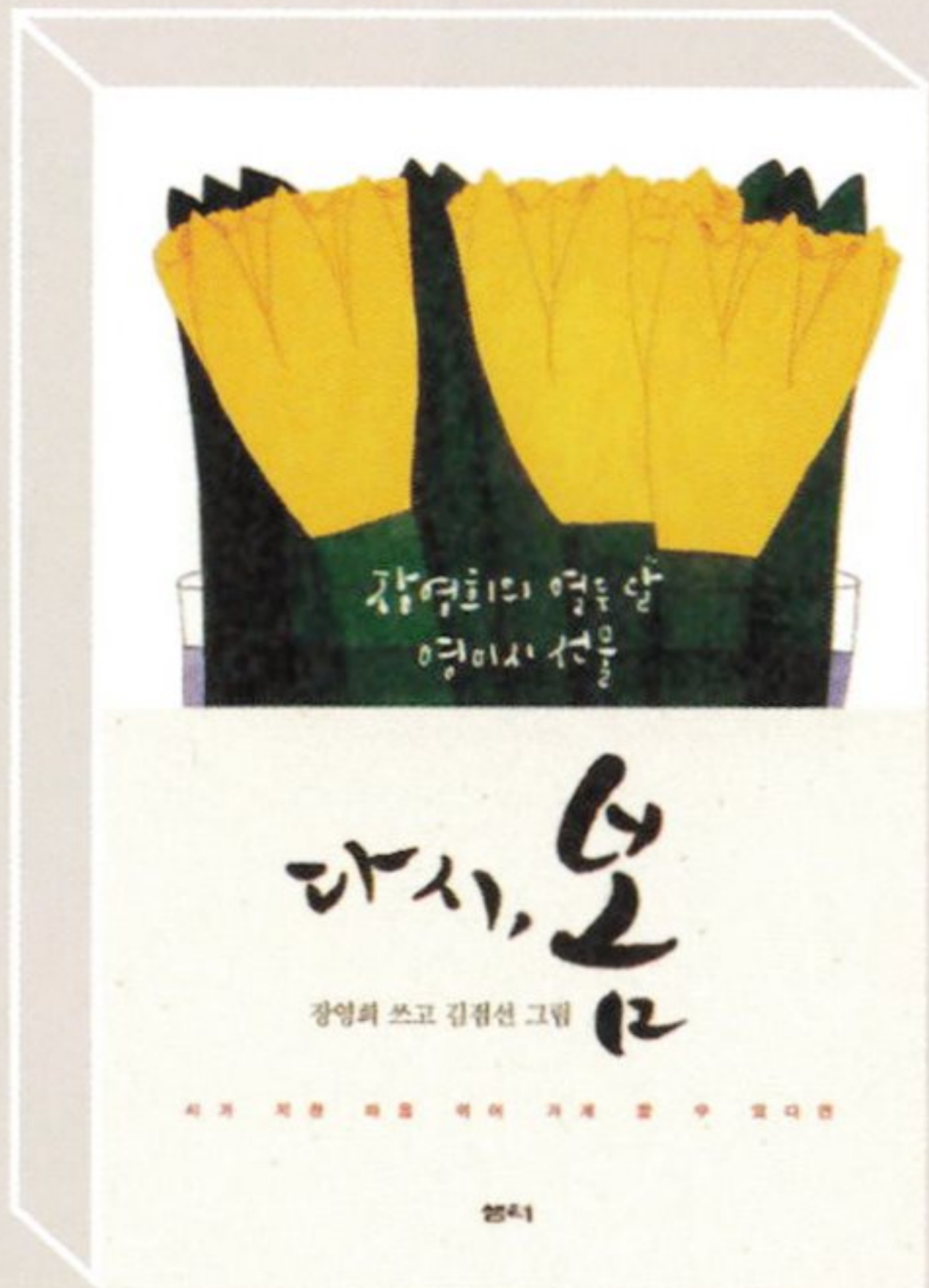


❖ 불타고 찢기고 도둑맞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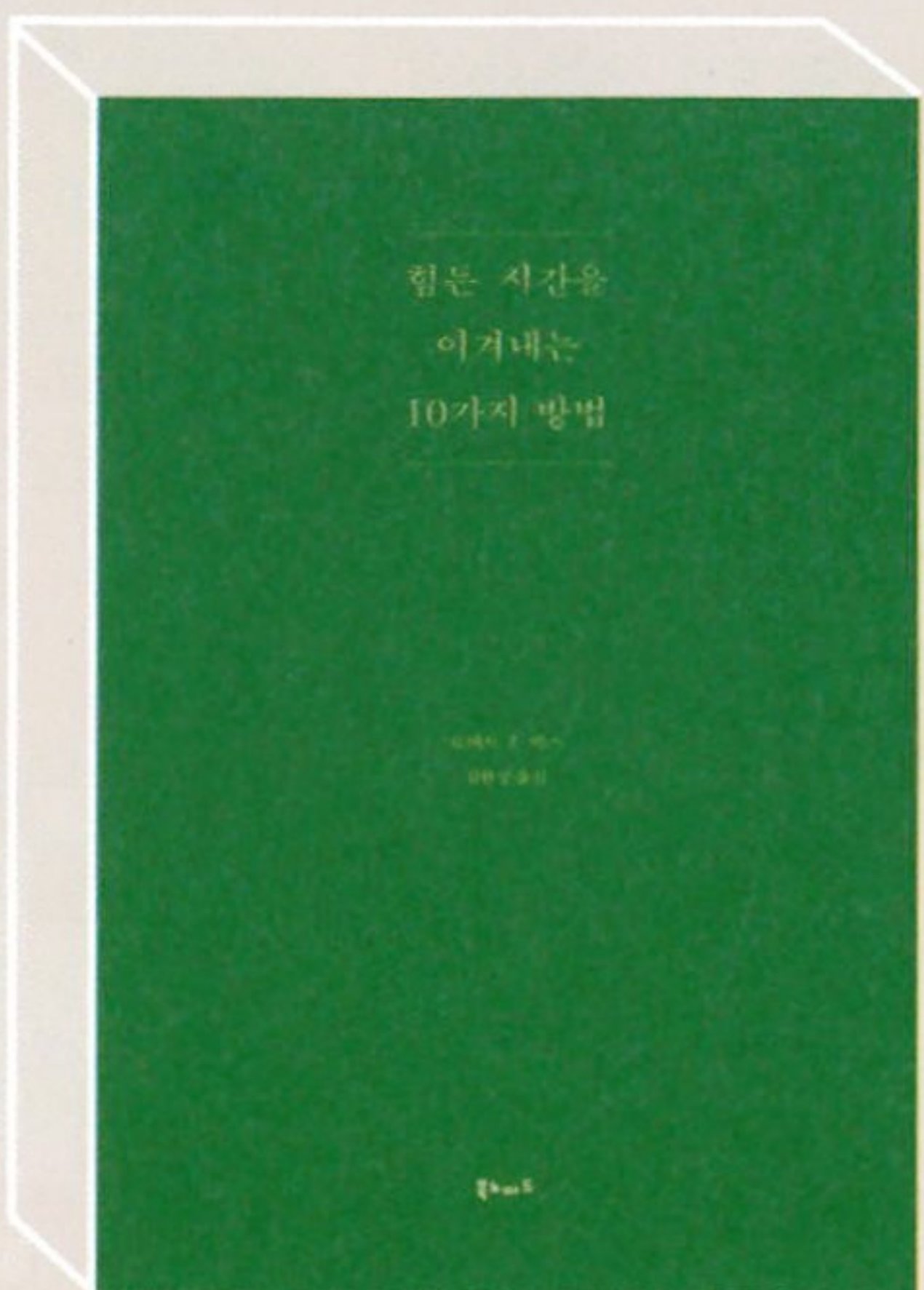
릭 게코스키 지음, 박중서 옮김 / 르네상스 / 332p / 각 1만 7천 원  
 젊음과 반항의 낭만주의자 시인 바이런의 회고록은 출간된 적이 없지만, 그의 회고록은 어떤 작품보다도 유명하다. 바이런이 죽고 난 후, 회고록 원고를 보관하고 있던 출판인 존 머레이는 바이런의 유족과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 원고를 여러 증인 앞에서 벽난로에 집어넣어 불태워 버렸다. 바이런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색에 탐닉했던 바이런이 남긴 회고록 안에 어떤 나쁜 스캔들이 실려 있을지 추측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프란츠 카프카는 죽기 전에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이 쓴 일기, 원고, 편지, 작품 등을 전부 불태워 버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브로트는 카프카의 요청을 무시하고 10년 동안 원고를 정리해 책으로 출간했다. 그 결과 카프카의 작품 <소송> <성> <아메리카> 등이 무사히 간행될 수 있었다. 제목 그대로 불타 없어졌거나, 도둑맞았거나, 무사히 살아남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저자 릭 게코스키는 옥스포드대학 영문학 박사 출신으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희귀 초판본 거래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이색적인 인물이다.

❖ 다시, 봄



장영희 글, 김정선 그림 / 샘터 / 171p / 1만 2천 원  
 “1월에서 12월까지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시들을 소리 내어 읽노라니 금방이라도 밝고 유쾌한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미소 짓게 됩니다. 책 사이사이 글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김정선 화가의 그림은 또 얼마나 밝고 멋진지요! 이 책은 장영희와 김정선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함께 보내는 봄 편지, 희망과 위로의 러브레터입니다.” 이해인 수녀의 추천사가 간결하고도 아름답다. 故 장영희 교수의 5주기를 맞아, 한 일간지에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120편의 칼럼 중 계절에 관한 시 29편을 담아 엮은 책이 나왔다. 故 김정선 화가의 그림은 시편 사이사이에 자리 잡았다. 장영희 교수와 김정선 화가는 투병 생활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김정선 화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49재 날에 장영희 교수도 세상을 떠났다. 나란히 봄에 떠난 두 사람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 돌아왔다. 이 책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와 그림들이 담겼다. ‘되돌릴 수 없는 청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내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의 계절에 충실하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한다.

❖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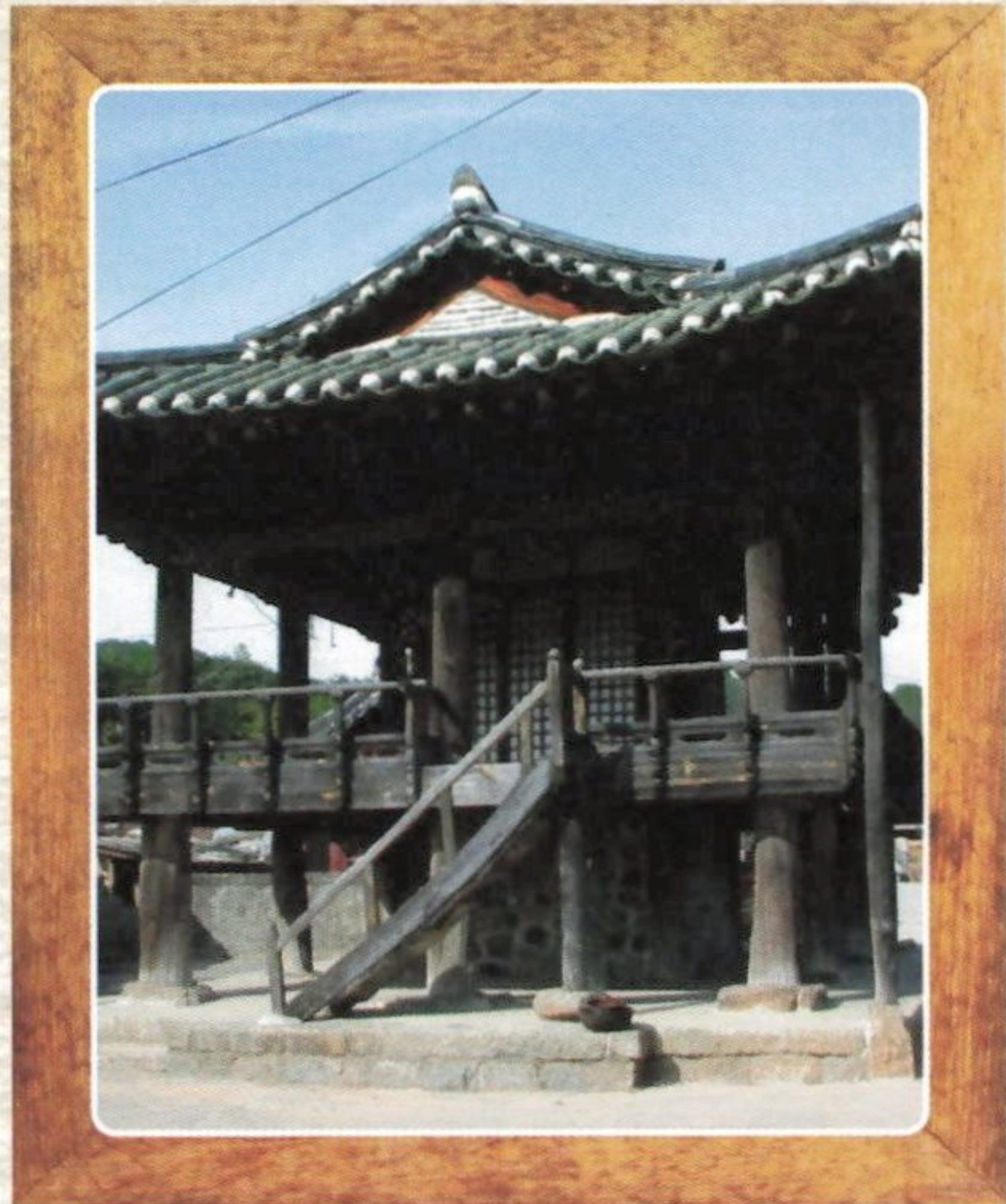


로버트 J. 워스 지음, 김현정 옮김 / 북노마드 / 196p / 1만 2천 5백 원  
 심리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온 로버트 J. 워스 교수가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10가지 방법을 다양한 일화와 함께 소개했다. 일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로, 5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스테디셀러 <Riding the Dragon(원제)>의 개정판이다. 한쪽이 무거워지면 움직이지 않는 시소처럼, ‘남(타인)’과 ‘나(자신)’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맞추질 못해 멈추어버린 삶에 방향을 제시한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을 통해 타인과 자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 이 방법들은 결국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주는데, 삶의 시소 타기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이유가 대부분 지나치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10가지 방법의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되찾고, 타인의 감정과 기준을 위해 살아갔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잔가지를 쳐내자, 지나친 감정이입을 피하자, 냉철하면서도 친절하게 행동하자,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방법들은 결국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준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방초정

7월 11일(금)

## 천년 고찰 직지사를 품고있는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찬란한 문화유적과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천 여름 여행. 천년 고찰 직지사와 시와 음악이 실개천을 따라 흐르는 직지문화공원, 세계도자기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김천의 여름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직지사 탐방
- 11: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1:30 중식
- 13:00 직지문화공원, 백수문학관, 세계도자기박물관, 방초정 탐방
- 15:00 반곡포도마을 농촌체험
- 16:00 부산으로 출발

### 6월 당첨자

#### 엽서 신청하신 분

권정숙(남구 전포대로)	권호경(부산진구 마천로)	김강영(동래구 복천로)	김경숙(금정구 식물원로)
김명곤(남구 황령대로)	김재호(수영구 수영로)	송말남(연제구 명륜로)	이기희(금정구 남산로)
조은숙(양산시 평상10길)	정용수(사하구 낙동로)		

#### 신규 신청하신 분

강연조(남구 동명로)	강정미(남구 동명로)	김선미(금정구 서곡로)	김연수(남구 석포로)
김진선(금정구 금강로)	박미재(서구 충무대로)	박현숙(해운대구 재송2로)	여인화(기장군 차성서로)
정수경(동래구 쇠미로)	황선순(사하구 하신중앙로)		

※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5월 테마여행이 취소되면서 6월 테마여행은 6월 테마여행을 희망하는 5월 당첨자들과도 함께 합니다. 6월 테마여행에 응모해 주신 정기회원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마감일자 | 6월 16일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100회 기념

환경과 문화 융합 교육

# 환경과 문화가 함께 하는 **에코투어**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로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테마여행이 8월 100회를 맞습니다.

100회를 기념해 부산문화회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과 문화가 함께 하는 에코투어를 진행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에코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0월 10일

### 진해만 생태숲 탐방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진해만 생태 숲 체험, 편백천연비누 만들기, 엽서쓰기, 시립예술단과의 만남 숲속음악회, 사적 제291호 진해 우체국 방문, 엽서보내기



8월 8일

### 자연의보고 창녕 우포늪 자연생태교육

우포늪의 생태설명, 수생식물/나무 관찰-벌레 타면서 늪에서 신나게 놀기, 해설사와 함께 하는 우포늪 이야기, 시립예술단과의 만남-우포생태음악회



11월 14일

### 합천 정양늪 생명길

정양늪 생태전시관 관람, 습지의 생태 관찰-정양늪에 사는 동/식물 관찰, 생명길 탐방 정양늪 입구 주차장-황토휴길(왕복)-나무데크(왕복), 시립예술단과의 만남-시립무용단, 합천박물관, 옥천고분군 관람



9월 12일

### 영덕 블루로드길에서 배우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영덕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영덕의 명물 블루로드길 트레킹, 대계원조마을 어촌체험, 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월 12일

### 철새의 쉼터 을숙도

을숙도 철새 탐조, 탐사선 투어, 부산광역시 환경자원공원사업소(생곡매립장)-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아미산 전망대-낙동강하구의 지형, 지질 교육, 시립예술단과의 만남, 친환경 로션만들기



# NEWS

## ❖ 부산문화회관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성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뮤직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문화소외지역민들을 위한 문화나눔 활동을 위해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월 19일에는 부산문화회관과 환경부 지정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에 합의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100회를 기념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테마여행을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과 문화가 있는 에코 투어 프로그램으로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5월 19일에는 부산문화회관과 환경부 지정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에 합의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100회를 기념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테마여행을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과 문화가 있는 에코 투어 프로그램으로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 ❖ 찾아가는 예술단 6월 일정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6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을 맞아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념행사 특별 연주를 비롯해 2회의 시청로비콘서트, 2회의 꿈나무사랑심기 공연 등 총 8회의 공연이 열린다.

### | 일정 |

- 6월 6일(금) 10:00 중앙공원 충혼탑  
내사랑 부산공연 '제59회 현충일 추념행사'(출연/국악관현악단)
- 6월 11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 6월 20일(금) 15:00 지산고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지산고등학교 작은 음악회'(출연/합창단)
- 6월 25일(수) 10:00 부산시민회관  
내 사랑 부산 공연 '제64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출연/합창단)
- 6월 25일(수) 10:00 주례초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음악회'(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
- 6월 25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출연/무용단)
- 6월 25일(수) 17:30 부산박물관  
내 사랑 부산 공연 '역사와 함께 듣는 작은 음악회'(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
- 6월 26일(목) 14:30 문현금융단지  
내 사랑 부산 공연 '문현금융단지 조성 개막식'(출연/소년소녀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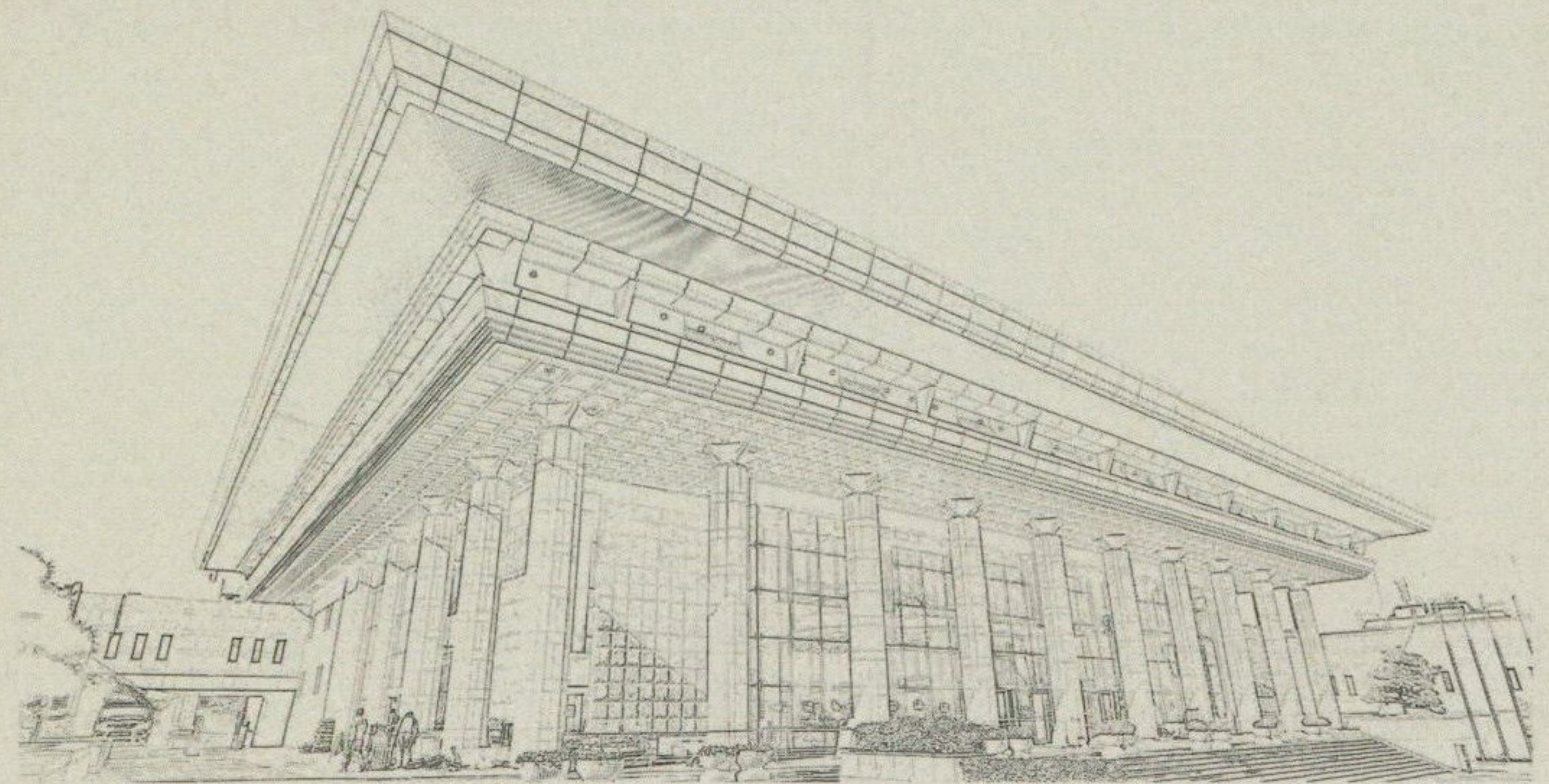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서면 메가박스 할인 제공

부산문화회관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메가박스 서면점과 연계, 2014년 12월까지 정기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기회원 카드소지자에 한하여 당일 현장에서 입장권 구입시 평일 3,000원(2매까지), 주말 공휴일에는 4,000원(2매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 부산시향 제7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 • 연주회 개요

| 일 시 | 2014. 9. 26(금) 19:3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연 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 모집 개요

| 응시자격 | 원서접수시 부산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인제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  
※ 단, 2011년 9월 (제6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 모집부문 | 피아노, 현·관·타악기 (협주 가능한 악기)  
| 모집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5~8명  
(초·중학생 1~7명 / 고·대학생 1~7명)

###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4. 7. 2(수) ~ 7. 9(수) 10:00~17:0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향 사무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사진 2매(3×4cm 동일사진, 원서부착용)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전형 개요

| 전형일시 | 2014. 7. 11(금) 10:00~18:00  
※ 세부일정 7. 10(목)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 장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전형과목 | 협주곡 단악장  
(자유곡 / 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 전 파트 반주자 대동

### • 기 타

| 합격자발표 | 2014. 7. 15(화)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T. 607-3111~4)  
※ 전형 과정에 학부모 등 참관 가능

## ❖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개 모집



부산의 문화를 이끌어온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지역 공연 예술분야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산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14. 5. 26(월) ~ 6. 11(수) 18:00까지  
※ 토·공휴일 제외

|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대극장(767석/1,403석)

| 모집부문 |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퓨전공연 등

| 신청자격 | 공연 기획사, 국립·민간 예술단체 등 (※지역제한 없음)

| 제출서류 |

- ▷ 기획공연 공모 작품 지원신청서(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 단체, 개인 공연 자료(공연프로그램·사진 등) 첨부
- ▷ 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방법 |

- ▶ 방문접수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공연과 기획공연 담당)
- ▶ 우편접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공연과 기획공연 담당)
- ▶ 이메일 접수 bsculture1@naver.com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7~8)

### • 결과 발표

2014년 7월중 개별통보

- ※ 발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 공연 세부 추진 사항(소요경비, 일정 등)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진행



# NEWS

## ❖ 독일을 감동시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4월 30일부터 12박 14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드레스덴과 할레 초청 연주길에 오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5회 드레스덴어린이합창페스티벌 폐막공연을 비롯해 제35회 할레어린이합창페스티벌 개막공연, 드레스덴국제공항, Martin-Luther-Kirche, Stadtmuseum Dresden 등에서 가진 총 8회의 공연을 통해 독일 음악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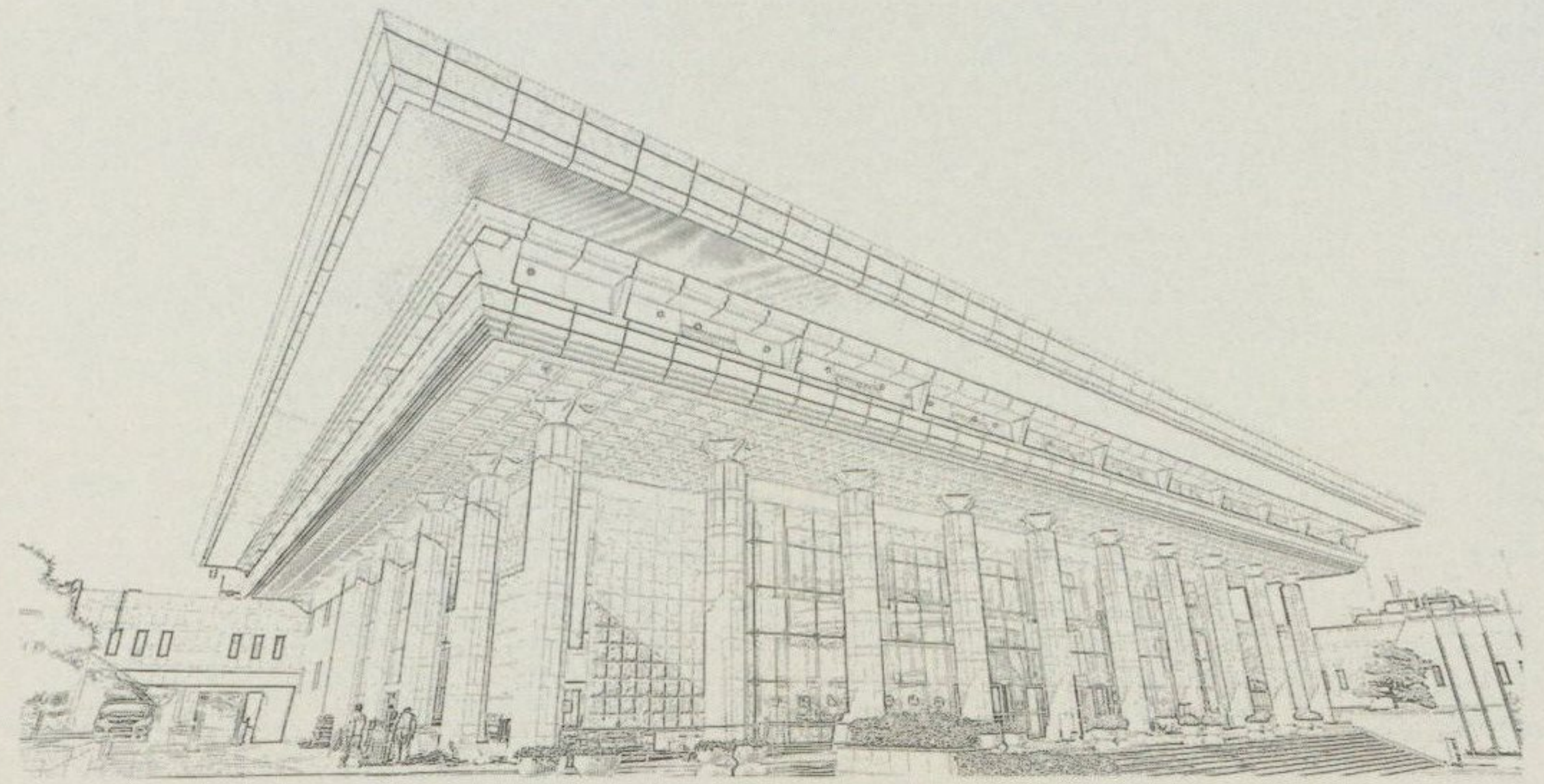
‘드레스덴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은 작센교육청과 드레스덴시가 격년으로 열고 있는 합창페스티벌로 베네주엘라, 우크라이나, 독일, 아이슬란드 등 세계적인 어린이, 청소년합창 단체가 참석하는 권위있는 어린이합창페스티벌이다.

할레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은 헨델의 도시 할레를 대표하는 어린이합창페스티벌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012년 처음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는 우승단체로 축하무대를 위해 참가했고 올해는 역대 우승 단체만 참가하는 대회에 다시 참가,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상철 수석지휘자를 비롯해 34명의 단원이 참가한 이번 독일공연은 우리의 정서가 녹아있는 추천가, 아리랑 고개위의 들장미(이영조 편곡), 얼레폴라리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독일에 우리 음악을 알렸고 단원들은 제5회 드레스덴어린이합창페스티벌과 제35회 할레어린이합창페스티벌 공연과 워크숍 참가를 통해 현지문화를 체험하고 세계어린이합창의 흐름을 익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한복과 율동, 아름다운 선율로 공연마다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전체 8회 공연에 4,800여 명의 관람객들과 교감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호주에 울려 퍼진 우리가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호주 멜번 제1회 코리아페스티벌 참가



부산시와 빅토리아주 멜번 수교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멜번시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페스티벌에 참가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1명의 연주단이 교민, 유학생은 물론 호주 현지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귀국했다.

멜번 한국영사관에서 주최한 제1회 코리아페스티벌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박 5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페스티벌 개막공연과 특별공연에서 판소리 흥부가와 시나위, 가야금 거문고 중주, 호주민요, 한국민요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 교민, 유학생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한국 전통 음악을 처음 접한 호주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생소한 음악과 함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연주자들이 사진촬영과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야외 광장 부스에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한국 음식배우기, 태권도 시연, K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고 교민들로 구성된 풍물팀의 길놀이, 가야금 병창, 춘앵무 한복패션쇼, 전통 혼례 등이 이어져 호주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공연의 뜨거운 반응으로 한국영사관으로부터 2015년 코리아페스티벌 참가를 제의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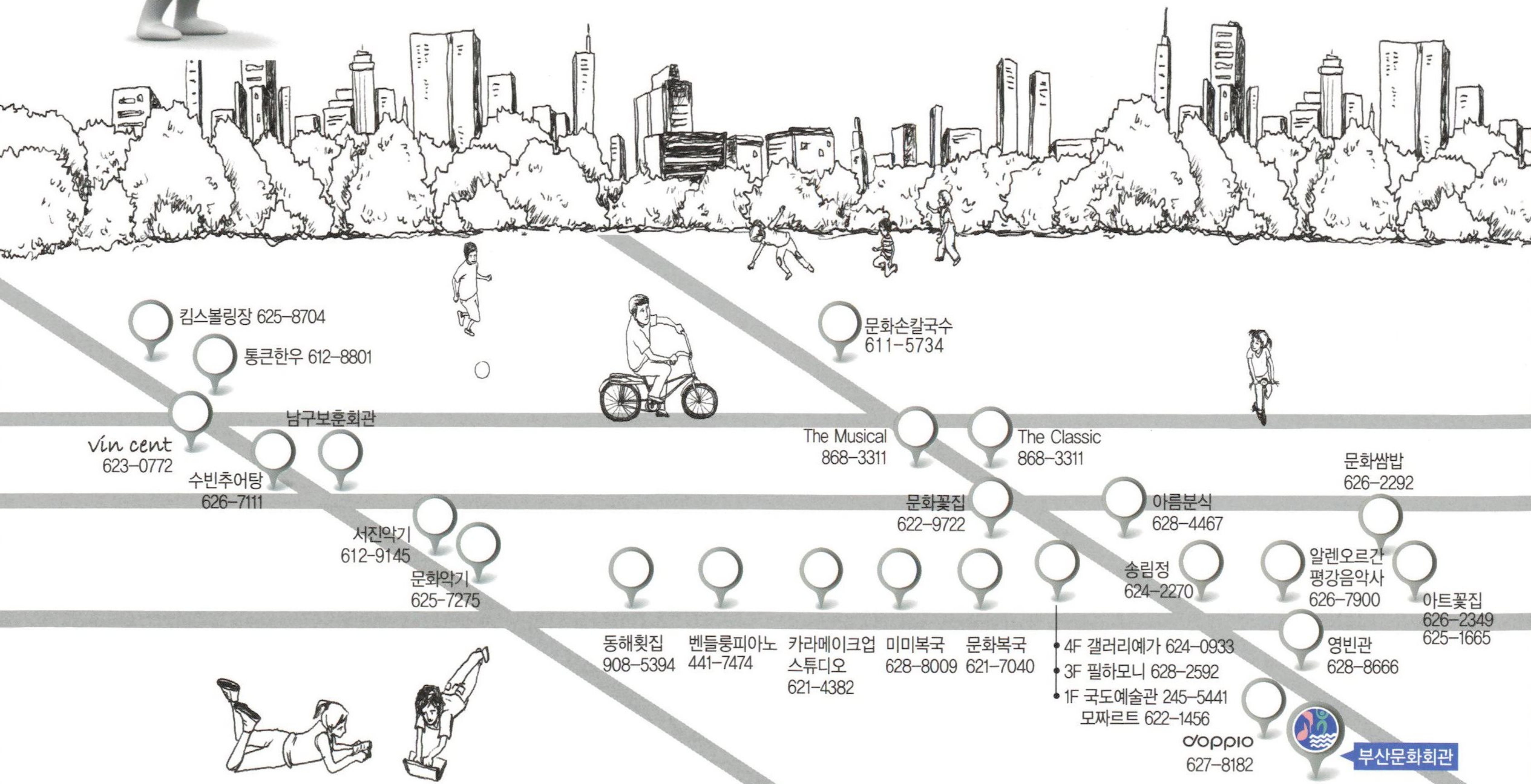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음료 10%할인</b>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b>커피 10%할인</b>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b>philharmony</b>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식사 10%할인</b>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b>식사 5%할인</b>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시 <b>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b>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와 할인쿠폰 소지자 <b>특별우대</b>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  
 로버트 J. 워스 지음

지난호 정답

프 레 디 캄 프 과 콘  
 로 즈 풀 매 카 트 니  
 메 치 니 코 프 기 라  
 테 무 완 립 베 송  
 우 쿨 렐 레 득 이  
 스 차 이 코 프 스 키  
 흥 길 동 전 펠 메  
 익 놀 오 페 라  
 종 인 바 이 울 린 치  
 간 다 라 레 마 카 오

6월 퍼즐 당첨자

## 가로열쇠

- ① 퀸 엘리자베스(3위수상거부), 쇼팽 콩쿠르(3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1위 없는 4위)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6월 17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비엔나 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회에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함께 무대에 선다.
- ③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러시아 작곡가. 15곡의 교향곡 외에 현악4중주곡을 비롯해 기악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음악, 영화음악 등 많은 걸작을 남겼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삽입되어 더욱 유명해진 '왈츠' 역시 그의 작품이다.
- ⑦ 조선 정조, 순조 무렵 8명창 중의 한 사람 박유전(朴裕全)의 법제(法制)를 이어받은 유파로 광주, 나주, 보성, 강진, 해남 등 섬진강 서쪽지역에서 성행했다 하여 부쳐진 판소리 유파.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애절해 활달하고도 우렁찬 동편제(東便制)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 ⑧ 제주, 재능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특히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를 가리킨다.
- ⑩ 프랑스의 화가. 그가 주도한 야수파(포비슴)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으로, 보색관계를 교묘히 살린 청결한 색면효과 속에 색의 순도를 높여 확고한 그만의 예술을 구축함으로써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의 위대한 지침이 되었다.
- ⑫ 지난 2000년 첫 번째 영화가 제작된 후 올해 7번째 영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개봉된 헐리우드 최고 블록버스터영화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돌연변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⑮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무장(武將)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충신의 전형으로 등장했으며, 송대 이후에는 중국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⑯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색의 부석(浮石)이 얹혀 있으므로 마치 흰 머리와 같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 ⑳ 6월 13일부터 열리는 2014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
- ㉑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
- ㉒ 지난 5월 1일 정식 개장하면서 100년만에 부산시민의 품에 돌아온 도심 속 명품 테마공원.
- ㉓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대륙부의 총칭. 일반적으로 옛 프랑스령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가리킨다.
- ㉔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로마 티투스 황제의 000을 그대로 본떠 설계했다.

## 세로열쇠

- ② 1952년 일본서커스단에서 독립한 30여 명의 조선인들로 창단된, 88년 전통의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
- ④ 이집트, 그리스 미술 및 전설에 등장하는,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동물.
- ⑤ 2007년 6살의 어린 나이에 영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세계인을 감동시켰던 가수. 지난 4월 내한공연 당시 노란리본을 달고 나와 세월호 침몰사고에 애도를 표했으며, 공연 수익금 모두를 기부하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 ⑥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한 '사상의학'을 창시한 조선 말기의 학자.
- ⑨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연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한다.
- ⑩ 광고의 대상자에게 호기심을 제공하면서, 광고 메시지에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후속광고에의 도입 구실도 하는 광고. 00는 놀려대는 사람, 짓궂게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⑬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지난 196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초연무대를 가졌다.
- ⑭ 0000놀이기에 등장하는 이상아릿하고 기괴한 탈을 씌운 인형. 연희자(演戲者)의 조종에 의해 움직인다 하여, 주체성 없이 조종되는 사람이나 정부를 이에 비유한다.
- ⑰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발생한 시가 형식. 시가와 산문의 중간적 형태로, 서정시와는 달리 사물이나 생활에 관한 잡다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 ⑱ 조카며느리.
- ㉒ 한국의 전통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의 하나. 19세기 말 김창조(金昌祖)의 가야금00를 효시로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으로 발전하였다. 장구의 반주가 필수적이다.
- ㉓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남쪽 5~20km에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통제선이라고도 부른다.
- ㉔ 신라의 승려로 일심(一心)과 화쟁(和諍)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수많은 저술을 남겨 불교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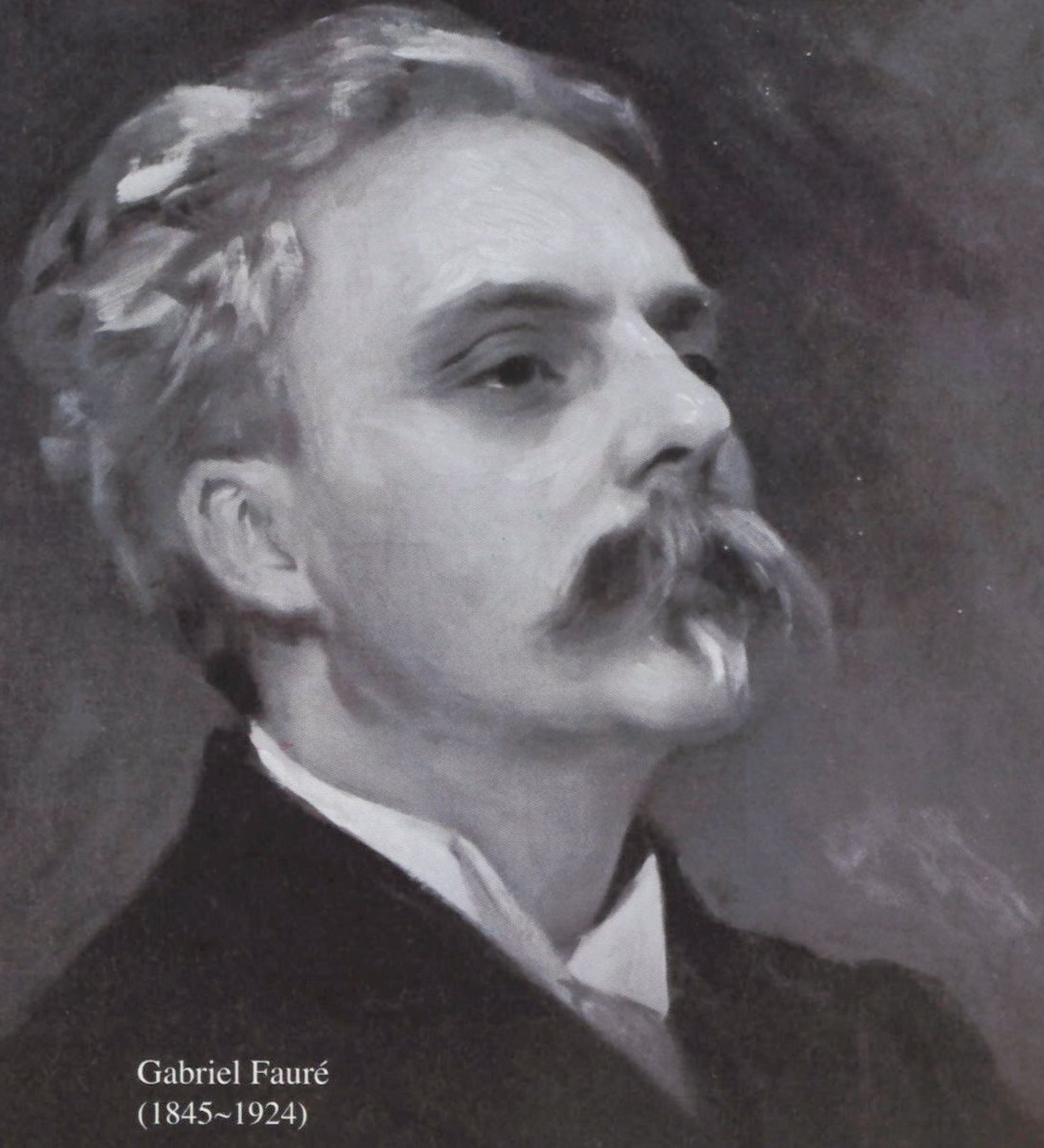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예희(수영구 호암로)  
 박경택(해운대구 우동1로)  
 윤지수(동래구 동래로)  
 이선희(서구 암남공원로)  
 최미선(부산진구 새싹로)

조은극장  
 초대권 남정숙(서구 괴정로)  
 문지현(영도구 영선대로)  
 송경희(연제구 토현로)  
 정은미(사상구 사상로)  
 최수진(남구 천제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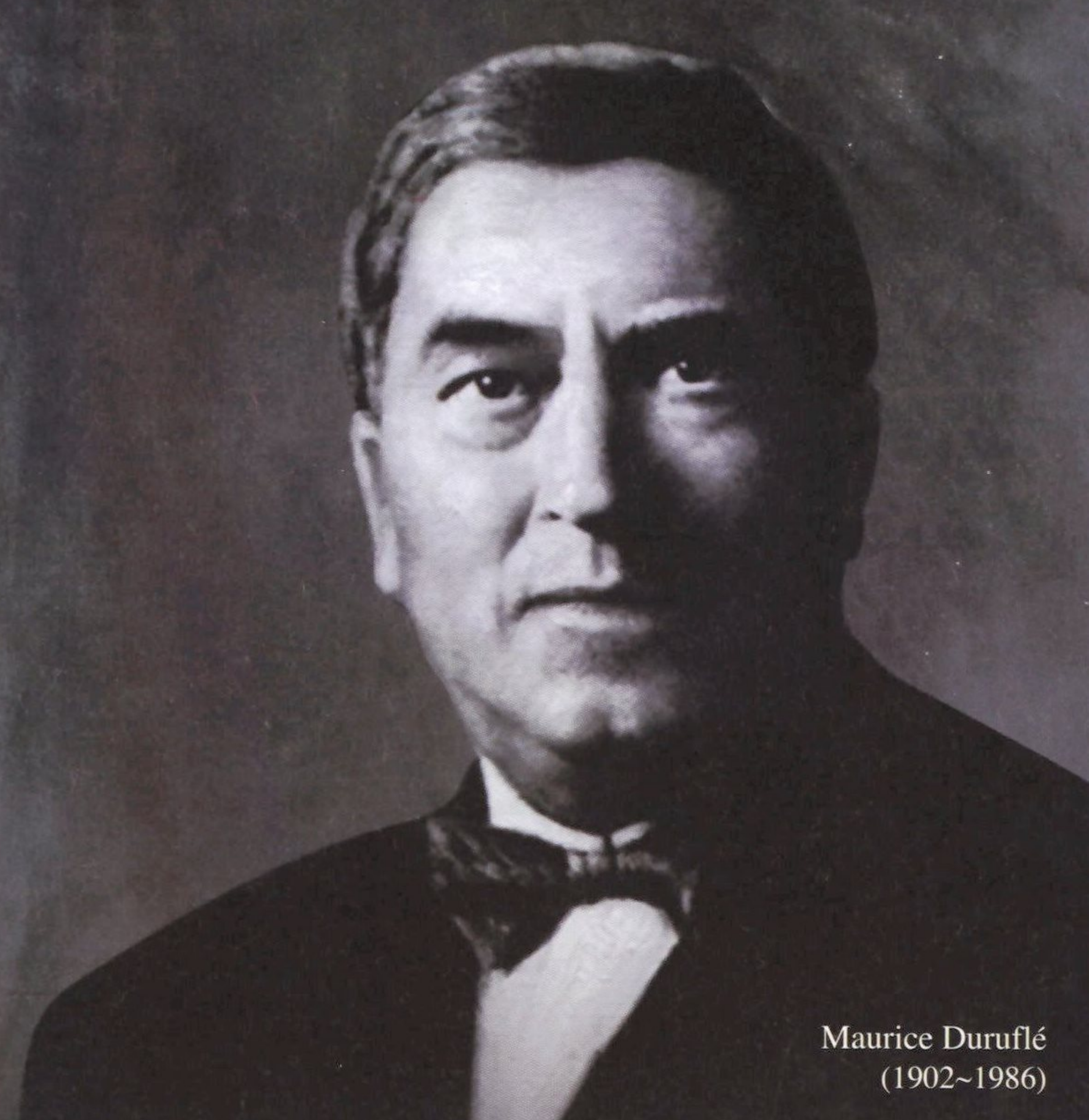
큰집  
 식사권 김예현(사상구 냉정로)  
 박정도(사하구 다대로)  
 박향숙(강서구 명지오션시티2로)  
 이군재(영도구 영선대로)  
 이순덕(서구 꽃마음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  
 강기중(부산진구 복지로)  
 박정수(기장읍 대청로)  
 우수중(해운대구 세실로)  
 조지호(해운대구 양운로)  
 한지희(금정구 금강로)





Gabriel Fauré  
(1845~1924)



Maurice Duruflé  
(1902~1986)

# REQUIEM

## M. Duruflé & G. Fauré

2014. 6. 27(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오세종



오르가니스트  
홍충식



바리톤  
염경묵



메조소프라노  
정은영



소프라노  
김한별

지휘 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에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로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둘가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딩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051)626-2592

**연극 '색어매드니스'**

2014.5. 22(목)-6. 29(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7시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리얼코믹연극 '달콤한 수작'**

2014.5. 1(목)-6. 29(일)  
평일 오후 8시, 토:공휴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5시30분, 8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2014.6. 12(금)-7. 13(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5시30분, 8시  
일: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 소 : 초은극장 스테이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울동네 합창단'**

2014.6. 11(수)-29(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공휴일 오후 2시, 5시  
입장권 : 균일 3만5천원  
장 소 : 가온아트홀 3관  
문의 및 예매 : SM71회 1600-1602

**CULTURAL SCHEDULE**

2014 JUNE 6

- 1 19:3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14 Grand Theatre Free/BIDF(868-7881~2)
- 2 19:0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Medium Theater 10,000/BIDF(868-7881~2)
- 3 19:30 Agimus Opera 'Peace & Advance' Grand Theatre 30,000/Agimus Opera(070-7522-4649)
- 3 19:0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14 Closing Ceremony Medium Theater Free/BIDF(868-7881~2)
- 4 19:30 The 13th Regular Concert of Amabile Saxophone Orchestra Grand Theatre Free Amabile Saxophone Orchestra(010-3580-8661)
- 4 19:30 Kim Eunjung Piano Concert Medium Theater 20,000/Artbank Korea(442-1941)
- 4 19:00 Performance of Department of Practical Dance, Busan Arts College 'Dream Performance 2014' Small Theater Invitation/Department of Practical Dance(627-7992)
- 5 19:30 Lee Yutae Recital Grand Theatre Invitation/Busan Art Management(740-5833)
- 6 17:00 Piano Quartet Concert Medium Theater Invitation/Kim Jeongheol(010-4552-4106)
- 6 17:00 English Musical 'KIBI' Medium Theater 10,000/Wicoms(010-6205-1445)
- 7 18:00 The 19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Academic Orchestra Medium Theater Invitation/Incorean Academic Orchestra(627-8088)
- 7 16:00 Saturday Regular Stage-Traditional Group 'AVIO'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 C. C.(607-6056)
- 8 13:00 Wow Trot Starshow Grand Theatre Dure Entertainment(868-0055)
- 8 18:00 Busan International Clarinet Festival in Concert Small Theater 10,000/BICF(070-4178-7238)
- 9~13 10:00 The 31st Busan Music Concours 2014 Grand Theatre/Medium Theater/Small Theater BusanMBC(760-1126)
- 14 19:00 The 10th Regular Concert of Stroke Percussion Ensemble Grand Theatre 10,000/Jang Gyeongik(607-3116, 017-544-5451)
- 14 17:00 The 9th Regular Concert of UKYO Medium Theater 5,000/UKYO(010-5540-1538)
- 14 16:00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 C. C.(607-6056)
- 15 17:00 Graduate Recital of Department of Dance, Silla University Small Theater Silla Uni. (999-5301)
- 16 19:30 The 23th Regular Concert of Glory Choir Medium Theater 10,000 Glory Choir(010-8544-4702, 010-4031-7053)
- 16 19:30 Kim Sohyeon Haegem Concert Small Theater Invitation/Kim Sohyeon(010-4642-9310)
- 17 19:30 Richard Yongjae O'Neill, Dong-Hyuk Lim, Clara-Jum Kang & Vienna Chamber Orchestra Grand Theatre 90,000/70,000/50,000/B. C. C.(607-6058)
- 17 19:30 The 10th Regular Concert of Dounguei Piano Society Grand Theatre Dounguei Piano Society(010-3304-5154)
- 18~19 10:00 The 31th Busan Music Concours 2014 Grand Theatre/Medium Theater BusanMBC(760-1126)
- 20 19:30 The 501st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5,000/B. P. C.(607-3111~3)
- 20 19:30 The 5th Regular Concert of Piastra Medium Theater Piastra(010-9470-0094)
- 21 19:00 The 11st Regular Concert of Busan Harmony Choir 'Requiem' Grand Theatre Invitation/Busan Harmony Choir(010-5663-3347)
- 21 17:00 The Regular Concert of KBS Busan Children Choir Medium Theater 5,000/KBS Busan Children Choir(010-3864-9889)
- 21 16:00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 C. C.(607-6056)
- 22 18:00 All that Harp Small Theater Invitation/Kim Youngrip(010-9261-8843)
- 24 19:30 Campbellsville Jazz Ensemble Concert Grand Theatre 30,000/20,000/10,000 Busan Culture(1600-1803)
- 24 19:3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14 Pungryu' Small Theater 3,000/B. M. D. C.(607-3131)
- 25 19:30 The 6th Regular Concert of Lamer Orchstra Medium Theater 20,000/10,000 Lamer Orchstra(627-5665, 010-5566-5332)
- 26 19:30 The 11st Regular Concert of Yewonhoe Medium Theater 10,000/Yewonhoe(010-4871-9288)
- 27 19:30 The 151st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M. Durufle & G. Faure-Requiem' Grand Theatre 10,000/7,000/5,000/BMC(607-3141~2)
- 27 19:30 The 7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a Orchestra Medium Theater 10,000/Busan Philharmonia Orchestra(011-843-0366)
- 28 19:30 Sorina Duo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20,000/Artbank Korea(442-1941)
- 28 16:00 Saturday Regular Stage- Agimus Opera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 C. C.(607-6056)
- 30 19:30 The 33th Regular Concert of U. K. O Grand Theatre 20,000/U. K. O(010-3863-3087)
- 7/1 19:30 Opera Travel 1 with Nanse Gum 'La Traviata' Grand Theatre 20,000/15,000/10,000/B. C. C.(607-6058)
- 7/1 19:30 Ju Jongsik, Choi Seonggyu Duo Concerto Small Theater 20,000/Choi Seonggyu(010-3564-3439)

우 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쉬어매드니스'**  
 \*쿠폰소재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0% Discount**  
**리얼코믹연극 '달콤한 수작'**  
 \*쿠폰소재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0% Discount**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쿠폰소재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0% Discount**  
**연극 '올동네 합창단'**  
 \*쿠폰소재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원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

연락처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5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6월 공연일정

2014 JUNE **6**

- |      |   |   |   |
|------|---|---|---|
| 1    | 19:30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공식초청공연 대극장<br>무료/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 17  |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 임동혁, 클라라 주미 강 & 비엔나체임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br>대극장 9만원, 7만원, 5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
| 2    | 19:00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국제인무기육성공연 중극장<br>균일 1만원/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 19:30 제10회 동양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br>중극장 동양의피아노소사이어티(010-3304-5154)          |   |
| 3    | 19:30 아지무스 오페라단 기획공연 행복콘서트 '평화와 전진'<br>대극장 균일 3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 18~19   | 10:00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br>대 중극장 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      | 19:00 제10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중극장<br>무료/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2)                                 | 20  |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1회 정기연주회 '명작, 러시아'<br>대극장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br>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 4    | 19:30 아미발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br>대극장 초대/아미발레오케스트라(010-3580-8661)                        | 19:30 제5회 피아스트라 정기연주회<br>중극장 피아스트라(010-9470-0094)                       |   |
|      | 19:30 김은정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br>중극장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 21  | 19:00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br>'밤 칠콧'의 'REQUIEM, 레퀴엠' 대극장<br>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010-5663-3347)                 |
|      | 19:00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br>'Dream Performance 2014'<br>소극장 초대/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627-7992) | 17:00 2014년 KBS부산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br>중극장 균일5천원/류지원(010-3864-9889)          |   |
| 5    | 19:30 제2회 이유태 독창회 '희화낙락'<br>중극장 초대/부산아트메디니먼트(740-5833)                                    | 19:00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무용단<br>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
| 6    | 17:00 6월에 그려보는 내 피아노 스케치<br>'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코르렛 콘서트'<br>중극장 초대/김정희(010-4552-4106)        | 22  | 18:00 가족과 함께 즐기는 All that Harp<br>소극장 초대/김영림(010-9261-8843)   |
|      | 17:00 어린이 영어뮤지컬 'KIBI'<br>소극장 균일1만원/위컴스(010-6205-1445)                                    | 24  | 19:30 미국 캠벨스빌 앙상블 초청연주회 대극장<br>3만원, 2만원, 1만원/부산문화(1600-1803)  |
| 7    | 18:00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br>중극장 초대/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627-8088)                         | 19:30 부산시립무용단 '2014 풍류 9기'<br>중극장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              |   |
|      | 16:00 토요일실무대-국악밴드 아비오<br>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25  | 19:30 라메르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중극장<br>2만원, 1만원/라메르오케스트라(627-5665, 010-5566-5332)                           |
| 8    | 13:00 외우 트로트 스타 쇼<br>18:00 대극장 두레엔터테인먼트(868-0055)   | 26  | 19:30 여원회 제11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협주곡의 밤-<br>두번째 시리즈 '로맨틱 그리고 두대의 피아노'<br>중극장 균일1만원/여원회(010-4871-9288)         |
|      | 19:00 부산국제 클라리넷페스티벌 소극장<br>1만원/부산국제클라리넷페스티벌(070-4178-7238)                                | 27  | 19:30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두개의 레퀴엠'<br>대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                            |
| 9~13 | 10:00 2014 제31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대 중 소극장<br>부산문화방송사업팀(760-1126)                                 | 19:30 부산원로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중극장<br>균일1만원/부산원로교향악단(011-843-0366)            |   |
| 14   | 19:00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대극장<br>균일 1만원/장경식(607-3116, 017-544-5451)                   | 28  | 19:30 Sorina Duo Piano Recital<br>중극장 균일 2만원/아트뱅크 코레아(442-1941)                                       |
|      | 17:00 UKYO 제9회 정기연주회<br>'밝은 미래, 나눔을 함께하는 음악회'<br>중극장 균일 5천원/UKYO(010-5540-1538)           | 19:30 토요일실무대-아지무스오페라단<br>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
|      | 19:00 토요일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br>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30  | 19:30 U.K.O 제33회 정기연주회 '추모... 그리고, 희망'<br>중극장 균일2만원/UKO(010-3863-3087)                                |
| 15   | 17:00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발표회<br>저 멀리 날개를 펼칠 그들의 작품회<br>소극장 무료/신라대학교(999-5301)                     | 7/1   |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br>금년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라 트라비아타'<br>대극장 2만원, 1만5천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
| 16   | 19:30 글로리아이어 제23회 정기연주회 중극장<br>균일 1만원/글로리아이어(010-8544-4702, 010-4031-7053)                | 19:30 제8회 테너 주중식, 바리톤 최성규 Duo Concerto<br>중극장 균일 2만원/최성규(010-3564-3439) |   |
|      | 19:30 김소현 해금 독주회-풍류와 산조<br>소극장 초대/김소현(010-4642-9310)                                      |   |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

지휘 유베르트 수당  
*Hubert Soudant*

# 거장 유베르트 수당 초청 名作, 러시아 II RUSSIA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2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예브게니 이조토프  
*Evgeny Izotov*

### Program

무소르그스키 | 「코반쉬나」中 “서주 : 모스크바 강의 새벽”  
M. Mussorgsky | ‘Introduction : Dawn on the Moscow River’ from “Khovanshchina”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림스키-코르사코프 | 교향적 모음곡 「셰헤라자데」 작품35  
N. Rimsky-Korsakov | Symphonic Suite “Scheherazade” op.35

# 2014. 7. 4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성공개최 D-100 행사기념

#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

새로운 형태의 갈라 콘서트

## LA TRAVIATA 라 트라비아타

conductor **Gum Nanse**  
지휘·해설 **금 난 새**

2014. 7. 1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문의 051-607-6058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